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554-000005-01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2023. 12.

2023 섬 특성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2023. 12.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제 출 문

인천관광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섬 특성화사업 공모를 위한 현장 컨설팅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사)인천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준모

<목 차>

I . 과업개요	1
1.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	3
3. 과업 수행 체계	5
II . 섬 특성화사업의 이해	7
1. 사업의 개념	9
2. 단계별 주요내용	9
3. 사업의 주안점	10
4. (인천형 사업)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11
5. 전략수립을 위한 SWOT 분석	13
III . 고남마을(신도2리) 컨설팅	15
1. 마을 현황 분석	17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48
3. 종합분석	50
4. 마을발전구상	52
5. 단계별 사업 제안	54
IV . 사슴개마을(자월3리) 컨설팅	63
1. 마을 현황 분석	65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85
3. 종합분석	88
4. 마을발전구상	90
5. 단계별 사업 제안	92

V. 진두마을(내5리) 컨설팅	101
1. 마을 현황 분석	103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128
3. 종합분석	130
4. 마을발전구상	132
5. 단계별 사업 제안	134
VI. 소무의도 컨설팅	139
1. 마을 현황 분석	141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193
3. 종합분석	195
4. 마을발전구상	197
5. 단계별 사업 제안	199
VII. 현장 컨설팅 결과	205
1. 1차 컨설팅 결과	207
1. 2차 컨설팅 결과	211
1. 2차 컨설팅 결과	215
□ <부록>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221

<표 목차>

<표 1-1> 섬 특성화사업 컨설팅 대상	3
<표 1-2> 과업 수행기관	5
<표 1-3> <표 1-3> 과업 추진 방법	5
<표 2-1>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9
<표 3-1> 삼목-신도 간 운항시간	19
<표 3-2> 신시모도 공영버스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표	20
<표 3-3> 삼목-동인천 순환 북도면 공영버스 운행시간표	21
<표 3-4> 신도2리 인구 구성 ('23년 10월 말 기준)	26
<표 3-5>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27
<표 3-6> 신도2리 관련 민요	45
<표 3-7> 신도 고남마을 공모 신청 결과	48
<표 3-8> 신도 고남마을 SWOT 분석 결과	50
<표 3-9> 신도 고남마을 핵심성공요소	51
<표 3-10> 신도 고남마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51
<표 3-11> 신도 고남마을 발전구상	52
<표 3-12> 신도 고남마을 단계별 사업 제안	54
<표 3-13> 신도 고남마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	61
<표 4-1> 인천항-자월도 간 운항시간	67
<표 4-2> 대부도-자월도 간 운항시간	67
<표 4-3> 자월3리 인구 구성('23년 말 12월 기준)	69
<표 4-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70
<표 4-5> 자월도 사슴개마을 공모 신청 결과	85
<표 4-6> 자월도 사슴개마을 SWOT 분석 결과	88
<표 4-7> 자월도 사슴개마을 핵심성공요소	89
<표 4-8> 자월도 사슴개마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89
<표 4-9> 자월도 사슴개마을 발전구상	90
<표 4-10> 자월도 사슴개마을 단계별 사업 제안	92
<표 4-11> 자월도 사슴개마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	99

<표 5-1> 영흥도 버스 운행시간표	104
<표 5-2> 인천시티투어 ‘선재 · 영흥 투어’ 노선	105
<표 5-3> 내5리 인구 구성(‘23년 10월 말 기준)	106
<표 5-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107
<표 5-5> 영흥도 진두마을 공모 신청 결과	128
<표 5-6> 영흥도 진두마을 SWOT 분석 결과	130
<표 5-7> 영흥도 진두마을 핵심성공요소	131
<표 5-8> 영흥도 진두마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131
<표 5-9> 영흥도 진두마을 발전구상	132
<표 5-10> 영흥도 진두마을 단계별 사업 제안	134
<표 5-11> 영흥도 진두마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	138
<표 6-1> 소무의도 연계 노선버스 운행시간표	142
<표 6-2>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148
<표 6-3>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전시공간에 전시된 역사 연표	170
<표 6-4> 소무의도 공모 신청 결과	193
<표 6-5> 영흥도 진두마을 SWOT 분석 결과	195
<표 6-6> 소무의도 핵심성공요소	196
<표 6-7> 소무의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196
<표 6-8> 소무의도 발전구상	197
<표 6-9> 소무의도 단계별 사업 제안	199
<표 6-10> 소무의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	203
<표 7-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1차 컨설팅 결과	207
<표 7-2>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1차 컨설팅 결과	208
<표 7-3>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1차 컨설팅 결과	209
<표 7-4> 소무의도(종구 무의동) 1차 컨설팅 결과	210
<표 7-5>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2차 컨설팅 결과	211
<표 7-6>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2차 컨설팅 결과	212
<표 7-7>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2차 컨설팅 결과	213
<표 7-8> 소무의도(종구 무의동) 2차 컨설팅 결과	214
<표 7-9>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3차 컨설팅 결과	215

<그림 목차>

<그림 2-1>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추진방식	11
<그림 2-2> SWOT Matrix 분석 기법	13
<그림 3-1> 신도2리 위치	17
<그림 3-2> 신도2리 위치	18
<그림 3-3> 신도선착장 조형물	19
<그림 3-4> 삼목선착장	19
<그림 3-5> 세종 1호	19
<그림 3-6> 신도 내 공영버스	21
<그림 3-7> 신도1리-신도4리 인구 분포도	26
<그림 3-8> 신도2리의 주요 지명	32
<그림 3-9> 계구지	32
<그림 3-10> 북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33
<그림 3-11> 북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내부	35
<그림 3-12> 신도 해안의 칠면초	36
<그림 3-13> 수변공원 일대에서 채취한 나문재 열매	36
<그림 3-14> 신도2리 다목적회관	37
<그림 3-15> 신도바다역[여객터미널]	37
<그림 3-16> 신도선착장 전경	38
<그림 3-17> 1980년대 신도국민학교 위치	38
<그림 3-18> 「해동지도」의 신도	40
<그림 3-19> 「조선팔도지도」의 신도	40
<그림 3-20> 「좌해지도」의 신도	41
<그림 3-21> 「대동방여전도」의 신도	41
<그림 3-22> 「강화부전도」의 신도	42
<그림 3-23> 「동국여도」의 신도	42
<그림 4-1> 자월3리 위치	65
<그림 4-2> 자월도선착장	67
<그림 4-3> 자월도 공영버스 운행시간표	68

<그림 4-4> 자월도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68
<그림 4-5> 자월1리-자월3리 인구 분포도	69
<그림 4-6> 자월3리 주요 지명	74
<그림 4-7> 별난금 해변	75
<그림 4-8> 목섬	75
<그림 4-9> 마을 내 수수밭	76
<그림 4-10> 둥굴레 제품	76
<그림 4-11> 열녀바위	77
<그림 4-12> 천문공원 카페	78
<그림 4-13> 천문공원 및 천문대 부지	78
<그림 5-1> 내5리 위치	103
<그림 5-2> 내5리를 경유하는 인천시티투어버스	105
<그림 5-3> 내1리-내7리 인구 분포도	106
<그림 5-4> 내5리 입구의 ‘진두’ 안내판	111
<그림 5-5> 새우양식장으로 활용될 당시의 진두해수욕장 터	112
<그림 5-6> 진두해수욕장 터	112
<그림 5-7> 해수욕장 산	113
<그림 5-8> 해수욕장 산 하부 절개면	113
<그림 5-9> 내5리의 주요 지명	114
<그림 5-10> 거리에서 판매중인 수산물	116
<그림 5-11> 간재미 손질	116
<그림 5-12> 늘푸른센터 전경	117
<그림 5-13> 카페 터미널 전경	118
<그림 5-14> 영흥대교 전경	121
<그림 5-15> 영흥대교 야경	121
<그림 5-16> 진두항	122
<그림 5-17> 진두항 선착장 안내도	122
<그림 5-18> 하늘고래 조형물 및 전망데크 근경	124
<그림 5-19> 하늘고래 조형물 및 전망데크 원경	124
<그림 5-20> 1918년 제작 영흥면 내리 「임야원도」	125
<그림 5-21> 일제강점기 「1:50,000 조선지도」	125

<그림 5-22> 내5리 입구의 진두마을 표지석	126
<그림 6-1> 소무의도 위치	141
<그림 6-2> 중구6 버스	143
<그림 6-3> 무의1 버스	143
<그림 6-4> 소무의인도교 전경	144
<그림 6-5> 소무의인도교 근경	144
<그림 6-6> 소무의인도교 야경	145
<그림 6-7> 소무의인도교의 도로 폭	145
<그림 6-8> 광명항 진입도로	146
<그림 6-9> 소무의도 이동보조차량	146
<그림 6-10> 서쪽마을과 동쪽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147
<그림 6-11> 소무의인도교를 이동하는 소형 카트	147
<그림 6-12> 떼무리항	150
<그림 6-13> “소무의떼무리 항” 안내판	150
<그림 6-14> 서쪽마을	152
<그림 6-15> 동쪽마을	152
<그림 6-16> 동쪽마을 앞 몽여해변	153
<그림 6-17> 모예재 중 도로 폭이 좁은 구간	153
<그림 6-18> 모예재 길가의 공동우물	154
<그림 6-19> 동쪽마을의 공동우물	154
<그림 6-20> 동쪽마을 공동우물의 내부	155
<그림 6-21> 소무의도 길가의 고양이	155
<그림 6-22> 웃뿌리선창	156
<그림 6-23> 아랫뿌리선창	156
<그림 6-24> 부처깨미	157
<그림 6-25> 언두꾸미 안내판	157
<그림 6-26> 주목망 조업모식도	158
<그림 6-27> 소무의도 주요 지명	159
<그림 6-28> “땀리국수” 가게에서 판매하는 “땀리국수”	160
<그림 6-29> 소무의도 입구의 새우 조형물	161
<그림 6-30> 소무의도 스토리움에 전시된 특산물 소개 패널	163

<그림 6-31> 소무의도 복지회관	164
<그림 6-32> 낙조 및 소무의인도교 전경	165
<그림 6-33> 소무의인도교 야간 풍경	165
<그림 6-34> 소무의도 스토리움 전경	167
<그림 6-35>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특산물 판매대	168
<그림 6-36> 소무의도 스토리움 2층 전시장	168
<그림 6-37> 소무의도 스토리움 2층 쉼터	169
<그림 6-38>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카페에서 판매중인 기념품	169
<그림 6-39>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전경	174
<그림 6-40>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에서 판매중인 건어물	174
<그림 6-41>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건어물 건조 작업	175
<그림 6-42>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건어물	175
<그림 6-43> 모예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의교회	177
<그림 6-44> 폐교될 무렵인 1995년의 무도분교 항공사진	178
<그림 6-45>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 전경	179
<그림 6-46>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 내부	179
<그림 6-47> 관광안내소	180
<그림 6-48> 관광안내소 옆 느린 우체통	180
<그림 6-49> 「영종지도」의 소무의도	181
<그림 6-50> 「동여도」의 무의도	181
<그림 6-51> 「대동방여전도」의 무의도	182
<그림 6-52> 「지적원도」의 소무의도	182
<그림 6-53> 대무의도 원도안치를 언급한 이동휘의 서면 내용	183
<그림 6-54> 1938년 예배당 건립 후 기념 사진(이상환 목사 제공)	191
<그림 6-55> 무의교회 초기 기념비석	191
<그림 6-56> 무의교회 옛종	192
<그림 6-57> 소무의도 스토리움 원경	194
<그림 7-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1차 컨설팅	216
<그림 7-2>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1차 컨설팅	216
<그림 7-3>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1차 컨설팅	217
<그림 7-4>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1차 컨설팅	217

<그림 7-5>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2차 컨설팅	218
<그림 7-6>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2차 컨설팅	218
<그림 7-7>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2차 컨설팅	219
<그림 7-8>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2차 컨설팅	219
<그림 7-9>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3차 컨설팅	220
<그림 7-10>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3차 컨설팅	220

자료 목차

<자료 2-1>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추진원칙	12
<자료 3-1> 신도-시도 연도교 철거 관련 신문 기사	22
<자료 3-2> 북도면 공영버스 신차 교체 관련 신문기사	23
<자료 3-3> 시도-모도 연도교 확장 개통 관련 웅진군 보도자료	24
<자료 3-4> 시도-모도 연도교 재시공 관련 신문기사	25
<자료 3-5> 신도 특산물 단호박 관련 언론 자료	34
<자료 3-6> 신도 특산물 포도 관련 보도자료	35
<자료 3-7> 신도 신흥학교 관련 신문기사	39
<자료 3-8> 신도간이학교 관련 신문기사	39
<자료 3-9> 설화 「신도의 효자」 내용	43
<자료 4-1> 자월도 천문공원 및 천문대 관련 신문기사	79
<자료 4-2> 설화 「명지관의 예언」 내용	80
<자료 4-3> 설화 「벼락 바위」 내용	82
<자료 4-4> 민속 「자월도 당굿」 내용	84
<자료 4-5> 민속 「더리소 풍속」 내용	84
<자료 5-1> 내5리 입구의 “진두” 안내판 내용	111
<자료 5-2> 진술목 안내판 내용	114
<자료 5-3> 내5리 특산물 관련 신문기사	115
<자료 5-4> 카페 터미널 개점 관련 웅진군 보도자료	118
<자료 5-5> 영흥대교 개통 후 항로 폐쇄 관련 신문기사	119
<자료 5-6> 영흥대교 개통 관련 신문기사	120
<자료 5-7> “영흥도 중심도로” 개통 관련 웅진군청 보도자료	120
<자료 5-8>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23
<자료 5-9> “인천상륙작전전초기지” 기념비문	127
<자료 6-1> 함세덕의 희곡 “무의도기행”에 나오는 “떼무리” 내용	149
<자료 6-2> 부처깨미 안내판 내용	158
<자료 6-3> 언두꾸미 안내판 내용	158
<자료 6-4> “명사의 해변” 관련 신문기사	159

<자료 6-5> 새우 조형물 안내문	161
<자료 6-6> 1920년대 소무의도 특산물 새우 관련 신문기사	162
<자료 6-7> 일제강점기 소무의도 특산물 새우 관련 증언(유병제)	162
<자료 6-8> 1960년대 소무의도 특산물 새우 관련 신문기사	163
<자료 6-9> 소무의인도교 착공 관련 신문기사	166
<자료 6-10> 소무의인도교 개통 관련 신문기사	166
<자료 6-11> 소무의도 섬이야기 박물관 미개관 관련 신문기사	171
<자료 6-12> 소무의도 스토리움 개관 관련 신문기사	172
<자료 6-13>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관련 신문기사	173
<자료 6-14> 무의교회 이상환 목사 인터뷰 기사	176
<자료 6-15> 무의교회 건립 관련 신문기사	177
<자료 6-16> 광양소학교 관련 오지섭의 회고	178
<자료 6-17> 이동휘의 대무의도 원도안치(遠島安置) 관련 연구	184
<자료 6-18> 소무의도 탐승회 관련 신문기사	185
<자료 6-19> 백범 김구의 인천, 강화도 방문 관련 신문기사	186
<자료 6-20> 백범 김구의 소무의도 방문 관련 증언(유병제)	187
<자료 6-21> 무의교회 기념비석 안내판 내용	188
<자료 6-22> 무의교회 옛종 안내판 내용	189
<자료 6-23> 무의교회와 오지섭 목사 관련 기록	190

I . 과업개요

I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인천 섬 인구 소멸 문제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섬 특성화사업*의 도입 및 추진이 필요함
- 섬 특성화사업 공모를 희망하는 인천 섬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모 지원 및 섬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섬 특성화사업 :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 및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2. 과업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 2023년 9월 ~ 12월 (약 3개월)

2-2. 공간적 범위

- 행정안전부 「2025년 섬 특성화사업」 공모를 희망하는 4개 마을

<표 1-1> 섬 특성화사업 컨설팅 대상

섬명	행정구역명	마을명	신청단계	비고
신시모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신도 고남마을	1(신규)	-
자월도	옹진군 자월면 자월3리	자월도 사슴개마을	1(신규)	-
영흥도	옹진군 영흥면 내5리	섬나들이 진두마을	3(계속)	2단계 완료('22~'23)
소무의도	종구 무의동 무의12통	춤추는 소무의도	4(계속)	3단계 완료('19~'21)

2-3. 내용적 범위

(1) 대상마을 기본 현황 조사

- 인구, 산업구조, 접근성 등 사회학적 특성 조사
- 지형, 면적, 특산물 등 자연·생태적 특성 조사
- 마을의 물리적(H/W), 사회적(S/W), 인적(Hu/W) 자원 조사

(2) 섬 특성화사업 현황 조사

- (신규사업) 기존 공모 신청 서류('24년 섬 특성화사업 신청 서류) 검토
 - 신청 서류 내용 검토, 공모 미선정 원인 분석, 보완항목 도출 등
- (계속사업) 섬 특성화사업 기존 계획 및 추진 경과 검토
 - 연도별 추진 성과 검토, 보완항목 도출 등

(3)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신규사업) 주민 역량 및 추진의지 검토
 - 사업 인지도, 보유역량,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공동체활동 경과 등 검토
- (계속사업) 추진위원회 역량 및 지속 추진의지 검토
 -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보유역량, 의지, 주민역량강화 교육 경과 등 검토

(4) 종합 분석 및 발전방향 도출

- 종합 분석 실시
 - 마을 현황, 섬 특성화사업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결과 종합 정리
 - SWOT 분석을 활용한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도출
- 마을별 발전 방향 도출
 -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전·목표·전략 구상
 -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 사업 모델 제시
 - 단계별 발전전략 등 사업 확장 및 고도화 방안 제시

3. 과업 수행 체계

3-1. 과업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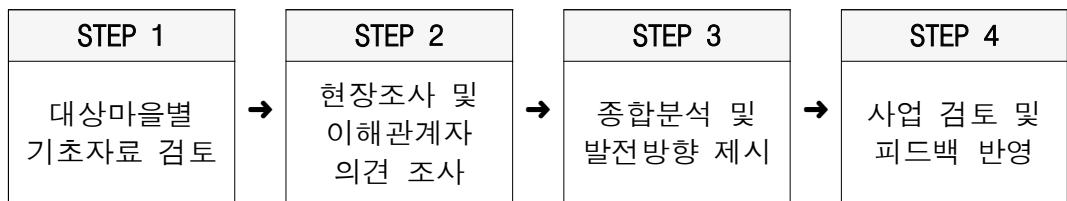
○ (수행기관)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표 1-2> 과업 수행기관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업무
책임연구원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부설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준비위원장	과업 총괄 및 종합분석
공동연구원	김현석	인천녹색연합 부설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준비위원장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
연구보조원	이은빈	인천녹색연합 활동가	행정업무

3-2. 과업 수행 방법

<표 1-3> 과업 추진 방법



(1) 대상마을별 기초자료 검토

- 문헌자료, 보도자료, 기존 섬 특성화사업 보고서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섬발전지원센터 발간 보고서 검토

(2)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마을 현황, 보유 자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마을 현장조사
- 섬 특성화사업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 의견 조사 및 청취

(3) 종합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 마을 자원 및 현안 분석을 통한 섬 특성화사업 추진 방향 도출
- 섬 지속성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4) 사업 검토 및 피드백 반영

- 대상마을별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한 보완사항 도출
- 피드백 사항 반영으로 완성도 높은 컨설팅 결과물 제시

3-3. 과업 접근체계

- 대상지역은 섬 마을의 고유한 특성으로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령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현안을 지니고 있음
- 관광 활성화 측면 외에도 섬 마을의 지속성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특성화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하드웨어(H/W) 사업 및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주민 의견 수렴은 대상 마을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섬 특성화사업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발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Ⅱ . 섬 특성화사업의 이해

II

섬 특성화사업의 이해

1. 사업의 개념

-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은 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 자립도를 높여 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임
-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측면의 종합적인 섬 정책 수단이며, 주민들은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소득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음

2. 단계별 주요내용

<표 2-1>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구분	명칭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1단계	역량기반 조성	4억	2년	사전역량강화, 마을계획 수립 등
2단계	주력분야 조성	9억 내외	2~3년	주력사업(1~2개), 운영활성화 등
3단계	확장연계 조성	30억 내외	3년	사업확장, 운영활성화 등
4단계	자립기반 조성	7억 내외	2년	고도화사업, 역량강화 등

2-1. 1단계 사업

- 역량기반조성 단계로 마을 현장 포럼이나 지자체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임

2-2. 2단계 사업

- 주력분야조성 단계로 1~2개의 주력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활성화하는 단계임. 주민소득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함

2-3. 3단계 사업

- 확장연계조성 단계로 1~2단계 사업이 진행된 마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연계하는 단계임
- 주민 소득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계획하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함

2-4. 4단계 사업

- 자립기반조성 단계로 소규모 인프라시설 구축(H/W), 자립역량제고,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 및 상품개발(S/W), 홍보 및 마케팅(S/W) 등을 추진함

3. 사업의 주안점

3-1. 다양한 섬 지역 사업 유형 발굴

- 섬 지역은 각자 고유한 자원과 다양한 주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령화, 인구소멸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각 섬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섬 발전의 기초 자원으로 특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3-2. 활용 가능한 섬 자원 검토

- 다양한 섬 자원 중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함. 인천 섬은 농촌이자 어촌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임
- 섬은 자연경관·역사문화·인문지리적 관점에서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외지인들은 물론 섬 주민들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섬의 자원 가치를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연경관자원은 해양과 갯벌, 육지 등을 고르게 검토해야 하며, 역사문화적 자원으로는 건축물, 종교관련 공간들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

- 마을의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되, 자연환경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 공동체가 비전을 공감하여 역사문화적 자원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4. 사업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모니터링 시에는 마을 특성, 잠재력, 사업추진 공감대, 주민 의지 및 역량 등을 점검해야 함

4. (인천형 사업)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4-1. 추진방식



<그림 2-1>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추진방식

4-2. 추진원칙

- 원칙1) 신뢰 형성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 원칙2) 다양한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 원칙3)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원칙4)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갈등이 희망이다
- 원칙5) 느린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 원칙6) 과정이 곧 성과이며 봉사정신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 원칙7)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 기간이 좀 더 길어야 한다
- 원칙8) 사업 착수 전에 주민 특성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 원칙9) 사업의 리더는 다수여야 한다
- 원칙10) 사업의 예산은 1년 단위 회계연도로 해서는 안 된다
- 원칙11) 주민자구능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 원칙12) 최고 마을이 아니라 유일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 원칙13) 예산이 문제가 아니며 작은 실천부터 하여야 한다
- 원칙14) 주민 홍보가 먼저이며 그다음에 외부에 알려야 한다
- 원칙15) 주민의 진화하는 삶을 담는 것이다
- 원칙16) 섬 특성화사업은 수평적 팀 작업이다
- 원칙17) 주민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주인이다
- 원칙18) 비관적 비판적인 주민은 늘 있게 마련이다

<자료 2-1>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추진원칙

5. 전략수립을 위한 SWOT 분석

- 섬 특성화사업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SWOT 분석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5-1. SWOT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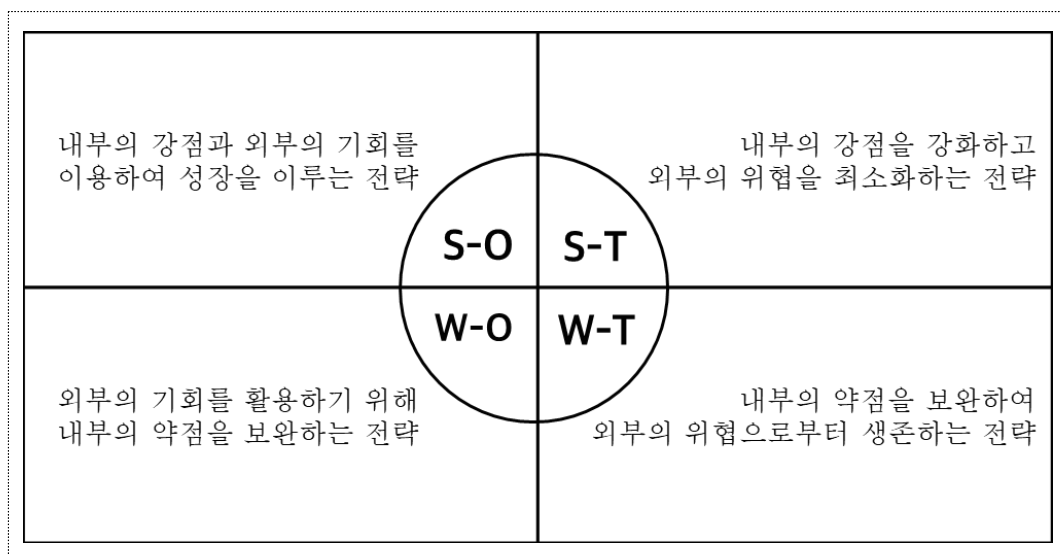
- 1단계는 섬 마을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reat)을 파악하는 것임

5-2. SWOT 분석 2단계

- 2단계는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전략을 4가지로 도출하는 것임
 - S-O 전략 : 내부의 강점과 외부의 기회를 이용하여 성장을 이루는 전략
 - W-O 전략 : 외부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 S-T 전략 : 내부의 강점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 W-T 전략 :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는 전략

5-3. SWOT 분석 3단계

- 3단계는 환경분석 및 SWOT Matrix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섬 특성화사업의 비전 · 목표 · 전략을 도출하는 것임



<그림 2-2> SWOT Matrix 분석 기법

Ⅲ. 고남마을(신도2리) 컨설팅

III

고남마을(신도2리) 컨설팅

1. 마을 현황 분석

1-1. 기본 현황

(1) 마을의 위치

- 웅진군 북도면 신도2리
 - 북도면의 법정리는 신도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가 있으며, 각각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에 해당함.
 - 고남마을의 법정리는 신도리이며, 행정리는 신도2리에 해당함. 법정리인 신도리는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신도4리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음

(2) 주요시설

- 공공시설
 - 신도2리 다목적회관, 신도항 및 신도바다역 여객터미널, 신도수변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음(북도면사무소는 시도리에 위치해 있음)
- 교육시설
 - 교육시설로는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이 있음
- 기타시설
 - 신도2리 내 마을은 사실상 고남마을이 유일하며, 신도로를 따라 도로 인근에 펜션과 카페가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 신도2리 위치

(3) 운항정보

○ 운항항로

- 신도2리는 여객선 항로를 통해서 접근 가능함. 신도2리와 연결된 여객선 항로는 삼목~장봉도 항로가 있으며, 해상거리는 약 12km임
- 신도를 방문하기 위한 여객선은 영종도 삼목항의 삼목선착장과 신도 신도항의 신도선착장에서 이용함

○ 운항선박

-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세종해운(주)의 세종1호, 세종7호, 세종9호가 있음. 모두 차량 이용을 겸할 수 있는 차도선임
- 여객선은 신도를 경유해 장봉도를 왕복하며, 장봉도까지 소요시간은 약 30분, 신도까지 소요시간은 약 10분임

○ 운항시간

- 여객선은 삼목항에서 매 시간 출항하며, 1일 13회 왕복함
- 삼목항 출항시간은 1회차 07시, 13회차 20시 10분이며, 신도항에서 삼목항 13회차 출항 시간은 19시 30분임¹⁾

○ 운항요금

- 삼목-신도간 운항요금은 대인기준 일반여객이 편도 2,000원이며, 인천시민은 45% 할인율을 적용 받아 1,100원임²⁾



<그림 3-2> 신도2리 위치³⁾

- 1) 기상, 조석, 선박 사정 등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2018년 1월 이후 인천시민 할인율은 80%로 변경되었으나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서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할인율은 45%가 적용됨
-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msa.or.kr/kor/sub03_020302.do;jsessionid=EF84A97670C4E39399D0234A3494DDCA) .

<표 3-1> 삼목-신도 간 운항시간⁴⁾

삼목 출발 -신도, 장봉행	신도 출발 -삼목행
07 : 00	07 : 30
08 : 10	08 : 20
09 : 00	09 : 30
10 : 10	10 : 20
11 : 00	11 : 30
12 : 10	12 : 20
13 : 00	13 : 30
14 : 10	14 : 20
15 : 00	15 : 30
16 : 10	16 : 20
17 : 00	17 : 30
18 : 10	18 : 20
20 : 10	19 : 30



<그림 3-3> 신도선착장 조형물



<그림 3-4> 삼목선착장



<그림 3-5> 세종 1호

4) 세종해운 홈페이지(<http://www.sejonghaeun.com/schedule>).

(4) 육상교통

○ 신시모도 공영버스

- 신도에는 신도2리를 경유해 신시모도를 운행하는 공영버스가 있음
- 신시모도 공영버스는 선착장을 기점으로 하여 하루 12차례 운행하며, 선착장-신도1리-시도리-모도리-시도리-신도3리-신도4리-선착장을 순환함

○ 북도면 공영버스

- 삼목항 선착장부터 동인천역까지는 북도면 공영버스가 운행 중임
- 북도면 공영버스는 하루 4회 순환하며, 소요시간은 2시간임
- 학기 중에는 영종공항 신도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경유해 돌아오는 노선을 한시적으로 운영함

<표 3-2> 신시모도 공영버스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표⁵⁾

회차	선착장	신도1리	시도리	모도리	시도리	신도3리	신도4리	선착장
1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2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4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6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7	13:30	13:35	13:40	13:45	13:50	13:55	14:00	14:05
9	15:30	15:35	15:40	15:45	15:50	15:55	16:00	16:05
11	17:30	17:35	17:40	17:45	17:50	17:55	18:00	18:05
회차	선착장	신도4리	신도3리	시도리	모도리	시도리	신도1리	선착장
3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8	14:30	14:35	14:40	14:45	14:50	14:55	15:00	15:05
10	16:30	16:35	16:40	16:45	16:50	16:55	17:00	17:05
12	18:30	18:35	18:40	18:45	18:50	18:55	19:00	19:05

5) 웅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tour/information/island_traffic.jsp)(2023년 12월 기준).

<표 3-3> 삼목-동인천 순환 북도면 공영버스 운행시간표⁶⁾

회차	삼목발			동인천발		
	삼목 출발	웅진군청 출발	동인천 도착	동인천 출발	웅진군청 출발	삼목 도착
1	07 : 50	08 : 35	08 : 50	09 : 00	09 : 15	09 : 50
2	10 : 50	11 : 25	11 : 40	11 : 50	12 : 05	12 : 40
3	13 : 50	14 : 25	14 : 40	14 : 50	15 : 05	15 : 40
4	15 : 50	16 : 25	16 : 40	16 : 50	17 : 05	17 : 40



<그림 3-6> 신도 내 공영버스

6) 웅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tour/information/traffic.jsp)(2023년 12월 기준).

○ 도로 및 교량

- 신도, 시도, 모도는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함
- 신도와 시도를 잇는 연도교는 1992년에 완공되었으나 바닷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설계된 탓에 갯벌을 파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기존 교량 철거 후 2005년 새 교량을 준공하였음
-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는 1984년에 건설되었으나 높이가 낮아 만조 시 통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도교의 높이와 폭을 확장해 2002년 7월 새로 개통하였음. 이후 내구성 저하 등 안전문제를 이유로 2019년 기존 교량을 철거하였으며 재시공하여 2023년 12월 개통될 예정임

[동아일보, 2003. 2. 3]

웅진 신도-시도 새 교량 설치

바닷물의 흐름을 차단해 갯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인천 웅진군 북도면 신도와 시도를 잇는 연륙교가 철거된다.

인천 웅진군은 3일 “신도와 시도 사이 100만평 규모의 갯벌을 살리기 위해 기존 연륙교를 철거한 뒤 환경친화적인 새 교량을 빠르면 내년 6월경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웅진군은 또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파괴된 갯벌의 복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1992년 완공된 기존 연륙교는 길이 579m로 바닷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섬 주변 갯벌에 1.5~2m 높이로 뿔이 차 오르면서 바지락 민어 우럭 등 어패류가 자취를 감추었다.

웅진군 관계자는 “바닷물이 통할 수 있는 총연장 640m의 교량을 만드는 공사를 6월경 시작해 1년 뒤 개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3월부터 갯벌의 생태계 복원과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새 교량 주변에 ‘갯벌관찰센터’를 설치해 갯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3-1> 신도-시도 연도교 철거 관련 신문 기사

[중부일보, 2023. 11. 15]

인천 옹진군, 북도면 공영버스 신차 투입 운영

인천 옹진군은 15일부터 북도면에서 운영 중인 삼목~옹진군청~동인천 왕복 구간에 신규 구입한 공영버스를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차가 투입되는 삼목~옹진군청~동인천 구간을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섬지역의 북도면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들의 민원소통 창구인 옹진군청을 경유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북도면의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된다.

신규 투입되는 공영버스는 북도면에서 올해 9월에 승차정원 42인의 대형버스를 구입해 카드단말기 설치 등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운영하는 것이며, 기존에 사용되던 공영버스는 북도면 신·시·모도를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예비버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삼목~옹진군청~동인천 구간의 공영버스 운행시간은 오전 7시 50분 삼목선착장을 출발해 3시간 간격으로 왕복운행하며, 1회 왕복 운행시간은 2시간이 소요된다.

북도면 관계자는 “그동안 운행하던 공영버스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나, 금번 신규 투입된 공영버스는 기존 운영되던 공영버스보다 큰 대형버스가 투입되며 버스를 이용하는 북도면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3-2> 북도면 공영버스 신차 교체 관련 신문기사

[웅진군 홈페이지, 2002. 7. 22]

시-모도 연도교 보강공사 준공 행사

웅진군은 오랜 주민숙원이던 시-모도 연도교가 준공됨에 따라 19일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군은 주민숙원사업으로 44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작년 5월 3일부터 북도면의 시도와 모도를 잇는 길이 431m, 폭 7.5m, 높이 10.5m의 연도교 보강공사를 착공해 순조로운 추진으로 금년 5월 17일 준공돼 신-시-모도를 하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현재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기존의 도로는 간조 시나 조금 때만 통행이 가능하고, 사리 때는 하루에 4시간을 제외하고는 고립되는 잠수도로로서 주민생활에 많은 고통을 초래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2000년 7월부터 현지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주민설명회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 및 관광객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시-모도 연도교 보강공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보강공사는 예산절감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p.c 암거를 육상에서 제작 조립 거치하는 공법을 도입하여 내구성과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해수 소통로를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한편 조건호 웅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군은 100개의 천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광웅진이란 슬로건을 걸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휴양사업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도면은 웅진의 4대 권역중 하나로 인천 국제공항의 배후단지로서의 기능과 수도권 최대 관광휴양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 3-3> 시도-모도 연도교 확장 개통 관련 웅진군 보도자료

[연합뉴스, 2023. 4. 16]

인천 시도~모도 연도교 공사 지연...상반기 임시개통

200억여원이 들어가는 인천 시도~모도 연도교 공사가 계획보다 반년 넘게 미뤄질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시도~모도를 잇는 새 연도교 공사 기간이 7개월가량 연장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업비 210억여원인 이 공사는 2019년 10월 착공해 당초 다음 달께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공사 과정에서 유속·기후 등 해상 여건이 바뀌면서 물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의 설계 변경이 지연되고 일부 작업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공사 지연에 따라 사업 관리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관련 용역 기간이 늘면서 총사업비도 2억5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옹진군은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섬 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 달께 안전성 점검을 거쳐 새 연도교를 임시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옛 교량도 같은 시점에 철거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 항행 보조시설인 항로 표지를 미리 설치해야 해 허가 주체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후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최종 준공 시기가 목표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새 연도교의 포장과 기타 부대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임시 개통을 할 수 있다”며 “교량 공사는 예기치 못한 환경 여건이 자주 발생해 준공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기존에 이들 섬을 잇던 임시 콘크리트 교량을 철거하고 새 연도교를 놓는 사업이다.

기존 교량은 임시 시설물로 내구성이 낮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바닷물 흐름을 막아 인근 갯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 3-4> 시도-모도 연도교 재시공 관련 신문기사

(5)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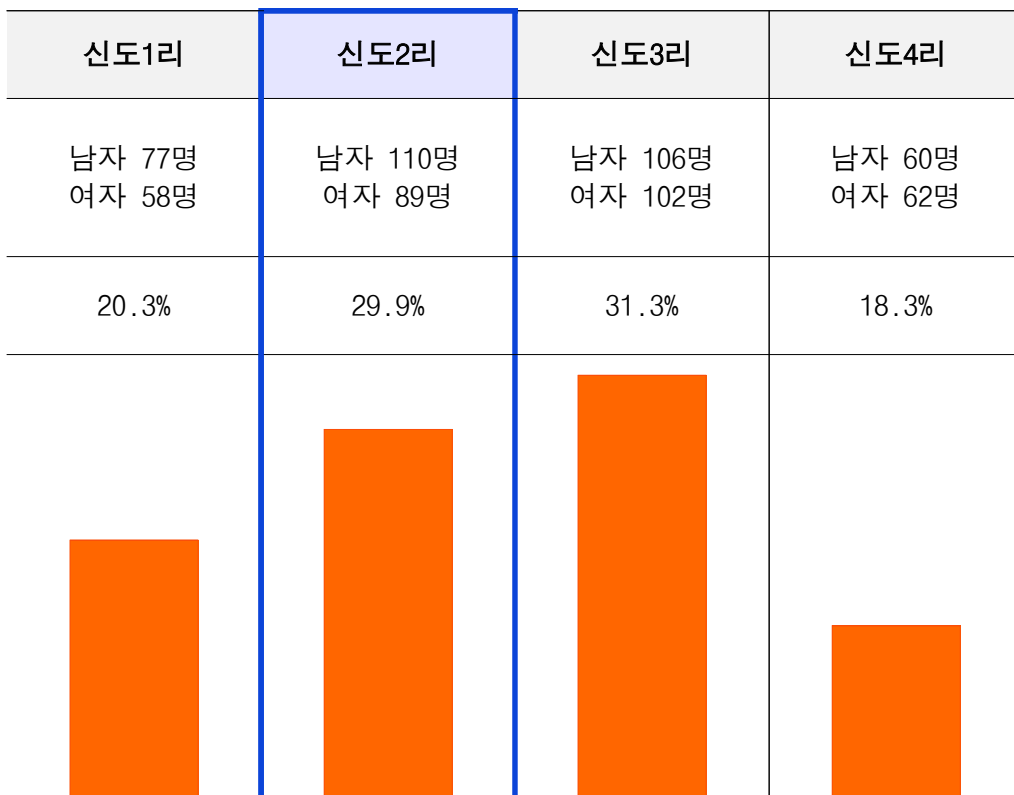
- 신도2리의 인구는 2023년 10월말 기준 199명임

<표 3-4> 신도2리 인구 구성 ('23년 10월 말 기준)

세대 수	인구수(명)		
	계	남	여
120	199	110	89

[출처] 옹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6&bcd=population)

- 신도 내 인구는 664명이며, 그 중 신도2리의 인구는 29.9%를 차지함. 신도2리 인구는 신도1~4리 중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중을 보임



<그림 3-7> 신도1리-신도4리 인구 분포도

1-2. 지형 및 지명

(1) 기존 연구 자료 분석

<표 3-5>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구분	지명	연구내용
1	신도 (信島)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839-840. · 강화도 남쪽 15km 지점의 해상에 위치한 이 섬은 주민들이 너무나 순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짓을 모르고 살아가는 순진한 곳으로 신의가 두텁다고 하여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던 당시에 믿을 신(信)자를 써서 섬 이름을 신도(信島)라 했다는 설이 있다. · 이 섬은 다른 이름으로는 진염도(眞鹽島)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곳에 조선 말엽인 1880년경부터 화염(火鹽)을 제조하는 염벚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이 섬의 염인들이 만든 소금은 품질이 양호한 진품이어서 큰 인기로 팔려갔다 하며 그래서 이 양질의 소금을 진염이라 하였으며, 신도산 소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신도의 이름은 진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진염도라고도 했다 한다. (김연근, 남, 66세, 북도면 신도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0. · 신도는 모두 4개리를 이룬다. 섬의 주민들이 착하고 순진할 뿐 아니라 다른 고장 사람들보다 신의(信義)가 월등히 두텁다고 하여 신도(信島)라 칭하게 되었다고 전해 오나 단정할 수는 없다. 고려 고종 시대에 삼별초가 이 섬을 근거지로 삼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섬사람들이 신의가 있다고 해서 신도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조선 후기에 지금의 신도3리인 벚말[鹽村] 앞 갯벌에는 염벚이 설치되어 있어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는데 다른 고장의 소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의 소금이 일등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진짜소금’이라는 뜻에서 ‘참 진(眞)자 소금 염(鹽)자’를 써서 일명 ‘진염(眞鹽)’이라 칭송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진염’이 신도의 별칭으로까지 불렸다고 한다.

<표 3-5>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2	고남리 (阜南里)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843.
		·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마을(현재 행정동명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음) 명칭으로 지형의 특성에 따라 마을 뒷산이 언덕으로 되어 있고 앞쪽이 남쪽으로 트여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위치를 하고 있어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특징인 언덕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언덕 고(阜)자와 남녘 남(南)자를 써서 ‘고남리(阜南里)’라 했다고 전해진다. (전양훈, 남, 75세, 북도면 신도리 거주)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3.
		· 신도2리로 구봉산 주봉 남쪽 기슭에 동서로 길게 남향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중구 관할인 삼목도(三木島)의 논머리 선착장과 마주보고 있다. 마을 앞 간척지에 잘 정돈된 논이 조성되어 있어 고남리라는 지명이 붙은 것으로 짐작된다. ‘고(阜)’자가 ‘언덕’ ‘물가’ 혹은 ‘독 밑의 습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3	절골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845.
		· 북도면 신도2리 고남리 중턱에 위치한 골짜기를 말하는 것으로 부락 주민들의 액운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지나가던 종이 이곳에 절을 짓고 불공을 드리던 곳이라 하여 이곳을 ‘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주실, 남, 86세, 북도면 신도리 거주)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4.
		· 구로지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이곳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표 3-5>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4	구봉산 (九峰山)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850.
		· 북도면 신도리에 위치한 산으로 산봉우리가 아홉 개라 하여 아홉 구(九)자와 산봉우리 봉(峰)자를 써서 ‘구봉산’이라 했다 한다. 그 중 제일 높은 봉우리는 해발 72m에 이르며 이 봉우리가 구봉산을 대표하고 있다.
5	머리없는 바위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5.
		· 처녀가 족두리를 쓴 형국이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바위 아래에 명당자리가 있어 풍수학적으로 구봉산 정기가 서려 있다고 한다.
6	작은 달구지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3.
		· 동쪽 신촌으로 내려가는 길 왼쪽 산 정상에 솟은 바위가 달 모양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바위가 작아 작은달구지라 한다고 한다. 원음은 ‘작은 달 고지’로 변음되어 ‘작은 달 구지’로 부른다.
7	큰달구지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3.
		· 작은달구지 못미처 간척사업지 첫머리 산 위의 큰 바위가 달 모양이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작은달구지 바위보다 크다.
8	게구지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3.
		· 고남리 마을 앞 선착장뿌리를 이른다. 지형이 바다의 게 형국이어서 붙은 지명이라고 하나 ‘게’어장이었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한편 갯가로 뻗은 곳이라는 의미의 ‘갯곶’이 변음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5>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9	통돌이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3.
		· 선착장 옆 바위로 둥글다 하여 ‘통돌’이라고 부른다.
10	안말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3.
		· 고남리 큰 마을 서쪽편 마을을 부르는 지명이다. 고남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다.
11	남진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4.
		· 평촌으로 넘어가는 산골짜기이다. 당골 지나서 남쪽으로 골이 졌다 하여 남진골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12	말바위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4.
		· 고남리와 신촌 사이의 큰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서 형태가 말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13	마석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4.
		· 한자로는 마사곡(馬死谷)으로 표기한다. 신도에는 조선시대 국영 말 목장이 조성되어 말에 관련한 지명이 많이 전한다. 옛날에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목장의 말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 하여 마사곡이라 불리다가 마석골로 변음되었다고 한다.
14	마사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4.
		· 장문개밭이라고도 부른다. 마사골은 목장의 말을 방목할 때 들고나는 말을 점검하던 곳으로 마장문(馬場門)이 있었고 아전(衙前)들이 주재하며 목장의 일을 보던 마사(馬舍)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마장이라고도 불린다.

<표 3-5>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15	젓독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4.
		· 선착장 앞 계구지를 돌아가 제방 안쪽 산비탈 좁은 평지를 이르는 지명이다. 옛날 이곳이 새우잡이 어장이어서 새우 젓을 담그는 새우젓독을 저장하던 곳이어서 붙은 지명이다. ‘젓터골’로도 불린다.
16	사람바위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5.
		· 선착장 서쪽 작은 장술에 서 있는 바위 모양이 사람과 비슷하다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고남리 마을에서 나는 연기가 사람바위 쪽으로 날리면 마을에 불상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7	당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5.
		· 구봉산 골짜기에 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지명으로 보인다.
18	숫고개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5.
		· 신도2리에서 신도3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숫을 굽던 곳으로 추정된다. ‘숫고개’의 와음으로 보인다.
19	금광굴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5.
		· 일제 때부터 금을 채광하던 곳이다.
20	기도바위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335.
		· 고남리에서 밧말로 넘어오는 숫재고개 쪽의 네모난 바위를 이른다. 1920년경 강하에서 구로지로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학당을 설립한 황도문이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기도하던 바위라 한다.

(2) 주요 지명

○ 고남리(阜南里)

- 신도2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임. 신도 선착장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으로, 선착장에서 고남리까지 도보로 10여분 가량이 소요됨. 신도 2리 다목적회관이 위치해 있음

○ 계구지

- 바다를 향해 뻗어 있으며, 동남쪽에 선착장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 “선착장뿌리”라고도 하며, 남쪽으로 뻗어 있는 곳은 “남뿌리”라고 부름
- 남뿌리 인근에 수변공원 진입로가 있으며, 이곳을 통해 수변공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 3-8> 신도2리의 주요 지명



<그림 3-9> 계구지

1-3. 자연 · 생태적 자원

(1) 특산물

○ 단호박

- 웅진군 「지역특화작목발굴사업(2009)」의 일환으로 단호박을 재배하였음
- 신도 내 “계절식당”에서 단호박 칼국수를 판매 중이며, 단호박 재배 농가로 구성된 북도면단호박연구회가 단호박 설기 · 먹핀 등의 가공교육을 진행 중임

○ 포도

- 신도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섬나라 웅진 포도”라는 브랜드로 출시됨

○ 아로니아

- 신도 내에 아로니아 재배 농가가 있으며, 신규 특산물로 주목받고 있음

(2) 자연 · 생태적 자원

○ 나문재

- 수변공원 일대에서는 나문재가 발견됨. 나문재 열매는 별 모양을 하고 있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칠면초

- 해안가에는 칠면초가 자생하고 있어 향후 특산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신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주로 신도바다역 내에 마련된 “북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그림 3-10> 북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중부일보, 2019. 7. 29]

인천 옹진군, 단호박 직거래 판매 실시

인천 옹진군에서는 30일 옹진군청 1층 로비에서 단호박 직거래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직거래 판매 행사는 북도면단호박연구회에 소속된 6개 농가의 농업인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식회와 함께 단호박 400박스(1박스당 2.5kg) 판매를 실시한다.

옹진 섬 단호박은 풍부한 일조량과 거친 해풍 속에서 재배돼 육질이 단단해 보관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고,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해 아이들의 영양간식이나 선물용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군은 2009년부터 지역 내 단호박 재배를 시작했으며, 올해도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량종자 구입 및 재배 덕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현재 단호박 재배농가가 총 68호, 면적은 8.5ha로 옹진군의 대표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옹진 섬 단호박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단호박 재배 지원뿐만 아니라 단호박 식혜, 단호박 빵, 단호박 막걸리 등 각종 가공식품을 개발 및 보급할 것이며, 단호박 축제 개최 등 지역 내 농산물의 관광자원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북도면 신도바다역에서는 단호박과 단호박 가공품 시식 및 판매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옹진군청 보도자료, 2012. 6. 12]

해풍에 자란 단호박 맛 좋고 건강에도 “짱”

지난 2009년부터 지역특화작목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단호박은 옹진 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 기술지도로 처음 3농가 0.3ha면적에서 시작하여 재배기술의 정착발전으로 현재 11농가 2.5ha에 재배되고 있는데, 이는 단호박이 지역소득작목으로 자리하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3-5> 신도 특산물 단호박 관련 언론 자료

[웅진군 보도자료, 2007. 8. 8]

푸른바다와 맑은햇살이 키운 「섬나라 웅진」 포도 첫 수확

웅진군은 농장주 전체 포도재배 면적 100ha에서 포도를 생산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지역여건이 포도 생산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품질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농산물의 FTA(세계자유무역협정)체결, 재배면적의 확대, 기술력 및 시설의 발달 등 지역간 품질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웅진군(군수 조윤길)에서는 지역특산품인 포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섬포도 품질 고급화를 위한 축성재배를 위하여 표준설계에 의한 1-2W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다.

봄철저온과 여름철 짙은 해무(바다안개)로 인하여 꽃떨이 현상과 곰팡이성병해로 인한 피해 등 포도재배의 품질향상에 애로가 많았으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기술보급으로 섬포도 품질향상은 물론 생산성 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자료 3-6> 신도 특산물 포도 관련 보도자료



<그림 3-11> 북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내부



<그림 3-12> 신도 해안의 철면초



<그림 3-13> 수변공원 일대에서 채취한 나문재 열매

1-4. 물리적 자원

(1) 신도2리 다목적회관

- (준공일) 2015년 5월 14일에 준공됨
- (규 모) 연면적 302.94㎡ 및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됨
- (용 도) 문화활동 및 각종 회의공간으로 활용됨. 1층은 거실과 취사시설을 갖춘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용됨



<그림 3-14> 신도2리 다목적회관

(2) 신도바다역[여객터미널]

- (준공일) 2017년 12월 15일에 준공됨
- (용 도) 20년 이상 된 기존의 대합실을 대체할 목적으로 신축되었으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대기 장소로 활용됨. 신도 바다역 내에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 중임



<그림 3-15> 신도바다역[여객터미널]

(3) 신도선착장

- (특 징) 삼목선착장과 항로로 연결된 신도 내 선착장으로 주차장, 화장실, 신도바다역 등이 배치되어 있음. 신도선착장의 주차장은 다른 섬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넓은 규모로 조성됨
- (위 치) 신도선착장에서 신도바다역 뒤편 방파제길을 따라 서쪽으로 약 100m를 이동하면 신도수변공원에 진입 가능함



<그림 3-16> 신도선착장 전경

(4)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 (위 치)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896번길 18-31에 위치함
- (설립배경) 영종공립보통학교(永宗公立普通學校) 부설 신도간이학교(信島簡易學校)로 출발하였으며, 신도국민학교를 거쳐 신도분교로 변화함. “1935년도판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에 의하면, 당시 신민철(申玟澈)이 훈도(訓導)로 재직하고 있었음. 신도간이학교 설립 이전에는 신도 내에 강습원 및 사립신흥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음



<그림 3-17> 1980년대 신도국민학교 위치7)

7)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동아일보, 1923. 9. 29]

신도소년창립

인천항 외 20해리에 격리한 부천군 북도면 신도에 잇는 사립 신흥학교(信興學校)에서는 동교 선생 황도문 씨의 지휘 아래 소년회를 조직하여 회원이 이미 70여 명에 달하며 차도(此島)는 일간신문이라도 순간잡지로 볼 만큼 교통이 불편한 절해고도인 바

... (하략) ...

<자료 3-7> 신도 신흥학교 관련 신문기사

[동아일보, 1935. 4. 16]

보교위치문제로 도(道)에 진정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은 네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에 아직 보통학교가 없어 각각 네 섬에 강습원이 있어 학령아동을 교육시켜 오든 바 금년중에는 학교를 두기로 하여 면민들이 2천4백원을 부담하면 곧 설치하기로 되어 잇는 차제에 가장 교통이 치우친 장봉도에서는 면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이 금액을 건우어 군당국에 학교를 자기섬에 설치하여 달라고 하여 다른 신도(信島), 시도, 모도의 세 섬 유지는 일전에 면민 대회 형식으로 토의하고 교통의 편리한 세 섬의 중심지에 학교를 설치하여 달라고 그 대표로 한기동 씨가 15일 경기도 학무당국에 진정하였다고 한다.

<자료 3-8> 신도간이학교 관련 신문기사

1-5. 역사·문화적 자원

(1) 고지도

○ 해동지도(海東地圖)⁸⁾

- 18세기 중반 제작된 고지도로서 신도, 시도, 모도로 추정되는 곳에 “북도(北島)” 표기가 되어 있음



<그림 3-18> 「해동지도」의 신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⁹⁾

-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로서 시도, 모도, 장봉도는 나타나지 않으며 신도만 표기되어 있음



<그림 3-19> 「조선팔도지도」의 신도

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R33469_00&vol_no=0001&page_no=&imgFileNm=GM33469IL0001_074.jpg&tbl_contents_seq=&mokNm=&add_page_no=).

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R33482_00&vol_no=0001&page_no=&imgFileNm=GR33482_00IL0001_001n.jpg&tbl_contents_seq=&mokNm=&add_page_no=).

○ 좌해지도(左海地圖)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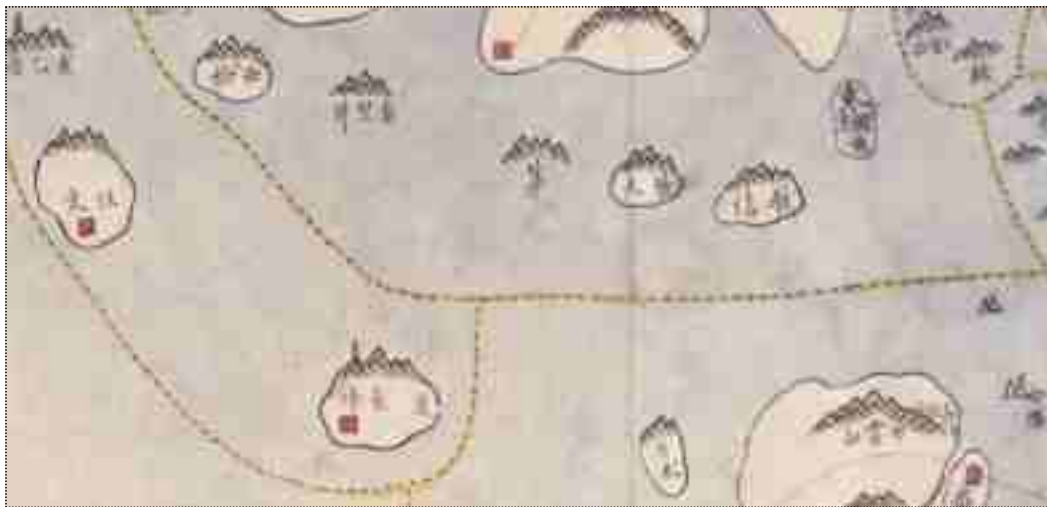
- 18세기 후반 제작된 고지도로, 장봉도만 표기되어 있으며 신도, 시도, 모도 표기는 생략되어 있음. 장봉도에는 봉화가 표시되어 있음



<그림 3-20> 「좌해지도」의 신도

○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¹¹⁾

- 19세기 중반에 제작되었으며 대동여지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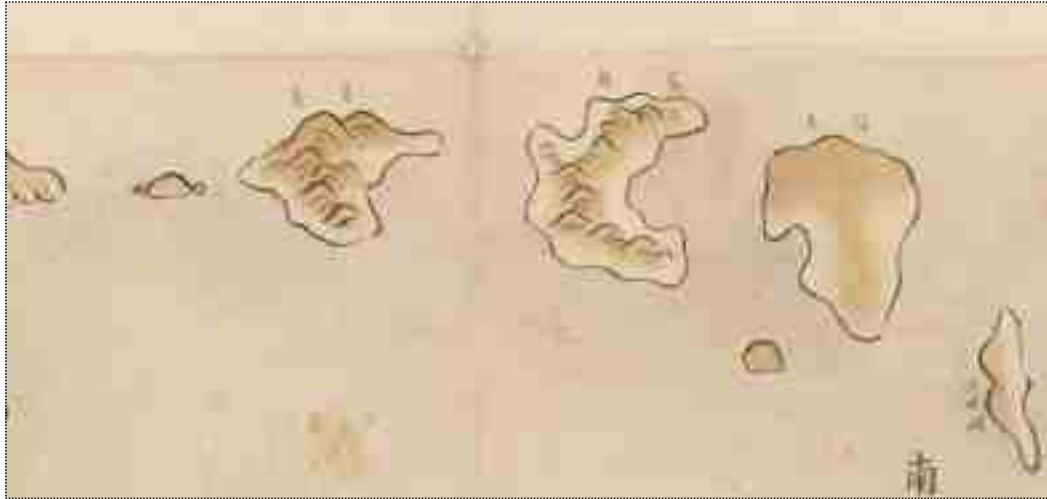
<그림 3-21> 「대동방여전도」의 신도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2229_00&vol_no=0001&page_no=&imgFileNm=GK12229_00IH0001_001a.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1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0341_00&vol_no=0013&page_no=&imgFileNm=GK10341_00IL0013_006n.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 강화부전도(江華府全圖)¹²⁾

- 1872년 제작되었으며 신도 앞 신오도로 추정되는 섬이 함께 표기됨



<그림 3-22> 「강화부전도」의 신도

○ 동국여도(東國輿圖)¹³⁾

- 간행년도 미상인 자료로서 신도, 시도, 모도로 추정되는 섬을 그려 넣었으나 명칭은 표기하지 않음. 장봉도는 표기되어 있음



<그림 3-23> 「동국여도」의 신도

1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0350_00&vol_no=0001&page_no=&imgFileNm=KYKH001_0000_0009.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R33603_00&vol_no=0001&page_no=&imgFileNm=GR33603_00IL0001_007n.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2) 설화

「신도의 효자」

조선시대, 서해안에 있는 ‘신도(信島)’라는 조그만 섬마을에 병든 노모만을 모시고 사는 효성 지극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 둘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소년은 충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성이 유난히 곱고 착하며, 부모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어머니와의 생활이 마냥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날, 소년이 10세가 채 못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원인모를 병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이틀, 사흘이 지나고 한해, 두해가 지나도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니, 청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다. 살림이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허약한 노모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의 마음은 살을 애이고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좋다는 것은 이것 저것 다 해 보았고, 명약이라는 명약은 모조리 구해다 정성을 다해 드렸으나 어머니의 병환은 별 차도가 보이질 않았다.

… (중략) …

그러던 어느날, 이날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밤늦도록 어머니 병구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 잠이 들었다. 이때 꿈속에서 하얀 백로가 나타나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었다. 청년이 얼떨결에 그것을 집어 들어 펼쳐보니 노모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인육(人肉)을 먹어야만 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이었다. 청년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아직도 밝은 한밤중이었다. 청년은 너무 기이하여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며 자신이 꾸 꿈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다. 청년은 ‘이는 필시 하늘의 도우심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해 비수(匕首)로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도려 내었다. 그 순간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 오더니 천둥 번개가 온 천지를 뒤흔들면서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비는 청년의 집을 피해서 오는 것이었다. 청년은 이 일이 길조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해 수십번 절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청년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하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청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자료 3-9> 설화 「신도의 효자」 내용¹⁴⁾

14) 출처 : 경기도(1988), 「전설지」, pp. 494-496.

세월은 무심히 흐르기만 했다.

이날 아침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 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난장이 촌로가 지나가다가

“젊은이, 나는 지나가는 길손이온데 밤새도록 길을 걸었는지라 몹시 피곤해서 그러니 잠시 쉬어 가게 해 주시오. 그리고 무엇이랴도 좋으니 시장기나 좀 면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고 말했다. 먹을 것이라고는 톱툰히 품앗이로 받은 몇 홉 정도의 좁쌀과 어머니를 위해 따라 구해 놓은 한 바가지의 보리 정도였다.

“방이 하나뿐인데 병드신 노모께서 누워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잠시 드시지요. 제가 먹을 것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하면서 방으로 안내하였다.

촌로는 일찌기 이처럼 마음씀이 착하고 게다가 효성 또한 지극한 사람을 본적이 없는지라 크게 감탄하며 청년에게 한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 주겠노라 했다. 청년은 아랫목에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계신 노모를 바라보며 오직 자신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하루 빨리 쾌차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순간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방안을 가득 메우더니 촌로는 오간데 없고 그 자리에 황홀하리만치 어여쁜 아가씨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청년이 영문을 몰라 그냥 멍한 상태로 있자, 아가씨가 조심스레 말하기를

“저는 본디 옥황상제 세째딸이온데 몇해전부터 도련님의 효성에 감탄하여 안타까운 맘으로 지켜보고 있었읍니다. 진작부터 돕고 싶었으나 하늘의 법도가 워낙 엄한지라 …, 달포전 인육을 먹으면 병이 낳을꺼라는 하늘의 명의(名醫)의 말을 듣고는 단지 도련님을 도와야겠다는 소녀의 짧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도련님의 몸만 상하게 했사옵니다. 저는 하늘의 법을 어긴 벌로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도련님의 효성에 크게 감동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도련님의 어머니를 낳게 할 수 있는 처방을 제게 주셨읍니다. 도련님! 전 한평생 정성으로 도련님의 어머님과 도련님을 모시기로 결심했사옵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청년은 그동안 그렇게도 간절히 고대했던 어머니 병을 고치고 동시에 예쁜 각시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그후 청년은 어머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사람이 평소 마음씀이 곱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며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로 그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옛부터 이 북도면에서는 효자 효부가 많기로 유명하고, 심성 또한 곱고 인정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다.

<자료 3-9> 설화 「신도의 효자」 내용 (계속)

(3) 민요

- 신도2리에는 모내기, 상사(논맴), 방아(논매기), 노랫가락(계단식종지), 난봉가, 방아타령, 담방구 등의 민요가 전해짐
- 「옹진섬 민요집 - 근대도서편(북도·덕적·자월·영흥면)」(옹진문화원, 2019)에 수록된 신도2리 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일부 발췌)

<표 3-6> 신도2리 관련 민요¹⁵⁾

구분	내용
모내기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김봉운 (1971년 생, 남, 토민) 창 (외침) “열심히 해봅시다, 심읍시다-” 하나간데 둘두간다 둘간데 셋두가구 빨리빨리(들)하라 빨리빨리 어 -, 잘들 한다, 워아, “우리 양석자리가 또 있구, 빨리 합시다-”
방아 (논매기)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전원실 (1900년 생, 남, 토민) (받) 에이여라 방아로다 (메) 여보 농부들 말 들어라 이 논배미 길눈을 매구 (메) 저 논배미루 너머를 가자 (받) 에이여라 방아로다 (메) 저논 매구 나머지를 가자
상사 (논맴)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메) 김봉운 (1971년 생, 남, 토민) (받) 라만석 (1932년 생, 남, 토민) (받) 에이여-라 상사데야 (메) 이 논배미루 넘어가면 장구배미로 넘어간다

15) 옹진문화원(2019), 「옹진섬 민요집 - 근대도서편(북도·덕적·자월·영흥면)」.

<표 3-6> 신도2리 관련 민요 (계속)

구분	내용
상사 (논맴)	(받) 에이여라 상사데여 (메) 일락서산 해 떨어진다 (받) (메) 이 배미루 넘어섯 (받) (메) 장구배미루 넘어가자 (받) (메) 장구배미의 김을 다 매구 어야 어야 상사데야 아주만네는 밥통을 미구 경외 경외 상사구나 어성어서 매여보자 에여데여나 상사데야 밥품이 왔으니 나가보세 (메) 에이여라 상사데야 (받)
노랫가락 (계단식종지)	응진군 북도면 신도2리 김봉운 (1917년 생, 남, 토민) 라만석 (1932년 생, 남, 토민) 나비야 청산가자 으아아 호랑나비야 너두 가자 가다가 날 저무을며느은 꽃속에서 자고 가자 꽃세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라도우 자구가지 사랑도 거짓말이요 날 위함두 또 거짓짓마알 꿈속에 와준다더니 그거 역시도 못믿겠구나 날-같이 잠못이루면 꿈에엔들 볼수있나 충신은 만조종이요

<표 3-6> 신도2리 관련 민요 (계속)

구분	내용
노랫가락 (계단식종지)	효자열녀는 가가재라 화형제낙처자허으니 부모유신하오리다 우리도 성주님 모시고 태평성대르을 누리리라 (라) 공자님 심으신 낭기 안현 증자가 물을 주어, 자사루, 벌은 가지에, 맹자꽃이 피었구나, 아마도 그 꽃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화라
(1) 난봉가 (2) 방아타령 (3) 담방구	웅진군 북도면 신도2리 라만석 (1932년 생, 남, 토민) 김봉운 (1917년 생, 남, 토민) (1) 능라도, 수양버들 목에다가 걸구, 놀다가 갑시다, 자다가나 가자, 하루 밤만, 자구가두 만리장성을 산다네, (2) 노자 지영구나, 오조동방 너른 물에, 오고 가는, 상고선은, 춘풍에, 돛을 달구 북을 두리둥실 올리면서, 어기여차 닷 감는 소래, (원포), (귀범이), 예헤라 이 아니란 말가, 에-, 헤-, 예헤이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3) 구야 구야, 담바구야 신주문명 담바구야, 은을 주랴 금을 주랴 (-----) 은도 금도 나는 싫어 천수만하, 소리 밤에 임이나 종종 만나게 하소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2-1. 추진단계 및 결과

(1) '24년 섬 특성화사업 공모 신청 결과

<표 3-7> 신도 고남마을 공모 신청 결과

사업명	신청단계	신청결과
신도 고남마을	1(신규)	'24년 행정안전부 공모심사결과 미선정

(2) 마을 자체 평가

- 섬 특성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사업 계획을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한 것이 미선정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

2-2. 주요 추진 내용

(1) 사업명

- 신도2리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

(2) 사업내용

- 국민여가캠핑장, 주차장, 그늘집, 샤워장 등 조성
- 주민공동사업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설물 및 환경관리 수행
- 매점, 휴게소, 탈의장 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비하여 운영
- 관광객 환승시설인 오토바이, 사륜바이크 등의 대여사업 운영

(3) 사업 추진 조건

- 사업부지 확보
 - 주요 사업 대상 부지인 수변공원은 지적상 공유수면 상태임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이용 허가를 신청한 후, 사업 수행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4) 기대효과

- 기존 시설물 활용 및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 거점화
- 신도2리(고남마을) 중심의 마을기업 설립으로 지속적 소득창출 사업 추진
- 관광객 환승시설인 오토바이, 사륜바이크 등의 대여사업 운영
- 마을창고 등 유휴 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 주민 문화발전 기반으로 활용
- 주민들과 문화인이 모여 창작하는 문화거점 공간 역할 기대

2-3. 기존 사업 분석

(1) 핵심 사업의 이미지화 미비

- 기존 사업은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활성화”를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음
- “활성화”란 단어는 사업 목표를 모호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
- 사업목표는 명확한 구조로 이미지화되어 인식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2) 주요 사업의 연계성 부족

-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캠핑장 운영, 페스티벌 개최, 체험 활동, 이동수단 임대사업 등
- 위 사업이 “신도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족함
- 네 가지 사업 모두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신도 수변공원”의 특수성이 각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표현될 필요가 있음

3. 종합분석

3-1. SWOT 분석 결과

<표 3-8> 신도 고남마을 SWOT 분석 결과

○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 우수 · 삼목선착장부터 여객선으로 10분 소요 · 오전부터 저녁까지 매시간 1회 운항 ○ 자연경관 우수 · 해안제방길, 구봉산임도길, 갈대 및 염생식물이 많은 수변공원 보유 ○ 쌀, 단호박 등 농산물 풍부 ○ 신시모도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	○ 노령화로 새로운 사업시도 어려움 ·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인 연령층 ○ 인프라 및 홍보 부족 · 카페와 펜션이 있으나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리플렛 및 안내판 부족 ○ 좁은 도로 · 차량 유입량에 비해 좁은 도로 · 갓길 및 인도 부족으로 인한 혼잡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 ○ 수산물(어패류 등) 부족
[내부적 요인] 강점(Strength)	[내부적 요인] 약점(Weakness)
[외부적 요인] 기회(Opportunity)	[외부적 요인] 위협(Treat)
○ 공동공간 확보 용이 · 남북평화도로 개통 예정(2025년) · 기존 선착장 기능 대폭 축소 또는 폐쇄 예상 ○ 여가 인구 증가 · 캠핑, 차박 등 활성화로 수도권 여가 인구 증가 ○ 섬해양관광 관심 증대 ○ 웅진군, 인천관광공사 등 섬 특성화사업에 대한 의지 증가	○ 급속한 개방 · 연륙교 건설로 인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교통혼잡 및 난개발 우려 ○ 외래종 유입 · 황소개구리, 갯끈풀 등 외래 동식물 증가로 인한 생태계 혼란 야기 ○ 주민 소통의 어려움 · 원주민-이주민 간, 신규 세대 간 의견 차이 존재

3-2. 신도 고남마을 핵심성공요소

<표 3-9> 신도 고남마을 핵심성공요소

구분	내용
자원성	· 수변공원, 구봉산 임도길, 논두렁길 등 우수한 자연경관자원 보유
지역성	· 인천공항 인접, 신·시·모도 3개 섬 연결로 공동발전 가능성 보유
화제성	· 저녁노을 풍경, 해안 제방길 바람맞이 등 대내외 인지도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 다수 보유
체험성	· 모빌리티를 활용한 “섬마을 해안길 라이딩” 등 체험 프로그램 보유
접근성	· 우수한 접근성(삼목선착장부터 여객선으로 10분 소요) 보유 · 연륙교 건설 공사를 통한 접근성 향상
지속성	· 고령층과 청년층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

3-3. 신도 고남마을 전략방향

<표 3-10> 신도 고남마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S-O 전략	S-T 전략
○ 고남마을만의 특화 콘텐츠 발굴 · 특산물인 칠면초와 지붕색상(마젠타)을 결합하여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마을 이미지” 부각 ○ 특성화 거점 마련 · 선착장 부지 활용 거점 공간 확보	○ 고남마을 특화상품 개발 · 쌀, 단호박 등 활용 제품 개발 ○ 친환경 마을 이미지 확보 ·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수용하고 마을이 지닌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해양마을 이미지” 부각
W-O 전략	W-T 전략
○ 친환경 섬 관광 인프라 구축 · 안내판 설치, 리플렛 제작 등 추진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 염생식물 관리, 해안제방길 정화 등에 활용	○ 화제성 있는 이벤트 발굴 · “자연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 개최 ○ 마을역량강화 ·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추진

4. 마을발전구상

- 고남마을의 지역 현황 및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마을 활성화전략을 수립하고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평가」 시점인 2030년을 목표로 “인천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마을”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표 3-11> 신도 고남마을 발전구상

비전	자연과 함께 빛나는 고남마을		
방향	갯벌과 마을이 자주빛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낙조가 아름답고 해안길과 숲길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마을	탄소중립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선도하는 마을
전략	○ 칠면초와 자주빛 지붕의 마을 분위기 확대 ○ 칠면초 등 자주빛 먹거리 발굴 ○ 신도바다역 자주빛 감성 분위기 조성	○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산책하기 좋은 명소 발굴 ○ 해안제방길 연결성 확보 및 정비 ○ 해안제방에서 구봉산 숲길까지 안내판 정비 및 안내지 제작·비치	○ 칠면초 등 염색식물 블루카본 확대 조성 ○ 공항공사, 시설공단 등과 함께 하나뿐인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행사 진행 ○ 선착장 부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거점공간 조성

4-1. 발전비전

- 자연경관, 보유자원, 마을환경 등 고남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함께 빛나는 고남마을”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함
- 고남마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지도 및 이미지 강화를 통해 고남마을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4-2. 발전방향

- 갯벌과 마을이 자주빛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 낙조가 아름답고 해안길과 숲길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마을
- 탄소중립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선도하는 마을

4-3. 발전전략

(1) 갯벌과 마을이 자주빛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 칠면초와 자주빛 지붕의 마을 분위기 확대
- 칠면초 등 자주빛 먹거리 발굴
- 신도바다역 자주빛 감성 분위기 조성

(2) 낙조가 아름답고 해안길과 숲길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마을

- 사진찍기 좋은 장소, 산책하기 좋은 명소 발굴
- 해안제방길 연결성 확보와 정비
- 해안제방에서 구봉산 숲길까지 안내판 정비와 안내지 제작·비치

(3) 탄소중립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선도하는 마을

- 칠면초 등 염생식물 블루카본 확대조성
- 공항공사, 시설공단 등과 함께 하나뿐인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행사 진행
- 선착장 부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거점공간 조성(재생에너지, 에너지제로하우스 등)

5. 단계별 사업 제안

<표 3-12> 신도 고남마을 단계별 사업 제안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28년)	장기(2029~2030년)
사업명	보전과 발전, 균형의 섬마을 만들기	자연과 함께 빛는 마을 만들기	하나뿐인 지구, 탄소중립 섬도 마을 만들기
실행전략	염생식물과 숲의 탄소중립마을 이미지 구축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을로 개발	섬과 도시가 함께하는 특성화거점 공간(에너지제로·주민참여) 조성
공간범위	해안(수변공원, 제방길)	해안제방, 구봉산	선착장
도입내용	화제성 콘텐츠	체험	거점 공간
중심 키워드	해양경관, 마을경관, 사진	체험, 참여	지속가능, 탄소중립, 함께
하드웨어 사업	· 해안 제방길 및 임도 연결성 정비 · 염생식물 식재	· 선착장 특화사업 · 블루카본 조성	· 하나뿐인 탄소중립 바다역 조성 (특성화거점공간) · 캠핑장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 먹거리 개발 · 낙조와 갯벌, 숲 사진 공모전	· 신도문화예술장터 운영 · 낙조, 갯벌, 해안, 숲길 포토존 조성	· 육지와 갯벌이 어우러지는 마을축제 운영
홍보마케팅 사업	· 안내판 제작 설치 · 리플렛 제작 비치 · 홍보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 체계 구축 · 홍보마케팅 전문성 강화	· 홍보마케팅 지속
역량강화 사업	· 마을아카데미 운영 · 주민역량교육 (기초)	· 주민역량교육 (전문/실무) · 마을조례제정	· 주민역량교육 (실무/재교육)

5-1. (단기) 보전과 발전, 균형의 섬마을 만들기

(1) 해안 제방길 및 임도 연결성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내용

- 신도는 붉은 칠면초, 갈대, 갯벌이 풍부한 해안제방길과 산책 및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구봉산 임도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 안전성과 편리성을 기초로 하여 해안제방길 및 임도의 단절 구간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
- 해안제방길, 신도바다역, 수변공원, 구봉산 임도로 연결되는 구간을 1차 정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해안제방길 및 구봉산 임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데크 설치를 지양하고, 잡초 제거 등의 수준에서 정비를 진행하며 신도2리만이 아닌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포토존 발굴, 낙조 및 갯벌 홍보, 숲 사진공모전 개최, 안내판 및 리플렛 제작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염생식물 식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수변공원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현시대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며, 탄소중립이 시대적 사명으로 제기되고 있음
- 탄소중립은 흡수원 확대가 핵심이며, 갯벌에서 자생하는 염생식물이 블루카본으로서 중요한 흡수원 역할을 함
- 고남마을의 수변공원에는 칠면초와 나문재 등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음. 칠면초의 색깔이 고남마을의 지붕색깔과 동일하므로 염생식물 식재는 블루카본 확대뿐만 아니라 고남마을의 감성적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함
- 2023년, 인천시설공단 영종사업단이 옛 염전부지에 염생식물 식재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도 염생식물을 식재한 바 있음
- ESG 경영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설공단 등과 협업하여 염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먹거리개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증가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먹거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신도의 특산물인 쌀, 단호박 등을 비롯해 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활용하여 단호박 식혜, 단호박 라떼, 떡케익 등 특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선착장(신도바다역)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신도2리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발굴하여 먹거리에 장소성을 부여하고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를 초빙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고도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칠면초, 해안제방길, 수변공원, 구봉산 등 관광자원의 소개 및 마을지도가 첨부된 리플렛을 제작함
- 제작된 리플렛은 신도바다역, 카페, 음식점 등에 비치하고 삼목선착장과 신도선착장을 왕복하는 여객선 내에도 비치함
- 수변공원, 해안제방길, 임도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길안내 뿐만 아니라 마을의 유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자단 등을 활용하여 신도2리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홍보함

(5) 마을아카데미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공동목표를 공유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남녀노소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마을의 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자원, 특성화사업의 내용, 마을의 비전과 목표 등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5-2. (중기) 자연과 함께 빛는 마을 만들기

(1) 블루카본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해안제방 옆 갯벌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칠면초와 나문재 등 염생식물의 종자를 채취하고, 염생식물의 식재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
- 인천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함
- 염생식물을 활용해 신도에 특화된 먹거리 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함

(2) 신도문화예술장터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신도바다역과 주차장 등 신도선착장 일원
- 대 상 : 마을주민 및 젊은 문화예술인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추진내용

- 섬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을 주민 및 외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장터를 진행함
- 신도선착장은 인근 부지가 넓고, 신도대교 건설 이후 기능 축소가 예상되므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시킬 필요가 있음
- 섬마을 문화예술장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은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하고,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본인들의 문화예술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문화예술장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주말에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초기에는 인천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할 필요가 있음

(3)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마을개요, 관광자원소개, 교통체계, 숙박정보 등 기본정보를 제공함
-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옹진군 관광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마을의 숙박시설 등과 서비스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함
-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마을의 정기적인 행사나 축제, 이벤트,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관광객의 피드백 공간으로도 활용함
- 블로그기자단 모집 운영, 마을관광 유튜브 제작, UCC공모전 개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병행하여 진행함

(4) 주민역량교육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이론과 실습프로그램을 발굴함
- 신도의 자연경관, 역사문화 자원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
- 교육 내용은 바리스타, 위생관리, 매장운영, 먹거리개발,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함
- 실무역량교육, 컴퓨터와 SNS활용 교육 등을 병행함

5-3. (장기) 하나뿐인 지구, 탄소중립 선도 마을 만들기

(1) 하나뿐인 탄소중립 바다역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9~2030년
- 장 소 : 신도바다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추진내용

- 신도대교 건설 이후 신도선착장은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신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인 신도선착장과 인근 부지를 신도2리의 미래 지향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음
- 신도바다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섬마을 탄소중립 거점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 상부 등에 태양광발전 및 소규모풍력발전,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 절약 건물로 자리매김 시킬 필요가 있음
- 신도바다역의 1층은 방문객 센터 및 특산품판매장으로 조성하고, 2층은 카페로 조성하여 “낙조, 해안과 갯벌을 조망하는 쉼터”, 칠면초 음료, 단호박 음료, 떡케익 등의 먹거리 판매 공간 등으로 운영함

(2) 육지와 갯벌이 어우러지는 마을축제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9~2030년
- 장 소 : 신도바다역 및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추진내용

- 신도문화예술장터를 확대 개편하여 대대적인 축제형식으로 진행함
- 낙조와 갯벌, 붉은색(마젠타색) 칠면초와 지붕 등 마을의 특징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을 발굴함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표 3-13> 신도 고남마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¹⁶⁾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단기 (2025~2026년)	· 해안 제방길 및 임도 연결성 정비	200
	· 염생식물 식재	100
	· 먹거리개발	50
	· 홍보마케팅	50
	· 마을아카데미 운영	50
	소 계	450
중기 (2027~2028년)	· 블루카본 조성	100
	· 신도문화예술장터 운영	300
	·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 체계 구축	100
	· 주민역량교육	50
	소 계	550
장기 (2029~2030년)	· 하나뿐인 탄소중립 바다역 조성	1,500
	· 육지와 갯벌이 어우러지는 마을축제 운영	300
	소 계	1,800
총 계		2,800

16) 공모 선정 후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및 소요예산 변경 가능.

Ⅳ. 사슴개마을(자월3리) 컨설팅

IV 사슴개마을(자월3리) 컨설팅

1. 마을 현황 분석

1-1. 기본 현황

(1) 마을의 위치

- 웅진군 자월면 자월3리
 - 자월면의 법정리는 자월리, 승봉리, 이작리가 있으며, 각각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에 해당함
 - 사슴개마을의 법정리는 자월리이며, 행정리는 자월3리에 해당함. 법정리인 자월리는 자월1리, 자월2리, 자월3리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음

(2) 주요시설

- 공공시설
 - 자월3리 다목적회관, 자월공립요양원 등을 보유하고 있음(자월면사무소는 자월1리에 위치해 있음)
- 기타시설
 - 자월3리 내 마을은 사실상 별난금해변 앞 마을이 유일하며, 해안 인접 구역 등 외곽에 펜션 등이 분포되어 있음



<그림 4-1> 자월3리 위치

(3) 운항정보

○ 운항항로

- 자월3리는 여객선 항로를 통해서 접근 가능함. 자월3리와 연결된 여객선 항로는 인천항-이작도 항로와 대부도-덕적도 항로가 있으며, 인천항-이작도 항로의 해상거리는 약 130km임
- 인천항-이작도 항로의 기항지는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이며, 대부도-덕적도 항로의 기항지는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덕적도, 소야도임

○ 운항선박

- 인천항-이작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고려고속훼리(주)의 코리아스타호, 코리아피스호와 (유)대부해운의 대부고속페리호가 있음. 코리아스타호와 코리아피스호는 쾌속선이며, 대부고속페리호는 차량 이용을 겸할 수 있는 차도선임
- 대부도-덕적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유)대부해운의 대부고속페리 3호가 있으며, 차량 이용을 겸할 수 있는 차도선임
- 자월도까지 소요시간은 인천항 출항 쾌속선의 경우 약 50분, 차도선의 경우 약 1시간 20분이며, 대부도 출항 차도선의 경우 약 55분임

○ 운항시간

- 여객선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출항함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출항시간은 쾌속선의 경우 08시 30분이며, 1일 1회 왕복하고, 차도선은 07시 50분, 13시 10분에 출항하며 1일 2회 왕복함
-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출항시간은 08시 30분이며, 1일 1회 왕복함¹⁷⁾

○ 운항요금

- 인천항-자월도간 운항요금은 쾌속선의 경우 대인기준, 일반여객이 왕복 40,100원(출항 20,800원, 입항 19,300원)이며, 차도선의 경우 왕복 25,200원(출항 13,200원, 입항 12,000원)임.
- 대부도-자월도간 운항요금은 편도 9,500원임. 인천시민은 일반여객요금의 80% 할인율이 적용됨

17) 기상, 조석, 선박 사정 등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표 4-1> 인천항-자월도 간 운항시간¹⁸⁾

선박명	인천항 출발 -자월도행	자월도 출발 -인천항행
대부고속페리	07 : 50	10 : 40
	13 : 10	16 : 00
코리아스타	08 : 30	15 : 20
코리아피스	08 : 30	15 : 20

<표 4-2> 대부도-자월도 간 운항시간¹⁹⁾

선박명	인천항 출발 -자월도행	자월도 출발 -인천항행
대부고속페리 3호	08 : 30	15 : 45



<그림 4-2> 자월도선착장

18) 대부해운 홈페이지(<http://www.daebuhw.com/?act=info.page&pcode=sub03>) ;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http://www.kefship.com/schedule/content5.php>) .

19) 대부해운 홈페이지(<http://www.daebuhw.com/?act=info.page&pcode=sub03>) .

(4) 운행정보

○ 운행버스

- 자월3리를 경유하는 운행버스는 “자월 농어촌 공영버스”가 있음
- “자월 농어촌 공영버스”는 1일 9회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등하교 시간 및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 오전은 1시간, 오후는 30분임
- “자월 농어촌 공영버스”의 운행 종료시간은 16시 20분이며, 자월도선착장에서 운행이 종료됨

자월농어촌공영버스 운행시간표									
운행 정류장	1	2	3	4	5	6	7	8	9
3리 정류장	08:00	09:00	09:30	10:00	14:00	14:30	15:00	15:30	16:00
본말 / 중도 정류장	2리 발향	08:02	09:02	09:32	10:02	14:02	14:32	15:02	15:32
	3리 발향				14:05	14:35	15:05	15:35	16:05
2리 정류장	08:10	09:10	10:40		14:10	14:40	15:10	15:40	16:10
선착장		09:20	09:50		14:20	14:50	15:20	15:50	16:20

본 시간표는 여객선 운항시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림 4-3> 자월도 공영버스 운행시간표²⁰⁾



<그림 4-4> 자월도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20) 자월도 공영버스 정류장 안내문.

(5)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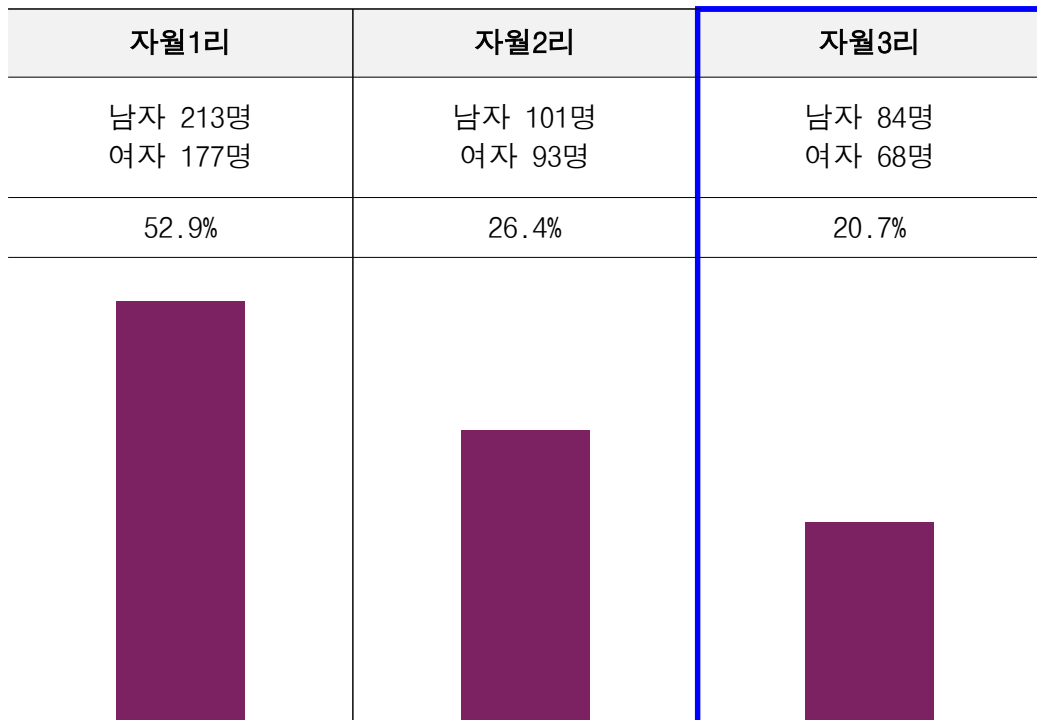
- 자월3리의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152명임

<표 4-3> 자월3리 인구 구성('23년 12월 기준)

세대 수	인구 수(명)		
	계	남	여
98	152	84	68

[출처] 옹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6&bcd=population)

- 자월도 내 인구 수는 736명이며, 그 중 자월3리의 인구는 20.7%를 차지함.
자월1리~자월3리 중 가장 낮은 인구 비율을 보임



<그림 4-5> 자월1리-자월3리 인구 분포도

1-2. 지형 및 지명

(1) 기존 연구 자료 분석

<표 4-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구분	지명	연구내용
1	자월도 (紫月島)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20.
		· 자월도의 지명유래로는 옛날 관가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이곳에 귀양을 오게 되어 이곳에 와서 자기의 억울함과 신세를 한탄하며 첫날밤 하늘을 쳐다보니 마침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떠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달이 붉어지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쳐 그는 하늘도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자월을 보게 된 곳이라 하여 ‘자월도(紫月島)’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0.
		· 자월면의 중심 섬이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서남쪽으로 5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남양부에 소속되었는데 소물도(召勿島), 조홀도(祖忽島), 소홀도(召忽島) 등으로 불렸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소홀도(召忽島)로 표기되다가 갑오경장 이후 자월도(紫月島)로 개칭되었다. 한자 풀이는 ‘자줏빛 달’이라는 뜻이다. · 옛날 남양부 소속 관원이 조세 징수 차 이 섬에 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했으나 거센 바람이 여러 날 동안 불어 돌아가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남양부 쪽을 바라보니 자줏빛 달만이 희미하게 보여 ‘자줏빛 자(紫)’자와 ‘달 월(月)’자를 써서 ‘자월’이란 명칭이 붙었다는 일화가 지명의 유래로 전해지고 있다. · 소홀도(召忽島)는 <용비어천가>에 ‘쥬콜섬’이라 기록하고 있다. 소(召)의 의미는 읍(邑)이고 홀(忽)은 성(城)의 뜻이므로 ‘작은 성이 있는 섬’ 또는 ‘작은 섬’ 정도의 뜻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작달만한 섬>자달 섬’을 한자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2	사심재 · 사슴개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25.
		· 자월면 자월리의 큰말 서북쪽에 있으며 ‘사슴개’ 또는 ‘사심재’라 불리고 있으나 그 유래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33.
		· 자월면 자월리에 있는 이 마을은 옛날 인적이 없을 당시에는 많은 사슴들이 떼를 지어 살면서 장관을 이루었다 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곳을 ‘사슴-골’이라 부르다가 ‘사슴개’로 변음되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강성엽, 남, 72세, 자월면 자월리 거주)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4.
		· 사슴개 : 자월3리이다. 녹포(鹿浦)라고도 부르는데 자월도 서쪽 끝 지역으로 마을 앞 남쪽으로 뻗어나간 바위줄기가 마치 사슴 뿔 같다 하여 붙은 지명이다.
3	국사봉 (國思峰)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31.
		· 자월면 자월리의 중앙에 있는 이 산은 자월도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예로부터 이곳에 귀양오는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올라가 멀리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던 곳이라 하여 국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산이라 하여 ‘국사봉’이라 했다고 한다.
4	봉화재 (烽火-재)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931-932.
		· 자월면 자월리의 국사봉 동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58.7m에 이르며 옛날 위급한 사실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 수단으로 쓰이던 봉화를 올린 곳이라 하여 ‘봉화-재’라 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 산 위에는 당시 봉화를 올리던 곳에 둥글게 돌을 쌓아 놓은 곳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봉우리를 돌탑이 있다고 하여 ‘탑봉’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강석영, 남, 55세, 자월면 자월리 거주)

<표 4-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5	통돌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4.
		· 둥근 바위가 따로 떨어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6	두멍뿌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4.
		· 다싯물 방파제 쪽 산 뿌리에 두멍이 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7	갑진뿌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4.
		· 달맞이재에서 남쪽 해안으로 내려온 산 뿌리로서 경사가 급하다 하여 갑진뿌리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갑진뿌리가 되었다.
8	목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사슴개 마을 앞으로 뻗은 뿌리 끝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 뿌리에서 목이 잘려나가 섬이 되었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9	툽뿌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바위 줄기가 마치 툽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10	변남금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사금이 났다고 해서 부르는 지명이나 정확한 어원은 불명하다.
11	아랫넙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마을 해안 아래쪽에 있는 섬의 이름이다.
12	큰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섬 서편 골짜기로 깊고 크다 해서 부르는 지명이다.
13	큰골뿌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큰골 위쪽에 있는 산줄기로 자월도에서 가장 서쪽 끝이다.

<표 4-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14	진모래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긴 모래사장이라는 뜻이다. ‘진’은 ‘긴’의 사투리이다.
15	내림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4.
		· 사슴개 서쪽 끝 해안에 산에서 길게 내려오는 내림 길을 이르는 지명이다.
16	주걱뿌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4.
		· 사슴개 마을 서북쪽 끝 부리로서 주걱 같은 모양이어서 붙은 지명이다.
17	조개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5.
		· 주걱 뿌리 동쪽 바닷가로 이곳에서만 조개가 낚다고 해서 부르는 지명이다.
18	마바위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6.
		· 물이 빠지면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의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	먹통도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6.
		· 목수가 먹줄을 칠 때 쓰는 먹통과 같이 생겼다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20	어둡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6.
		· 골이 깊고 나무가 무성하여 낮에도 어둡고 후미지다 하여 붙은 지명으로 ‘어둡골’로도 부른다.
21	이두굴 우물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6.
		· 삼신우물이다.
22	마장터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76.
		· 옛날 말 목장이 있을 때 들고 나는 말을 검사하던 곳이다.

(2) 주요 지명

○ 사슴개

- 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한 두손해양수산장 배양장 앞 고개 일대를 사슴개라고 부르며, 이 고개를 넘어 메리골과 마바위골로 이동할 수 있음
- 마을 한가운데에 자월3리 다목적회관과 삼리교회가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동심원 형태로 분포되어 있음

○ 별난금해변

- 자월3리 마을 앞에 위치함. 자월3리는 삼면이 해안과 접해 있으며, 그 중 진모래해변과 별난금해변이 해수욕장으로 이용중임

○ 묵통도

- 마을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함

○ 목섬

- 마을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목섬이 있음. 북쪽 목섬의 일부는 공동묘지로 사용중이고 일부는 사유지임
- 남쪽의 목섬은 별난금해변과 연결돼 있으며, 갯티길이 형성되어 있음

○ 메리골 및 마바위골

- 메리골 및 마바위골 일대는 경사지이며, 일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4-6> 자월3리 주요 지명



<그림 4-7> 별난금 해변



<그림 4-8> 목섬

1-3. 자연 · 생태적 자원

(1) 특산물

○ 둥굴레

- 자월3리의 특산물은 둥굴레, 수수, 고사리, 엄나무 등이 있음

○ 산나물

- 자월3리에는 산나물이 풍부하며, 최근 마을 내 농경지가 점차 산나물 재배지로 변화되는 추세임

○ 바지락

- 수산물은 바지락이 주종을 이루며, 자월3리 바지락 양식장이 운영중임.
마을 주민들 중 어선을 이용한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없음



<그림 4-9> 마을 내 수수밭



<그림 4-10> 둥굴레 제품

1-4. 물리적 자원

(1) 열녀바위와 어부상

○ (위 치) 자월항 인근에 위치함

○ (시 설) 열녀바위 안내판

- 옛날 한 어부가 이 포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 어부는 3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 그의 부인은 괴상하게 여기고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에 이르러 보니 큰 지네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파먹고 있었다. 이를 본 그 부인은 대경실색하며 그 자리에 쓰러진다. 한참 후 깨어난 그는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니 기가 막혔다. 그 부인은 슬픔에 잠겨 통곡하다가 생각하니 누구 말고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하며 자기도 그 바위에 올라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섬에서 열녀가 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성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림 4-11> 열녀바위

(2) 천문공원 전망카페

- (조 성) 천문공원과 연계하여 조성되었으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



<그림 4-12> 천문공원 카페

(3) 천문공원 및 천문대

- (조 성) 천문공원은 자월리 1521-1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임. 현재 기반공사 진행되지 않았으며, 천문대와 함께 조성될 예정임



<그림 4-13> 천문공원 및 천문대 부지

[경기일보, 2022. 5. 27]

인천 옹진군,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 지지부진

인천 옹진군이 자월도에 추진하던 천문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군이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자월면 1521의1 3만2천911㎡ 부지에 천문대와 전망공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짓는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다. 군은 자월면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과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랜드마크를 만들고 주민참여형 소득사업을 꾸릴 계획이다. 그러나 군은 사업부지 확보에만 2년여가 걸리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군은 사업부지 내 국방부 소유 3천300㎡를 매입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단순히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 ‘군부대 시설 용지’ 용도 폐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해 부지를 매각하려면 소유자는 부지의 용도를 폐지한 뒤 기획재정부에 부지를 넘겨야 한다. 결국 군은 국방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적발, 다시 행정절차 등을 밟느라 7개월의 시간만 낭비했다.

군은 뒤늦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 2020년 6월 인천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자체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 절차를 의뢰했지만,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보냈다. 군은 지난해 5월에서야 해당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군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사업비 마련을 위한 국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겨우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의 천문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당초 계획한 올해 말보다 2년여가 늦어진 2024년으로 미뤄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에서 부지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국비 확보 등에 애쓰겠다”고 했다.

<자료 4-1> 자월도 천문공원 및 천문대 관련 신문기사

1-5. 역사·문화적자원

(1) 설화

「명지관의 예언」

서해안에 많은 섬들 중에 자월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산소자리를 잘 봐주는 명지관(名地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자월리에 강씨 문중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꽤 잘사는 집안으로 주인 부부가 마음씨가 착하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 집안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항상 칼싸움이나 전쟁놀이를 하며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 아이가 전쟁놀이를 할 때면 항상 동네 꼬마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어느날 전쟁 놀이중 적군의 힘이 우세하여 아군의 아이들이 풀이 죽어 있자 이 아이는 앞장을 서서 외치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하며 앞서 나갔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가 훌륭한 장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눈에 총기가 더해가고 키는 육척 장신이 되어 주위에서 그의 용맹성을 따를 자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군인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그는 마침내 무관이 되어 지금의 강화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아들이 외지(강화도)에 있는 동안 강씨 집안에 제일 어른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상주인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려 하였으나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어 배가 뜨지 못하는 것이었다. 집안에서는 상주가 없자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었으나, 결국 작은 아버지가 상주를 하여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관을 만들고 상복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산소자리를 보기 위해 여기 저기 소문난 지관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스름이 땅거미가 질 무렵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이 이집 대문을 두드렸다. 하인들이 나가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들여보내지 않자 대문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조금 후에 주인 마님이 나와 보니 다 떨어진 도포에 낡은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걸모양은 허름해도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자료 4-2> 설화 「명지관의 예언」 내용²¹⁾

21) 경기도(1988), 「전설지」, pp. 515-516.

주인 마님이 노인에게 묻기를 “게 뉘십니까?”하니 노인은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이 집에서 지관을 찾는다 하여 찾아 왔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집안 하인들은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미답지 못해하며 푸대접을 하였으나 마음씨 좋은 주인 마님은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못쓴다 하여 지관을 잘 대접하게 하였다.

사실 노인은 이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지관으로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던 중 이 마을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 마을에 덕망 있는 강씨 문중에 초상이 났다는데 지관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와 어떻게 대접하는가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집 하인들이 푸대접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산소자리를 봐주지 않으려다가 주인 마님의 대접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산소자리를 봐 주기로 마음 먹었다.

이 지관이 장례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아들이 와야 할 것 같았다. 다음날 해뜨기 전 산으로 올라가 산세를 둘러보고 좋은 묘자리를 찾던 중 산 중턱 짙은 평평하고 잔디가 깔린 것이 명당 중에 명당 자리였다.

노인은 주인 마님에게 이 자리가 좋은 자리로써 관을 묻는 하관식 때 피리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장례식날 곡성이 나아 울지 피리소리가 난다며 핀잔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지관은 언제 떠났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소 자리를 봐주며 엉뚱한 말을 한 것이 부끄러워 떠난 것이라고 수근대었다.

다음날 장례 행렬이 그 집을 나와 산소 자리로 와서 관을 묻는 하관식 때 어디선가 요란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어제 지관이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선착장에 커다란 배가 정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배가 저렇게 크냐 하며 물려들어 자세히 보니 그 배는 무인들이 탄 배로서 배 위에 위엄 있는 모습의 장군이 서 있었는데 이가 바로 강씨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 아들은 싸움터에서 적군을 크게 무찔러 임금님께 큰 상을 받고 집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허름한 차림의 지관을 생각하며 역시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자료 4-2> 설화 「명지관의 예언」 내용(계속)

「벼락 바위」

서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 중에 자월도라는 곳이 있다. 이 섬에는 벼락바위가 있는데 그곳에는 어느 아름다운 열녀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먼 옛날 젊은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섬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들은 이 섬에서 고기도 잡고 아이도 낳으면서 자손대대로 번창하며 행복하게 살려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좋은 집터를 찾아서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 하였다. 며칠간 고심한 끝에 마을 끝쪽으로 푸른 바다가 탁 트인 곳에 만족하게 집을 지으려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 부부의 꿈에 큰 구렁이가 연기를 뿜으며 나타나서는 이곳에 집을 지을 시에는 자손에게 해를 입게 되니 어서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하도 이곳 전망이 좋고 필시 그 꿈은 개꿈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그곳에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

그후에 젊은 부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오손도손 살았다. 세월이 흘러 부친이 돌아가신 뒤 아들이 장성하여 집안 살림을 맡아 고기잡이를 하면서 흠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 마을에 심한 태풍이 몰아쳤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지라 언제나 날씨는 예기치 못하게 시시각각 변했다. 그날도 바람이 몹시 불고 바닷물이 거세게 출렁이며 지붕이 들썩거리고 집밖에 있는 물건들이 종잡을 수 없이 날아다니는 등 태풍이 몹시 심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날, 이 젊은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배가 있는 해변으로 갔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실신해 있는 여인을 업고 자기집으로 데리고 와서 열심히 간호를 해 주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난 여인은 점차 차도가 생기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여인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딱한 사정을 젊은 어부와 흠어머니께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자료 4-3> 설화 「벼락 바위」 내용²²⁾

22) 경기도(1988), 「전설지」, pp. 516-518.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아버님께서 병에 걸려 거동도 못하고 누워계시며 어머니는 품팔이를 해가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으나 워낙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모가 저희 집에 오더니 영흥도에 있는 어느 부자집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얼마후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후하게 쳐서 준தாக에 비록 저는 팔려가는 몸이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배를 타고 영흥도로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어져 바다에 표류하던 중 자월도 해변에 닿은 것이었다.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진배없으며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집에서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한 두 남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는 좋아지게 되었다. 더구나, 홀어머니도 여인의 행동거지나 살림하는 솜씨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돼서 젊은 어부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였고 이 여인도 젊은이가 착하고 성실한 것을 알고 청혼에 승낙하였다.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이들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기잡이를 나간 어부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도 겁이 나긴 했지만 고기를 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그러나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이 밤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아침부터 그 부인은 벼락바위 건너편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바위를 부사암(婦死岩 : 며느리가 죽은 바위)이라 일컫고 있다.

그리고 부인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날 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벼락이 쳐 현재 벼락바위에 떨어졌는데 그곳에 가보니 바다에 나갔던 남편이 구렁이에게 물린 채 죽어 있었고 커다란 구렁이가 바위에 깔려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후로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 한다.

<자료 4-3> 설화 「벼락 바위」 내용(계속)

(2) 민속

「자월도 당굿」

자월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당굿’이라 하여 섬의 큰 연중행사로 성대하게 치루었다. 도당굿은 연일 7일간 거행했는데 소를 잡았으며 섬 주민 모두가 참여하였다. 제일 먼저 큰 당산에서 3일간 굿을 하며, 두 번째로 작은 당에서 하루 굿을 한 다음, 세 번째로 용왕굿을 마을 앞 해변에서 하루 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을 굿을 마을 안에서 하루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당제를 주재한 사람인 도당제주의 집에서 하루 굿으로 끝을 냈다고 한다. 현재 도당굿은 중단되었다.

<자료 4-4> 민속 「자월도 당굿」 내용²³⁾

「더리소 풍속」

자월면 지역의 농가에서 소가 없는 가정에서는 다른 집의 소를 키워주고 그 소가 송아지를 두 번 나면 두 번째 송아지는 자신이 갖고, 소와 첫 번째 송아지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더리소’ 풍속이 있었다. 더리소 풍속은 사람과 소 사이의 품앗이인 셈이다. 이러한 풍속은 비교적 여러 도서 지역에서 보인다. 덕적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풍속이 남아 있는데 덕적도의 쟁기는 왜쟁기 또는 양쟁기라고 불리는 일본의 개량형 쟁기이다. 과거 덕적도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쟁기로 감자밭의 골을 내는데 쓰였다.

쟁기가 있어도 훈련된 소가 없으면 갈이를 할 수 없다. 송아지가 10개월이 되면 송아지에 멍에를 메고 돌아나 어린아이를 끄게에 앉히고 끌게 하였다.

<자료 4-5> 민속 「더리소 풍속」 내용²⁴⁾

23) 인천광역시(2020), 「인천의 민속」, p. 400.

24) 인천광역시(2020), 「인천의 민속」, p. 401.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2-1. 추진단계 및 결과

(1) '24년 섬 특성화사업 공모 신청 결과

<표 4-5> 자월도 사슴개마을 공모 신청 결과

사업명	신청 단계	신청 결과
자월도 파란마을	1 (신규)	'24년 행정안전부 공모심사결과 미선정

(2) 마을 자체 평가

-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됨
- 수수 등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가능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됨

2-2. 주요 추진 내용

(1) 사업명

- “S/W 주민 역량강화 및 H/W 경관 조성 사업”

(2) 사업 내용

- 주민 역량강화(S/W)
- 관광 인프라(H/W, S/W)
- 주민 소득창출 방안(H/W, S/W)
- 주민 공동체 활성화(S/W)

(3) 사업 추진 조건

- 사업부지 확보
 - 여행자 쉼터 조성을 위해서 부지 확보가 필요함
 - 1단계 사업에서는 주민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사업” 연계
 - “자월 천문영농조합” 마을 법인을 준비함
 -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4) 기대 효과

- 주민 주도의 소득증대 창출
- 마을 내 여행자 쉼터 조성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 체계적인 교육설계를 통한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역량 배양

2-3. 기존 사업 분석

(1) 사업 슬로건의 명확한 설정 필요

- 1단계 사업은 S/W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S/W 사업은 H/W사업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사전 단계로 섬 특성화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단계별 사업 설정임
- H/W사업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사업”이 전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는 마을 내에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는 것임
- 1단계 사업이긴 하나, 1단계 사업을 기초로 향후 단계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충분히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업 목표에 맞는 슬로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바다-별빛-섬을 키워드로 하는 슬로건을 제시하면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제시될 것으로 사료됨

(2) 기존 사업과 섬 특성화 사업의 연계성 부족

-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어 온 사업이고, 여행자 쉼터는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1단계 사업으

로 설정한 “S/W 주민 역량강화 및 H/W 경관 조성 사업”은 이 두 사업을 목표로 추진되는 주민역량기반 조성 사업임

- 천문공원과 여행자 쉼터는 각각 관광 인프라와 주민 소득창출 방안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두 사업간의 관계나 두 사업을 연계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더구나 외부 사업인 “천문공원 조성 사업”에 의존하여 사업이 설정될 경우, 외부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좌우될 우려가 있음
-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을 하나의 사업 배경으로 설정은 하되, 주된 사업은 “여행자 쉼터” 조성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의 전체 구상을 고려할 때, 여행자 쉼터는 단순히 주민 소득창출 방안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별빛”이란 키워드에 맞춰 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이에 맞춰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것은 “마을 상품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개발”, “마을브랜드 개발” 등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
- 요컨대, H/W사업에 맞는 슬로건 개발과 H/W에 맞춘 S/W의 개발이 일관성을 갖고 계획될 필요가 있음

3. 종합분석

3-1. SWOT 분석

<표 4-6> 자월도 사슴개마을 SWOT 분석 결과

○ 관광객 지속 증가 ○ 자연경관 우수 (갯티길 및 임도) ○ 주변의 섬 및 해양 조망점 우수 ○ 수수, 엄나무 등 농산물 풍부 ○ 천문공원 연계 가능	○ 마을 주민 노령화 ○ 인프라 부족 (식당, 카페 등 부재) ○ 마을 소득원 다각화 필요 ○ 풍부한 마을콘텐츠에 비해 활용 미흡 ○ 지역 내 자원연계성 부족
[내부적 요인] 강점(Strength)	[내부적 요인] 약점(Weakness)
[외부적 요인] 기회(Opportunity)	[외부적 요인] 위협(Treat)
○ 천문공원 조성 및 운영 예정 ○ 드론특별구역 추진 ○ 섬해양관광 관심 및 욕구 증가 ○ 관계기관의 섬 특성화사업 의지 풍부 ○ 펜션 등 숙박시설 입지	○ 고령화로 노동력 저하 ○ 수산물 등 어족자원 감소 ○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 경쟁적인 섬개발 우려 ○ 물지각한 관광객 유입 증가

3-2. 자월도 사슴개마을 핵심성공요소

<표 4-7> 자월도 사슴개마을 핵심성공요소

구분	내용
자원성	· 임도, 갯티길 등 우수한 경관자원 다수 보유
지역성	· 면사무소, 보건소, 소방서, 학교 등 자월면 공공기관 인접
화제성	· 천문공원, 드론특별구역 등 건설 예정
체험성	· 갯티길 걷기, 임도 걷기 등 체험 자원 풍부
접근성	·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선착장에서 버스로 약 10분 소요되는 등 접근성 우수
지속성	· 고령화 문제해결 및 노인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마을 공감대 형성

3-3. 자월도 사슴개마을 전략방향

<표 4-8> 자월도 사슴개마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S-O 전략	S-T 전략
○ 사슴개마을의 마을 브랜드 확립 · 마을 가치와 잠재력 극대화, 차별화 브랜드 확립 필요 ○ 사슴개마을의 특화콘텐츠 발굴 · 자연, 갯티, 경관, 농촌 등 자원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쉼과 치유 마을 이미지 확보 · 자연생태 자원, 농산물 등으로 쉼과 치유의 마을 이미지 부각 ○ 화제성 있는 이벤트 발굴 · 천문공원 등 마을자원 활용, 문화이벤트와 브랜드화 필요
W-O 전략	W-T 전략
○ 관광객 친화적 환경조성 · 휴식과 치유 등 편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체류형 콘텐츠 확충 · 마을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 발굴	○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전략 수립, 마을 자원 적극 홍보 ○ 마을주민역량강화 · 마을공동체협력강화와 환경변화 대응 방안 마련

4. 마을발전구상

- 21세기 관광의 핵심 개념은 감성, 스마트, 건강, 일상, 휴가, 네트워크, 사진, 공유, 테마 등임
- 자월도 사슴개마을은 갯티길, 임도, 농산물 등 우수한 자원들 및 섬, 치유, 건강 스토리텔링 등을 결합하여 발전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
- 사슴개마을이 하늘, 바다, 마을이 결합된 치유의 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수립함

<표 4-9> 자월도 사슴개마을 발전구상

비전	몸과 마음을 쉬며 채우는 사슴개마을		
방향	하늘과 바다로 쉬고 채우는 마을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마을	볼거리와 먹거리로 함께 치유되는 마을
전략	○ 하늘과 바다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 발굴 ○ 마을 스토리디자인 계획 수립 ○ 천문공원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도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 ○ 어울림의 마을 이미지 조성 ○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특산물 활용한 마을 특화 먹거리 개발 ○ 산나물 재배와 채취 등 참여프로그램 발굴 ○ 갯티 및 해양 체험상품 개발

4-1. 발전비전

- 사슴개마을이 보유한 자연경관, 자원의 특성 및 마을 환경 등을 반영하여 “몸과 마음을 쉬며 채우는 사슴개마을”을 비전으로 설정함
- 우수한 해안경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인지도와 이미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섬 지역과 차별을 강조하고 이를 특화하기 위한 방향임

4-2. 발전방향

- 하늘과 바다로 쉬고 채우는 마을
-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마을
- 볼거리와 먹거리로 함께 치유되는 마을

4-3. 발전전략

(1) 하늘과 바다로 쉬고 채우는 마을

- 하늘과 바다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 발굴
- 마을 스토리디자인 계획 수립
- 천문공원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2)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마을

- 도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
- 어울림의 마을 이미지 조성
-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볼거리와 먹거리로 함께 치유되는 마을

- 특산물 활용한 마을 특화 먹거리 개발
- 산나물 재배 및 채취 등 참여프로그램 발굴
- 갯티 및 해양 체험상품 개발

5. 단계별 사업 제안

<표 4-10> 자월도 사슴개마을 단계별 사업 제안

구분	단기(2025~2026년)	중기(2027~2028년)	장기(2029~2030년)
사업명	마을자원과 연계한 건강마을	다양한 콘텐츠의 치유마을	체류형 이색체험마을
실행전략	· 보전과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섬마을 만들기	·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자연 친화형 마을 개발	· 섬 및 도시를 연결하는 특성화 거점 공간 조성
공간범위	천문카페, 마을길	천문공원, 갯티, 숲길	여행객 쉼터
도입내용	화제성 콘텐츠	체험	거점 공간
중심 키워드	산나물, 천문	쉼, 치유, 갯티	쉼터
하드웨어 사업	· 수수, 엽나무 등 특산물 생산 증대	· 여행객 쉼터(먹거리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 ‘쉼과 채움’ 잇기 사업(천문, 숲길, 갯티)	· 바다체험공간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 천문마을 스토리텔링화 · 천문캠핑장 운영 · 천문카페 운영	· 특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천문마을 이색 이벤트 발굴	· 여행객 쉼터 특화 운영 ·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강화
홍보마케팅 사업	· 리플렛 제작 · 안내판 설치 · 특산물 홍보	· 홍보마케팅 강화 · SNS 활용 홍보 · 천문마을 홍보 강화	· 홍보마케팅 지속
역량강화 사업	· 마을아카데미운영 · 향토음식 개발 · 마을 경관 가꾸기	·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 제정	· 주민역량강화교육

5-1 (단기) 마을자원과 연계한 건강마을

(1) 수수, 옻나무 등 특산물 생산 증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내용

- 마을을 대표하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발굴하고 마을의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함
- 사슴개마을은 수수, 옻나무 등 특산품이 풍부하나 생산량은 판매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 판매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해 특산품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증산시킬 필요가 있음
- 마을 공동재배를 통해 옻나무 및 고사리 등 산나물 생산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재배 공간은 마을길 주변의 자투리 공간이 적합하며, 이러한 재배 방식을 통해 생산량 증대 및 마을경관개선을 꾀할 수 있음

(2) 천문마을 스토리텔링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2023년 현재 천문공원이 조성중이며, 이를 활용해 사슴개마을을 “천문마을”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음
- 천문이야기, 해양 및 바다이야기, 마을이야기 등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음

- 천문관측 등의 활동은 주로 야간에 행해지며, 이와 연계해 사슴개마을의 밤 이야기, 야간경관을 활용한 밤마실 프로그램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천문캠핑장 및 천문카페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마을아카데미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마을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신사업 추진의 의지가 부족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함. 따라서, 마을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공동목표를 공유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전체 마을 구성원이 참여하여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에 대한 이해, 특성화사업에 대한 이해, 마을 비전 및 목표를 공유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섬특성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 자월도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인문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아카데미를 통해 먹거리 개발, 마을경관 가꾸기 방안 등을 함께 교육함

(4) 리플렛 제작 및 안내판 설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내용

- 천문공원, 캠핑장, 카페 등 사슴개마을과 자월도의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 등이 포함된 리플렛 제작
- 리플렛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을지도가 수록될 필요가 있음
- 리플렛을 통해 사슴개마을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음
- 리플렛은 제작 후 자월도바다역, 여객선, 마을회관, 천문카페 등에 비치할 수 있음

5-2. (중기) 다양한 콘텐츠의 치유마을

(1) 여행객 쉼터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마을중심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추진내용

- 사슴개마을에는 관광객을 위한 쉼터,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이 존재하지 않음
-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특산물을 구매하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자월도 공영버스의 회차 지점에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관광객쉼터를 마련하여 마을여행정보 및 먹거리 제공, 특산물 판매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쉼과 채움’ 잇기 사업(천문, 숲길, 갯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마을전체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내용

- 자월도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갯티가 발달함. 선착장에서 시작해 국사봉, 천문공원으로 이어지는 숲길과 임도도 활용도가 높음
- 자월3리 사슴개마을뿐만 아니라 자월1리, 자월2리 등과 협력해 연결성을 확보하고 중간기점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연결성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크 설치 방식보다 자연미를 살린 간단한 정비 방식이 바람직함

(3) 특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관광객(특히, 인천지역 학생 및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특산물 재배 및 채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월도 고향마을기”란 개념 하에 수수심기, 수수부꾸미 만들기, 엮나무 순채취하기, 고사리 채취하기 등의 체험 활동이 가능함
- 일부 관광객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산나물 채취 및 농작물 훼손 등의 현상을 양성화시키고, 마을 특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4) 천문마을 이색이벤트 발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28년
- 장 소 : 마을전체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천문공원 조성 이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함
- 사슴개마을은 인천앞바다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며, 이러한 조건을 홍보하여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천문공원에서 별보기, 마을길 밤마실, 밤갯티 걷기 등 코스와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5)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 제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사슴개마을의 자연경관 및 마을 공동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지켜가야 할 사항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사슴개마을 조례는 마을공동체 유지, 아름다운 경관보전, 해양, 하늘, 마을 체험프로그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사슴개마을 관광객 현장은 마을주민들의 삶에 대한 존중, 마을자원과 자연 경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권고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사슴개마을 조례 및 관광객 현장은 버스정류장, 여행객 쉼터, 천문카페,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여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5-3. (장기) 체류형 이색체험마을

(1) 바다체험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9~2030년
- 장 소 : 사슴개마을 바다와 갯벌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내용

- 사슴개마을 인근 해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바다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다체험공간이 필요하며, 편의시설 및 세척 공간이 함께 필요함
- 바다체험프로그램으로는 바지락 캐기, 바지락 종패뿌리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2) 여행객 쉼터 특화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9~2030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여행객 쉼터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자월도의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행객 쉼터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바리스타, 먹거리 개발, 위생관리, 매장운영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행객 쉼터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역량교육, 컴퓨터 활용, SNS 활용 등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4-11> 자월도 사슴개마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²⁵⁾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단기 (2025~2026년)	· 수수, 옴나무 등 특산물 생산 증대	150
	· 천문마을 스토리텔링화	100
	· 마을아카데미 운영	50
	· 리플렛 제작 및 안내판 설치	200
	소 계	500
중기 (2027~2028년)	· 여행객 쉼터 조성	1500
	· ‘쉼과 채움’ 잇기 사업(천문, 숲길, 갯티)	200
	· 특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
	· 천문마을 이색이벤트 발굴	100
	·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 제정	50
	소 계	1,950
장기 (2029~2030년)	· 바다체험공간 조성	500
	· 여행객 쉼터 특화 운영	100
	소 계	600
총 계		3,050

25) 공모 선정 후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및 소요예산 변경 가능

V. 진두마을(내5리) 컨설팅

V

진두마을(내5리) 컨설팅

1. 마을 현황 분석

1-1. 기본 현황

(1) 마을의 위치

○ 웅진군 영흥면 내5리

- 영흥면의 법정리는 내리, 외리, 선재리가 있으며, 내리와 외리는 영흥도, 선재리는 선재도에 해당함
- 진두마을의 법정리는 내리이며, 행정리는 내5리에 해당함. 법정리인 내리는 내1리, 내2리, 내3리, 내4리, 내5리, 내6리, 내7리로 구분되어 있음

(2) 주요시설

○ 공공시설

- 내5리 마을회관, 내5리 다목적회관, 영흥도 버스터미널, 영흥파출소, 진두선착장,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진두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음(영흥면사무소는 내리에 위치해 있음)

○ 기타시설

- 내5리 내 마을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본 마을은 진두선착장 일대에 위치해 있고, 신마을은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마을로 본마을의 서쪽에 위치해 있음. 그밖에 본마을의 북쪽 일대에도 거주지가 분포되어 있음



<그림 5-1> 내5리 위치

(3) 운행정보

○ 운행버스

- 영흥도의 해상교통은 2001년 11월 15일 영흥대교가 개통된 후 12월 1일부로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육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내5리를 경유하는 운행버스는 좌석버스와 영흥공영버스가 있음. 좌석버스는 부성여객의 790, 790A, 790B가 있으며, 영흥공영버스는 모두 4개 노선이 운행중임
- 내5리를 경유하는 인천시티투어 노선은 “선재·영흥 투어” 노선이 있으며, 매주 1회 운행하고, 소요시간은 약 8시간임. 탑승장소는 인천종합관광안내소(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와 인천역 두 군데임

<표 5-1> 영흥도 버스 운행시간표²⁶⁾

회차	기점	종점	운행시간	배차간격
시내버스 790	장수공영차고지	영흥버스터미널	04:15-21:00	평일 40-65분 주말 60-85분
시내버스 790A	장수공영차고지	영흥버스터미널	07:15(기점)- 09:30(종점)	*평일 1회 운행
시내버스 790B	장수공영차고지	영흥버스터미널	13:15(기점)- 15:50(종점)	*평일 1회 운행
영흥공영버스 방개골	기점(영흥도)	영흥버스터미널	06:20-21:20	45-60분
영흥공영버스 선재리행	기점(영흥도)	선재대교	08:30-17:30	60-180분
영흥공영버스 십리포행	기점(영흥도)	영흥버스터미널	06:30-21:10	45-60분
영흥공영버스 영흥도	기점(영흥도)	영흥버스터미널	06:30-21:10	45-60분

26) 인천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https://bus.incheon.go.kr/bis/main.view>)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traffic/TR070501/2059204>).

<표 5-2> 인천시티투어 “선재 · 영흥 투어” 노선²⁷⁾

시간	일정
09:30-11:00	인천종합관광안내소 / 인천역
11:00-13:00	선재도(목섬)
13:00-14:30	진두선착장(자유중식)
14:30-16:00	십리포 해수욕장
16:00-17:30	인천종합관광안내소 / 인천역



<그림 5-2> 내5리를 경유하는 인천시티투어버스

27)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https://citytour.it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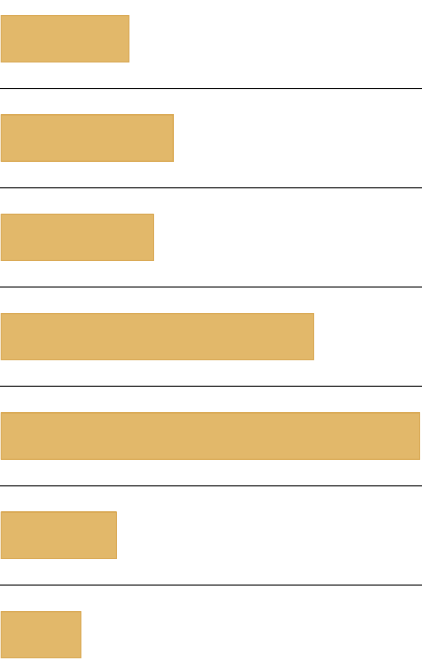
(4) 인구

○ 내5리의 인구는 2023년 10월말 현재 1,177명임

<표 5-3> 내5리 인구 구성('23년 10월 말 기준)²⁸⁾

세대 수	인구 수(명)		
	계	남	여
642	1,177	633	544

○ 영흥도 내 인구 수는 5,575명이며, 그 중 내리는 4,146명, 외리는 1,429명임. 내5리는 내리 전체 인구 구성에서 28.4%를 차지하며, 내1리-내7리 중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보임

	10.0%	남자 219명 여자 195명	내1리
	13.5%	남자 299명 여자 259명	내2리
	12.9%	남자 286명 여자 250명	내3리
	17.2%	남자 432명 여자 280명	내4리
	28.4%	남자 633명 여자 544명	내5리
	10.1%	남자 230명 여자 190명	내6리
	7.9%	남자 163명 여자 166명	내7리

<그림 5-3> 내1리-내7리 인구 분포도²⁹⁾

28) 웅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6&bcd=population).

29) 웅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6&bcd=population).

1-2. 지형 및 지명

(1) 기존 연구 자료 분석

<표 5-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구분	지명	연구내용
1	영흥도 (靈興島)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937-938.
		· 영흥도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고려말에 나라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가솔을 거느리고 고생 끝에 이 섬에 들어와 목숨을 보존했다는 왕족 익령군(翼靈君) 왕기(王琦)의 군호인 영(靈)자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다시 흥했다는 의미로 흥(興)자를 붙여 ‘영흥(靈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 외 전해오는 전설에 의한 지명유래로는 옛날 중국 상인이 우리 나라에 오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표류하던 배는 그만 두레의 암초에 부딪혀 배밀이 파손되어 침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였다. 마침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거북이가 한 마리가 배밀창으로 기어 들어가 파손된 구멍을 막아 주어 배가 파손되지 않고 간신히 육지로 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육지에 무사히 도착한 배는 배밀 구멍을 수선하여 목표지였던 인천의 제물포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섬에서 신령이 도와서 이 배가 무사히 물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고 여기어 이 섬을 ‘영흥도(靈興島)’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경환, 남, 86세, 영흥면 내리 거주)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490.
		· 영흥도는 고려시대부터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고려 말 나라가 망할 것을 예측한 왕족 익령군 왕기(王琦)가 이곳에 왔는데, 그의 군호인 ‘영(靈)’자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다시 흥했다는 의미의 ‘흥(興)’을 붙여 영흥이 되었다고 전해오지만 이는 지명 이후의 사실이다. · 또 어촌의 일상과 관련한 유래가 있으니, 어부가 신령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하면서 더욱 정성들여 조상과 신령님께도 고사(告祀)를 지냈다. 그러므로 이 섬의 이름을 신령님이 도와주신 섬이기 때문에 ‘신령 령(靈)’자와 또 살림이 나아졌으니 ‘일 흥(興)’자를 붙여 영흥도(靈興島)라 하였다 한다. 조선 후기에 한 때 연흥도(燕興島), 연흥도(延興島)로 불리기도 했다.

<표 5-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2	내리 (內里)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40.
		· 영흥면 내리는 원래 남양군 영흥면의 지역으로 영흥도 선착장에 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중앙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깊숙이 들 어앉은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 마을’ 또는 ‘내리’ ‘내동’ 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측변도, 안도, 삼석도, 부당도를 병합하여 ‘내리(內里)’라 하여 부천군에 편입 되었다가 1973년 옹진군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3	진두 (津頭)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43.
		· 영흥면 내리에 있는 이 마을은 내동 남쪽에 길게 뻗어 있는 부 리에 있는 마을로 ‘도이’ 또는 ‘진도’라 하던 것이 한자로 표기 되면서 ‘진두(津頭)’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p. 497-498.
		· 내5리 지역으로 영흥도 동남쪽에 돌출된 여객선 선착장 마을이 다. 진두는 본래 가시나무 덩굴의 작은 섬이었는데, 1920년대 말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내3리로 건너막은 제1제방과 내7 리인 ‘가마깨촌’으로 건너막은 제2제방이 완성되면서 연륙(連 陸)이 되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또 6·25전 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공지(空地)인 이곳에다 판잣집과 토막 등을 지으면서 큰 마을이 되었다.
		· 이 진두를 ‘바깥두이’라 하고 제1제방 소나무 동산 밑 나루터를 ‘안두이’라 한다. ‘두이’는 ‘도이’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도이(渡 以)’ ‘두이(頭以)’로 쓴다고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 고 다만 갯골을 건너다니는 나루터라는 의미라는 설이 있다.

<표 5-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4	국사봉 (國思峰)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 948.
		· 영흥면 외리의 고개 너머 서남쪽에 있는 장경이 동쪽에 위치한 이 산은 영흥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해발 250m나 되며 고려말 공민왕이 이성계에게 몰락 당한 후 고려의 왕족들이 이곳 영흥으로 피난하여 이 산에 올라가 한양을 바라보며 나라를 생각했다 하여 ‘국사봉(國思峰)’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경환, 남, 86세, 영흥면 내리 거주)
5	도너메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8.
		· 도이너메라는 뜻으로 나루터 넘어라는 뜻이다.
6	외곶에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8.
		· 옛날 이곳에 세곡을 싣고 다니는 뱃사람들을 상대로 술을 팔던 주모의 별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7	염벚터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8.
		· 구면사무소 지나 농촌지도소 건물과 소나무 동산이 있는 지역이다. 옛날 이곳에 염벚이 5개소나 있었다고 한다.
8	번등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8.
		·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내5리 주택지 일원의 옛 지명이다. 소도 맬 수 없는 이추나무(작은 대추나무) 덩불이 가득한 곳이었어서 이추나무번등이라고도 한다.
9	둔두래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8.
		· 선착장 앞 섬 이름이다. 방파제 역할을 한다. 본래 여기저기서 떠밀려 내려온 부서진 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로 붙여지면서 ‘두두룩하게 언덕이 졌다’하여 둔두레섬이라고 부른다고 하나 정확한 어원이나 유래는 알 수 없다.

<표 5-4>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계속)

구분	지명	연구내용
10	큰골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8.
		· 둔두래 앞골과 뒷골을 큰골이라 부른다. 옛날 세곡선이 지나다 니던 갯골이다.
11	거문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9.
		· 진두 동쪽 송전탑 자리를 검은여라고 한다. 바위 색깔이 검은빛 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12	진술목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9.
		· 진술목은 긴장술목을 뜻하는 말로 물목이 길었다 해서 붙은 지 명이다.
13	소드령 뿌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9.
		· 진두산으로부터 방파제 쪽으로 나온 산부리를 이른다. 석섬을 소의 귀통이라고 한다.
14	석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9.
		· 영흥도 진도선착장 남쪽 작은 섬들로서 세 개의 봉우리가 산 (山)처럼 생겼다 하여 석섬 또는 삼서도(三嶼島)라 부른다.
15	길마섬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하)」, p. 499.
		· 선착장에서 북쪽 방향으로 떨어진 섬인데 그 형태가 ‘길마’ 같아 서 부르는 이름이다.

(2) 주요 지명

○ 진두(津頭)

- ‘진두(津頭)’는 ‘도이’ 또는 ‘진도’라는 이름도 갖고 있음. 한자로는 ‘도이(渡以)’나 ‘두이(頭以)’로 썼다고도 하며, ‘나루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내5리의 초입에 세워져 있는 진두 마을 안내판에도 ‘나루’의 의미로 소개되어 있음

진두(津頭)

‘진두’는 ‘나루’의 의미로 ‘강이나 내나 바다 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곳’을 뜻한다. ‘진두’ 또한 ‘나루’를 뜻한다. 영흥도 동남쪽에 돌출된 부위로 여객선 선착장이 있는 마을이다. 진두는 본래 가시나무 덤불의 작은 섬이었는데, 1920년대 말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내5리인 진두에서 내3리로 건너막은 제1제방과 내7리인 ‘가마깨촌’으로 건너막은 제2제방이 완성되면서 연육(連陸)이 되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또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공지(空地)인 이곳에다 판자집과 토막 등을 지으면서 큰 마을이 되었고 선착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 진두를 ‘끝-진두’ ‘바깥-진두’ ‘안-진두’라 한다.

<자료 5-1> 내5리 입구의 “진두” 안내판 내용



<그림 5-4> 내5리 입구의 ‘진두’ 안내판

○ 진두해수욕장 터

- 현재는 매립되어 해수욕장의 흔적만 남아 있음. 1980년대까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으로 방파제를 쌓아 인공적으로 조성하였음
-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후에는 새우양식장으로 활용됨



<그림 5-5> 새우양식장으로 활용될 당시의 진두해수욕장 터³⁰⁾



<그림 5-6> 진두해수욕장 터

3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 해수욕장 산

- 내5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산으로, 특별한 명칭이 있는 산은 아님. 부르는 사람에 따라 ‘진두산’, ‘해수욕장 산’, ‘앞산’ 등으로 불리고 있음
- 해수욕장 산을 기준으로 동편이 본래의 진두마을이며, 서편이 해수욕장터를 매립해 조성한 신주거지임



<그림 5-7> 해수욕장 산



<그림 5-8> 해수욕장 산 하부 절개면

○ 진술목

- 내5리에서 내7리로 이어지는 해안 길목. ‘구 면사무소 앞 해안가쪽에서 가마깨촌 뒤쪽 쓰레기장까지’를 가리킨다고 함

진술목

목의 지명은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 지르는 길목이나’ ‘통로의 다른 곳을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르킨다. 진설목에서 변음이 되어 ‘진술목’으로 불려졌다. 구 면사무소 앞 해안가쪽에서 가마깨촌 뒤쪽 쓰레기장까지를 진술목이라고 한다. 진두와 가마깨촌(삼앞)까지의 옛날 물목이 길었다 하여 부르는 지명이라고 한다.

<자료 5-2> 진술목 안내판 내용



<그림 5-9> 내5리의 주요 지명

1-3. 자연 · 생태적 자원

(1) 특산물

- 수산물(바지락, 소라, 고동, 낙지, 간재미, 굴 등)
 - 내5리의 특산물은 수산물이 주종을 이룸
 - 수산물 중 바지락의 생산량이 가장 많음
 - * 과거에는 마을 내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텃밭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이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구는 거의 없음

[경향신문, 1967. 1. 30]

굴 못팔아 생활난

부천군 영흥면 영세어민들은 전부터 상인을 통해 팔아오던 굴이 요즘 인천경찰서 해상보안계에 의해 밀매행위라는 이유로 단속되고 있어 어민들은 생계유지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각계에 진정했다.

부천군 영흥면 내5리 진두부락에 살고 있는 홍은표씨 등 50여 명의 영세어민들은 오래전부터 같은 부락에 사는 원태삼씨의 운반선 ‘공영호’(15톤)를 빌어 섬에서 4km 떨어진 ‘서머’벌까지 가서 한 사람이 하루 1백원 내지 1백50원 상당의 굴을 따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어민들이 딴 굴을 받아 인천에 내다팔아 돈을 마련해 주던 상인 김춘연씨(같은 부락 거주)와 인천에 사는 박태문씨의 처 등 여인 2명이 어민들의 굴(4회에 걸쳐 55관)을 작년 10월 25일 인천경찰서 보안계에 압수당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3만여원에 달하는 석화채취금을 주지 않아 생계유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이 심해지자 상인이 안 와 굴의 판로가 막혔다고 한다.

<자료 5-3> 내5리 특산물 관련 신문기사



<그림 5-10> 거리에서 판매중인 수산물



<그림 5-11> 간재미 손질

1-4. 물리적 자원

(1) 내5리 다목적회관

- (준공일) 2017년 6월 12일에 준공됨
- (규 모) 연면적 약 392㎡ 및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됨
- (용 도)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의 등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됨

(2) 늘푸른센터

- (용 도) 주민 커뮤니티 시설임. 교육,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
- (특 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웅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조성됨



<그림 5-12> 늘푸른센터 전경

(3) 카페 터미널

- (위 치) 영흥도터미널 옆에 위치한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으로 영흥 늘푸른센터 1층에 위치하며 종업원 1명이 근무중임
- (개 점) 2022년 6월 22일에 개점되었고, 음료 및 마을 특산물을 판매중임
- (특 징) “영흥면 내5리 도서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됨

[웅진군청 보도자료, 2022. 6. 17]

영흥 늘푸른센터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 개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지역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흥면 내5리 도서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영흥 늘푸른센터 1층에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을 6월 20일 개점한다고 밝혔다.

도서특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판매장 운영 주체인 영흥면 내5리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국비 포함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영흥 늘푸른센터에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을 개점 및 운영하고 2023년에는 특산물인 바지락 가공보관 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흥 늘푸른센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조성된 영흥면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판매장은 1층 유희공간에 조성하였고, 영흥도 버스터미널도 판매점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영흥면 내5리는 판매점 상호를 “카페 터미널”로 명명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 5-4> 카페 터미널 개점 관련 옹진군 보도자료



<그림 5-13> 카페 터미널 전경

(5) 영흥대교

- (개 통) 1997년 8월에 착공되어 2001년 11월 15일에 개통되었으며, 영흥대교와 연결되는 영흥도 중심도로는 2002년 1월에 준공됨
- (규 모) 1천250m, 너비 13.3m의 왕복 2차선 도로임
- (특 징) 영흥대교 개통 후 기존에 운영되던 인천-영흥항로, 선재-영흥항로는 폐쇄되었으며, 내5리는 영흥대교를 나온 후 “영흥대교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180도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도록 되어 있음

[경인일보, 2001. 11. 22]

인천-영흥항로 잇단 폐쇄

인천지역 연안여객 선사들이 잇단 연륙교 건설로 항로 폐쇄와 함께 선박 매각 등 감척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부해운이 21일부터 선재~영흥항로의 운항을 중단한데 이어 인천~영흥항로 운항선사인 (주)원광도 다음달 1일부터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선사는 영흥대교 개통 이후 여객감소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부해운측은 그러나 이들 항로를 폐쇄하는 대신 내인가받은 영흥~자월~덕적항로, 영흥~승봉~이작항로 등 2개 항로를 다음달부터 운항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백령 항로의 운항 선사인 진도운수(주)는 컨티넨탈호를 제주~목포 항로에 투입하고 대체선인 포일씨스타호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진도 운수는 인천~백령항로에 당분간 백령아일랜드호 1척만 투입하게 된다. 연안여객선사 관계자는 “잇단 연륙교 건설로 연안항로가 폐쇄돼 선박이 남아돌고 있다”며 “잉여 선박은 폐선 또는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자료 5-5> 영흥대교 개통 후 항로 폐쇄 관련 신문기사

[경인일보, 2001. 11. 15]

영흥대교 오늘 개통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를 연결하는 영흥대교가 15일 오전 영흥면 내 5리 진두물양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착공 4년여만에 개통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기선 인천시장을 비롯 조건호 옹진군수, 김복동 영흥화력건설처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고 기념식에 이어 불꽃놀이,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남동발전(주)가 총 공사비 1천716억원을 투입해 지난 97년 8월 착공, 4년 3개월만에 준공된 영흥대교는 길이 1천250m, 너비 13.3m(왕복 2차선)로 진도 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흥대교는 현대건설(주)와 (주)유신코퍼레이션이 시공과 설계를 맡아 순수 국내기술진에 의해 설계·시공된 최초의 사장교다.

<자료 5-6> 영흥대교 개통 관련 신문기사

[옹진군청 보도자료, 2002. 1. 25]

영흥 중심 도로 준공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영흥도의 내리와 외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30m 폭 8.5m에서 6m의 중심도로를 총 사업비 33억을 투자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이달에 준공했다. 내리와 외리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은 영흥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군의 재정여건상 쉽게 해결할 수 없어 고심하던 중 지난 '99년 2월 인천광역시로부터 20억을 지원 받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이어 2001년도에 시비 5억 및 교부세 8억을 추가 지원 받아 완공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영흥대교로 이어지는 진두선착장에서 십리포해수욕장까지 도로가 훤히 뚫려 수도권 등 육지에서 접근이 훨씬 용이해 집에 따라 영흥대교의 진가를 배가시켜 줌으로 영흥 지역의 물류와 관광객 수송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5-7> “영흥도 중심도로” 개통 관련 옹진군청 보도자료



<그림 5-14> 영흥대교 전경



<그림 5-15> 영흥대교 야경

(6) 진두항

- (지 정) 1986년 인천시 관리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해양수산부 고시를 거쳐 국가어항으로 지정됨
- * 어항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됨



<그림 5-16> 진두항



<그림 5-17> 진두항 선착장 안내도

[해양수산부, 2019. 2. 21]

해수부, 국가어항 5개소 신규 지정
- 인천 진두항, 전북 개야도항, 전남 오천항·송도항, 경남 장목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항, 전북 군산시 개야도항, 전남 고흥군 오천항과 신안군 송도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6일(화)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진두항, 개야도항, 오천항, 송도항 및 장목항 등 5개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어항들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진두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최근 낚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낚시레저 전용부두, 친수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거점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어선부두는 관광객 이용 공간과 분리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조업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 5-8>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7) 하늘고래 조형물 및 전망데크

- (조 성) 2019년에 조성됨
- (특 징) 하늘고래 조형물과 연계하여 “영종 하늘고래 해상 보행로”가 함께 조성됨



<그림 5-18> 하늘고래 조형물 및 전망데크 근경



<그림 5-19> 하늘고래 조형물 및 전망데크 원경

1-5. 역사·문화적 자원

(1) 고지도

○ 임야원도³¹⁾



<그림 5-20> 1918년 제작 영흥면 내리 「임야원도」

○ 「1:50,000 조선지도」³²⁾



<그림 5-21> 일제강점기 「1:50,000 조선지도」³³⁾

31)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3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33)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2) 6·25전쟁과 피난민

- 내5리의 대표적인 마을은 진두마을이며, 진두선착장 앞에 위치해 있음
- 진두마을은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황해도 등지에서 남하한 피난민들이 정착해 형성된 마을로 알려져 있음
- 진두마을에는 현재도 피난민 1세대 중 일부가 생존해 있으며, 2세대와 3세대도 다수 거주함



<그림 5-22> 내5리 입구의 진두마을 표지석

(3) 영흥도와 인천상륙작전

- 영흥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상륙을 위한 첩보작전을 펼치다 전사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 해군 첩보부대는 1950년 8월 24일에 17명의 대원이 영흥도에 도착해 첩보작전 임무를 수행한 후, 9월 24일에 철수를 하였음
- 해군 첩보대원 중 8명은 철수 과정에서 영흥도 청년방위대원 6명과 함께 전사함
- 현재 십리포해수욕장에 “인천상륙작전전초기지”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음

인천상륙작전의 전초기지 영흥도

미국극동사령부 해군정보장교 클라크대위와 한국해군 정보부대 KL0-8240 부대원은 1950년 9월 15일 01:40에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힌다. 이 등대 불을 신호로 유엔군은 261척에 달하는 연합함대가 05:00부터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상륙주정(LCVP) 20척에 분승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06:33에 녹색해안(Green Beach)인 인천월미도에 상륙하여 06:55에 월미산 105고지 정상을 탈환하였고, 08:00 월미도를 확보한 후 정오 쫄 적 사살 108명, 포로 136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대적인 작전이었다. 그러므로 미 극동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북한군 첩보활동을 위한 부대 창설을 요청했다. 함명수 소령, 임병래 중위, 응시욱 하사 등 17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해군특수첩보대가 비밀리에 창설된 배경이다. 해군 첩보대는 8월 18일 01:00에 어선을 타고 부산항을 떠나 6일째인 8월 24일 서해 영흥도에 도착했다. 작전보안을 위해 첩보작전의 임무를 하달했다. 특수첩보대 대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인천과 서울 수원을 왕래하면서 북한군에 관한 첩보활동을 펼쳤다. 인천상륙작전 개시 하루 전 영흥도를 거점으로 첩보활동을 펼치던 특수첩보대에 철수명령이 떨어졌다. 철수 준비를 서두르던 02:00, 한국군의 첩보활동을 뒤늦게 감지한 북한군 1개 대대가 영흥도를 기습했다. 영흥도에는 17명의 첩보대원과 영흥도 청년방위대원 6명만 남아 있었다. 첩보대원과 청년방위대원이 적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동안 나머지 9명의 첩보대원들은 해안에 정박해 둔 마지막 보트를 타고 탈출했다. 상륙작전을 불과 24시간 앞두고 영흥도 전투에서 8명의 해군첩보대원과 영흥도 청년방위대원 6명 등 14명이 전사했다. 이후 북한군은 영흥도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그동안 한국해군 첩보대와 클라크 첩보대에게 적극 협조한 영흥도의 청년들을 학살하였는데, ‘한국전쟁’ 2의 기록에 의하면 “9월 16일, 미 해병대가 영흥도를 점령해보니 클라크 퇴거한 직후에 1개 대대(4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상륙하여 아군에게 협력한 부락민 50여명을 참살했음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잘 알려지지 않는 여러 희생자들의 호국정신과 영흥도 주민들의 가특한 애향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료 5-9> “인천상륙작전전초기지” 기념비문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2-1. 추진단계 및 결과

(1) '24년 섬 특성화사업 공모 신청 결과

<표 5-5> 영흥도 진두마을 공모 신청 결과

사업명	신청 단계	신청 결과	비고
섬나들이 진두마을	3 (계속)	'24년 행정안전부 공모심사결과 미선정	2단계 완료('22~'23)

(2) 마을 자체 평가

- 정부의 예산 축소가 원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됨
- 심사과정에서 특산품 등을 활용한 충분한 사업 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미선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됨

2-2. 주요 추진 내용

(1) 사업명

- “영흥을 진두지휘하는 내5리, 진두마을” 사업

(2) 사업 내용

- 힘과 일의 공존 마을 : 수도권 위케이션의 매력지
- 관광 활성화 마을 : 새롭고 차별화된 체험관광마을
- 상생 공동체마을 : 주민상생연대 마을공동체

(3) 사업 추진 조건

- 위케이션 부지 확보
 - 사업내용 중 하나인 위케이션 부지는 마을 유희공간 대체부지를 활용함

(4) 기대 효과

- 소득사업을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
- 새로운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공사례 정착과 주민 삶의 질 개선
- 국가정책사업과 상승효과 기대

2-3. 기존 사업 분석

(1) 다양화의 오류

- 3단계 사업의 핵심 사업을 1) 워케이션 공간 구축, 2) 어촌 체험마을 조성, 3) 공동체마을 정착, 이상 3개로 설정하였음
- 구체적 사업 내용은 1) 길마섬 갯티길 조성, 2)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3)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구축, 4) 킬러아이템 기반시설 구축(카페 터미널), 5) 디지털 워케이션 하우스 구축, 6) 슬리퍼 프로젝트 등임. 여기에 주민역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3단계 사업의 핵심 개념은 ESG로 설정하였음
- 사업내용 중 “어촌 체험관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 핵심 내용은 “길마섬 갯티길 조성”임. 체험관광이란 포괄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 “갯티길”이란 구체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워케이션 공간 구축과 길마섬 갯티길 조성이 핵심사업으로 설정되고, 체험마을, 공동체마을, 슬리퍼 프로젝트가 추진방안으로 제시되면 사업을 구조화해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 단계별 사업의 연계성 부족

- 1단계, 2단계 사업을 통해 달성한 핵심 성과는 “카페 터미널”의 조성임
- “카페 터미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1, 2단계의 사업 성과를 3단계 사업으로 확장시킨다는 개념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사업신청서”에 따르면, “카페 터미널”의 운영 성과는 미비해 보임. 그렇게 본다면,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카페 터미널의 성과를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 필요함
- 아직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1, 2단계 사업의 성과를 3, 4단계 사업으로 확장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종합분석

3-1. SWOT 분석

<표 5-6> 영흥도 진두마을 SWOT 분석 결과

○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 양호 · 시화방조제-선재대교-영흥대교 연결 ○ 주변 갯벌과 무인도서 발달 ○ 바지락, 굴 등 수산물 다수 보유 ○ 다양한 해양갯벌체험 가능 · 갯티길 등 보유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능 · 선재도, 목섬, 측도 등	○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 ○ 주말과 휴일 주차장 부족 · 낚시객 등의 주차장 점유 · 주차 공간 부족 ○ 낙후된 마을 이미지 ○ 지역 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부족 ○ 홍보와 안내 체계 미흡 · 리플렛 등 부족
[내부적 요인] 강점(Strength)	[내부적 요인] 약점(Weakness)
[외부적 요인] 기회(Opportunity)	[외부적 요인] 위협(Treat)
○ 섬해양관광 관심 증가 ○ 낚시객 및 주변지역 관광객 증가 ○ 캠핑 인구 증가 ○ 섬특성화사업 진행중(2단계 완료) · 카페 터미널 조성 ○ 웅진군 등 관계기관의 지원 의지	○ 무분별한 외지인들의 해루질 · 주민과의 갈등 요소 ○ 어족자원 고갈과 생산량 감소 ○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 열악한 교통조건으로 접근성 악화 ○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

3-2. 영흥도 진두마을 핵심성공요소

<표 5-7> 영흥도 진두마을 핵심성공요소

구분	내용
자원성	· 갯벌, 무인도서, 해양경관 등 우수한 자원 보유
지역성	· 선재도, 측도, 목섬 등 주변지와 연결성 양호
화제성	· 하늘고래 등 우수한 야경 보유
체험성	· 갯벌 및 갯티 체험 가능
접근성	· 선재대교, 영흥대교를 통한 접근성 우수
지속성	·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확고

3-3. 영흥도 진두마을 전략방향

<표 5-8> 영흥도 진두마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S-O 전략	S-T 전략
○ 갯벌, 갯티 등 마을 브랜드 확립 · 진두마을의 대표적 자연경관인 갯벌과 갯티길을 연계한 마을의 대표 브랜드 발굴 ○ 진두마을만의 특화콘텐츠 발굴 · “피난민 마을” 등 스토리텔링과 결합된 특화콘텐츠 발굴	○ 야경 등 감성적 이미지 확보 · 재방문을 견인할 수 있는 감성적 야간경관 분위기 조성 ○ 집객 관광시설 및 화제성 이벤트 발굴 · 야간경관을 활용한 버스킹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 개발
W-O 전략	W-T 전략
○ 방문객 분산 콘텐츠 개발 · 주간-야간 콘텐츠의 차별화 등 시간-계절별 방문객 유인 요소 발굴 ○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 어촌 주택을 활용한 민박 시설 확충	○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 바지락 제품 등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 ○ 갯벌 및 갯티 체험프로그램 발굴 · 주민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개발

4. 마을발전구상

- 21세기 관광의 핵심 개념은 감성, 스마트, 건강, 일상, 휴가, 네트워크, 사진, 공유, 테마 등임
- 영흥도 진두마을은 우수한 야경 및 우수한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수산물, 갯벌과 무인도를 잇는 갯티길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진두마을의 지역 현황 및 자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마을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함
- 우수한 해양과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갯티와 야간경관이 특화된 마을로 이미지메이킹하는 전략을 수립함

<표 5-9> 영흥도 진두마을 발전구상

비전	밤이 빛나는 진두마을		
방향	갯벌과 무인도, 갯티를 체험하는 마을	낙조와 야경으로 밤이 더욱 빛나는 마을	풍부한 수산물로 바다를 맛보는 마을
전략	○ 갯벌과 무인도(꽃섬), 갯티길 잇기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갯티길 정보 제공 ○ 빼어난 해양자원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 발굴	○ 하늘고래가 더욱 빛나는 밤 이벤트 발굴 ○ 다리와 섬이 빛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스스로 빛나는 마을길 조성	○ 수산물 가치상승 브랜드 발굴 ○ 바지락, 굴 특화 음식 개발 ○ 바다와 갯벌 체험 프로그램 발굴

4-1. 발전비전

- 갯벌 및 갯티, 자연경관, 마을환경 등 진두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밤이 빛나는 진두마을**”을 비전으로 설정함
 - 진두마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갯티와 무인도서 등 차별화된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늘고래와 영흥대교 등의 야경 이미지와 연계해 진두마을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4-2. 발전방향

- 갯벌과 무인도, 갯티를 체험하는 마을
- 낙조와 야경으로 밤이 더욱 빛나는 마을
- 풍부한 수산물로 바다를 맛보는 마을

4-3. 발전전략

(1) 갯벌과 무인도, 갯티를 체험하는 마을

- 갯벌과 무인도(꽃섬) 및 갯티길 잇기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갯티길 정보 제공
- 우수한 해양자원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 발굴

(2) 낙조와 야경으로 밤이 더욱 빛나는 마을

- “하늘고래가 더욱 빛나는 밤” 이벤트 발굴
- “다리와 섬이 빛나는 밤” 프로젝트 발굴
- “스스로 빛나는 마을길” 조성

(3) 풍부한 수산물로 바다를 맛보는 마을

- 수산물 가치를 반영한 특화 브랜드 발굴
- 바지락, 굴 등 특화 음식 개발
- 바다와 갯벌 체험 프로그램 발굴

5. 단계별 사업 제안

<표 5-10> 영흥도 진두마을 단계별 사업 제안

구분	단기(2025-2026년)	중장기(2027-2030년)
사업명	갯벌과 갯티, 무인도와 바다를 맞보는 마을	섬과 바다의 야경 즐기는 마을
실행전략	갯벌, 갯티길 걷기 명소의 이미지 구축	야간경관 시설 확충을 통한 야경이 아름다운 마을 구축
공간범위	갯벌, 갯티, 무인도(꽃섬)	하늘고래 전망대, 영흥대교
도입내용	체험	화제성 콘텐츠
중심 키워드	갯티, 걷기	야경
하드웨어 사업	· 갯티길 잇기 · 공동작업장 만들기 · 안내판 제작 설치	· 빛나는 영흥대교 만들기 · 포토존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 먹거리 개발	· 진두마을 야경과 갯티사진 공모전
홍보마케팅 사업	· 홍보마케팅 강화 · 리플렛 제작비치 · SNS 홍보	·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 체계구축 · 홍보마케팅 전문성 강화
역량강화 사업	· 주민역량교육(기초)	· 마을아카데미 운영 · 주민역량교육 (전문/실무)

5-1. (단기) 갯벌과 갯티, 무인도와 바다를 맛보는 마을

(1) 갯티길 잇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체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내용

- 갯티길 연계 코스는 터미널, 선착장, 하늘고래 전망대, 무인도(꽃섬)를 연결하는 약 6km 구간으로 상정함
- 토목공사를 통한 갯티길 조성을 지양하고, 구간별 연결성 확보를 중점으로 한 이음길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면허어장 및 갯티길의 명확한 차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하여 외지인 및 체험자들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작업장 만들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어촌계 사무실과 주차장
- 대 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추진내용

- 바지락 및 굴 등 어촌계 수산품을 관광객 대상의 판매용 제품으로 가공하고 소포장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필요함
- “조개 캐기” 등 갯벌체험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이 직접 채취한 조개 등을 손질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함
- 어촌계사무실 공간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공동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이곳에서 가공된 수산물의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3) 먹거리개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관광객 증가에 맞춰 진두마을 고유의 먹거리 개발이 필요함
- 음식전문가 및 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진두갱국”, “바지락고추장찌개” 등 차별화된 메뉴 개발이 필요함
- 먹거리에 “피난민 마을 이야기” 등 진두마을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접목해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음

(4) 홍보마케팅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내용

- 자연경관, 마을풍경, 하늘고래 전망대, 터미널 카페 등의 자원을 안내하는, 마을지도가 포함된 리플렛 제작이 필요함
- 주요 지점을 선정해 갯티길, 야경, 마을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 “피난민 마을”, “여객선 부두” 등의 마을이야기 발굴 및 홍보가 필요함

5-2. (중장기) 섬과 바다의 야경 즐기는 마을

(1) 빛나는 영흥대교 만들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장 소 : 영흥대교 및 인근 무인도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추진내용

- 영흥대교, 하늘고래 전망대 등과 연계하여 진두마을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시설을 마을 주요 지점에 조성, 야간관광객들을 유입시킬 필요가 있음
- 태양광이나 소형풍력발전기를 이용해 영흥대교 자체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영흥대교 인근 무인도에서 조명을 비추는 방식으로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음
- ESG 경영차원에서 영흥화력발전주식회사, 진두마을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 웅진군 등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진두마을 야경과 갯티 사진 공모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30년
- 장 소 : 마을전체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하늘고래 전망대가 새로운 포토존 명소로 주목받는 추세에 맞춰 “진두마을 갯티와 야경 사진 공모전”을 개최, 진두마을을 명소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전문사진작가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학이나 기업의 사진동아리 등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공모전 입상 작품들은 영흥버스터미널이나 카페 터미널 등에 전시하거나 웅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지속시키고, 리플렛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음

(3) 마을아카데미운영**□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7~2030년
- 장 소 : 마을전체
- 대 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특성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사업목표에 공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3단계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 안내, 특성화사업 이해, 마을 비전 및 목표 수립 등을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마을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함
- 마을아카데미를 통해 “피난민 이야기” 등 마을 주민들의 구술채록과 스토리텔링 작업을 병행할 수 있음

<표 5-11> 영흥도 진두마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³⁴⁾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단기 (2025~2026년)	· 갯티길 잇기	500
	· 공동작업장 만들기	1,000
	· 먹거리개발	100
	· 홍보마케팅 강화	200
	소 계	1,800
중장기 (2027~2030년)	· 빛나는 영흥대교 만들기	300
	· 진두마을 야경과 갯티 사진 공모전	100
	· 마을아카데미운영	100
	소 계	500
총 계		2,300

34) 공모 선정 후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및 소요예산 변경 가능

VI. 소무의도(무의동) 컨설팅

VI 소무의도(무의동) 컨설팅

1. 마을 현황 분석

1-1. 기본 현황

(1) 마을의 위치

- 중구 무의동
 - 무의동은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 사렴도, 해녀도에 해당함
 - 소무의도의 법정동은 무의동이며, 행정동은 용유동에 속함.

(2) 주요시설

- 공공시설
 - 소무의 마을회관, 소무의항, 수산건어물직매장, 소무의도 스토리움 등을 보유하고 있음(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남북동에 위치해 있음)
- 교육시설
 - 교육시설로는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됨
- 기타시설
 - 소무의도 내 마을은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이 있으며, 무의교회가 서 있는 언덕을 경계로 구분됨



<그림 6-1> 소무의도 위치

(3) 운행정보

○ 운행버스

- 소무의도는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소무의도 방문객들은 광명항 앞까지 버스를 이용해 도착하거나 광명항 주차장, 무의공영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소무의인도교를 통해 도보로 소무의도에 들어갈 수 있음
- 소무의도는 현재 일부 공사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섬 내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 거론되고 있음
- 광명항 주차장은 낚시꾼 차량 등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며, 저녁 7시 이후에 주차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고 함. 현재 주차보조요원 2명이 차량을 안내하고 있음
- 광명항을 경유하는 운행버스는 지선버스인 공영버스 중구6번이 있음. 간선버스인 222번, 마을버스인 무의1번은 무의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함
- 소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 1월에 기부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보조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음

<표 6-1> 소무의도 연계 노선버스 운행시간표³⁵⁾

노선	기점	종점	기점 발 운행시간	배차간격
중구6	광명항	동인천역 (우리은행앞)	08:10-14:40	3-4시간
222	인천공항T1(3층7번)	무의공영주차장	06:00-20:50	90-110분
무의1	인천공항T1(3층7번)	무의공영주차장	06:30-20:00	45-60분

(4) 인구

- 소무의도가 속한 행정동인 용유동의 인구 수는 2023년 12월말 현재 3,617명이며, 세대 수는 2,387세대임³⁶⁾
-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소무의도 인구 통계를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지 않으나, 소무의도 마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소무의도의 인구는 주민등록상 50여 세대에 90여 명이 거주하며, 활동 인원은 31명 가량이라고 함

35) 인천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https://bus.incheon.go.kr/bis/main.view>).

36)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s://www.icjg.go.kr/krop020703tb/265527?curPage=1>).



<그림 6-2> 중구6 버스



<그림 6-3> 무의1 버스



<그림 6-4> 소무의인도교 전경



<그림 6-5> 소무의인도교 근경



<그림 6-6> 소무의인도교 야경



<그림 6-7> 소무의인도교의 도로 폭



<그림 6-8> 광명항 진입도로



<그림 6-9> 소무의도 이동보조차량



<그림 6-10> 서쪽마을과 동쪽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그림 6-11> 소무의인도교를 이동하는 소형 카트

1-2. 지형 및 지명

(1) 기존 연구 자료 분석

<표 6-2> 지형 및 지명 관련 연구자료

구분	지명	연구내용
1	무의도 (舞衣島)	○ 이훈익(1993), 「인천지명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p. 93.
		· 용유도는 원래 인천땅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천군 용유면이었다가 1973년 1월 옹진군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무의동은 옛 용유면 구역중 대무의도(大舞衣島), 소무의도(小舞衣島), 팔미도(八尾島)를 통합해서 1917년 6월 5일 무의리가 되었다가 1990년 1월 1일에 용유면 전체가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고 무의리를 무의동으로 개칭되었다. 무의란 섬의 형태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이 생겨서이다.
		○ 인천광역시(1998), 「인천의 지명유래」, pp. 60-61.
		· 무의도는 한자풀이식으로 해설하여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었다’ 또는 ‘옛날에 안개가 많이 낀 날, 어부들이 이 섬을 지나다 보니 말을 탄 장군이 칼을 쥐고 옷깃을 날리며 달리는 모습으로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다’해서 춤출 무(舞)자와 옷 의(衣)자로 표기되었다. ‘없을 무’자가 ‘춤출 무’자로 바뀐 때는 1910년경으로 조선총독부 제작 지도에 ‘춤출 무’자로 표기되어 있다.
		· 그러나 토박이 우리말인 ‘물(무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즉, 소무의도를 우리 토박이 말로 ‘떼무리’, 대무의도를 ‘큰무리’라고 하는데 ‘무리의 원말은 물’로 ‘물이 무리 또는 무이(->무의)’로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무의(無衣)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인천광역시(2015), 「인천의 지명(상)」, p. 70.
		·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두 개의 섬 가운데 마을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무의도는 지금도 흔히 ‘큰무리’라 불리며, 소무의도는 ‘떼무리’나 ‘뽕무리’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때의 ‘무리’를 한자로 옮겨 쓴 것이 ‘무의’라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의 ‘무리’는 섬사람들이나 어부들이 흔히 바닷물의 흐름과 관련해 쓰는 말 ‘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지명

○ 떼무리

- 떼무리는 소무의도의 별칭임. 대무의도는 “큰무리”라고 부름. “무리”를 “물”의 변형으로 보기도 함. 소무의도에서는 “고기가 무리를 이루어 떼로 몰려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음. 소무의도의 항구를 떼무리항이라고 함
- 함세덕의 희곡 “무의도기행”에 대무의도를 가리켜 “큰떼무리”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함
- 소무의도에 있는 항구를 “떼무리항”이라고 하며 소무의도의 서쪽 해안에 형성되어 있음
- 서쪽마을에서 운영중인 식당인 “뽕리국수”는 “떼무리”를 “뽕리”로 변형하여 상호로 사용중임
- 떼무리항 앞에 서 있는 “소무의떼무리 항” 안내판에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으며 대무의도와 육지를 바라보던 주민들의 동경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선착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함세덕의 희곡 “무의도기행”에 나오는 “떼무리”

서해안에 면(面)한 무의도(舞衣島 ; 떼무리라고 부른다)라는 조고만 섬. 섬에 흔히 볼 수 있는 퇴락한 어부의 집. 전면은 가도(街道). 후면은 사장(砂場)을 내려 바다. 우편에 느티나무 고목일주(一株). 울긋불긋한 형겅이 무수히 달린 사당. 지붕에는 풍어를 빌든 봉죽[盛漁旗]이 낡은 채 펄럭인다. 그물말에 걸린 건어꾸레미와 어촌색을 낼 만한 어구들 상당히. 도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황량한 겨울이 접어들려는 10월 상순.

바다는 만조(滿潮)라 푸른 감벽(紺碧)이 수건을 넣으면 물들듯하다. 단조한 파도 소래와, 이따금 들리는 물새떼의 울음 소래. 나루터 하나 격(隔)한, 인도(隣島) 큰 떼무리의 한방의(漢方醫) 구주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초조히 누구를 기대리고 있다.

<자료 6-1> 함세덕의 희곡 “무의도기행”에 나오는 “떼무리” 내용



<그림 6-12> 떼무리항



<그림 6-13> “소무의떼무리 항” 안내판

○ 서쪽마을

- 서쪽마을은 떼무리항에 인접한 마을임. 소무의도에는 서쪽마을과 동쪽마을이 있으며, 두 마을은 대략 무의교회가 서 있는 언덕을 기준으로 구분됨
- 서쪽마을은 무의교회 서쪽에 위치하며 소무의도의 중심이 되는 마을임. 소무의인도교와 떼무리항이 있어 방문객들이 소무의도에서 처음 만나는 마을임. 모예재가 지나는 언덕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음

○ 동쪽마을

- 동쪽마을은 동쪽 해안에 인접한 마을임. 서쪽마을에서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예재를 넘어야 함
- 과거에는 서쪽마을과 동쪽마을의 인구 수가 비슷했다고 하나 현재 주거지 밀집도는 서쪽마을이 높음
- 서쪽마을은 대무의도를 바라보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마을 앞 경관이 막혀 있는 반면, 동쪽마을은 마을 앞쪽이 개방돼 있어 바다 경관을 조망하는 것이 가능함. 마을 앞에 몽여해변이 있음. 과거에는 동쪽마을에 무도분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어 건물만 남아 있음
- 소무의도를 방문하는 낚시꾼들은 대개 동쪽마을 앞 해변에서 낚시 활동을 함. 동쪽마을 앞에 방파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카페 및 핫집 등이 운영중임

○ 모예재

- 서쪽마을과 동쪽마을을 연결해 주는 고개로 무의교회와 소무의도 복지회관 앞을 지나감
- 모예재는 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폭이며, 일부 구간은 소형 카트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임
- 모예재 길목과 양편 주거지에 우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대개는 마을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고 하며, 현재 4개가 남아 있음
- 우물은 현재도 사용 가능하나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 주로 세탁 등 생활 용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 소무의도에는 특히 고양이가 많아서 소무의도를 이동하는 동안 자주 마주치게 됨



<그림 6-14> 서쪽마을



<그림 6-15> 동쪽마을



<그림 6-16> 동쪽마을 앞 몽여 해변



<그림 6-17> 모예재 중 도로 폭이 좁은 구간



<그림 6-18> 모예재 길가의 공동우물



<그림 6-19> 동쪽마을의 공동우물



<그림 6-20> 동쪽마을 공동우물의 내부



<그림 6-21> 소무의도 길가의 고양이

○ 웃뿌리선창 · 아랫뿌리선창

- 떼무리항 선착장 중 북쪽의 것을 웃뿌리선창, 남쪽의 것을 아랫뿌리선창이라고 함
- 아랫뿌리선창 쪽으로 소무의인도교가 조성되었고, 웃뿌리선창 쪽에는 수산건어물판매장이 조성되어 있음. 두 선창은 소무의로16번길로 연결됨



<그림 6-22> 웃뿌리선창



<그림 6-23> 아랫뿌리선창

○ 부처깨미

- 소무의도의 북쪽 절벽 쪽에 있으며 “부지기미”라고도 함
- 풍어제를 열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음



<그림 6-24> 부처깨미

○ 언두꾸미

- 몽여해변의 남쪽에 있으며, 주목망인 언돌그물을 매던 곳임



<그림 6-25> 언두꾸미 안내판

부처깨미

과거 소무의도 주민들의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물로 소를 잡아
퐁어제를 지냈던 곳임

소무의도의 모습이 뱀이 꼬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전해지는데 이
곳은 뱀의 머리 부분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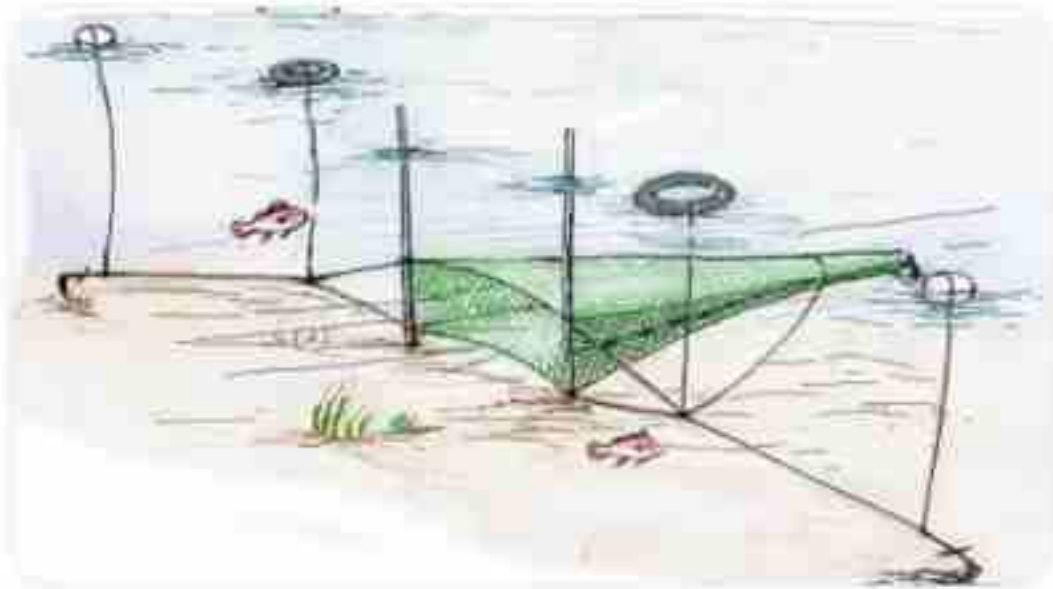
<자료 6-2> 부처깨미 안내판 내용

언두꾸미

주목망(과거 어업방식)인 언돌그물을 매던 곳으로 조수 흐름을 이용하여
갯벌에 참나무를 세우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임

소무의도는 언돌그물을 매는 적지로 과거 150칸을 설치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고 언돌꾸미가 변해 언두꾸미가 됨

<자료 6-3> 언두꾸미 안내판 내용



주목망

<그림 6-26> 주목망 조업모식도³⁷⁾

○ 명사의 해변

- 박정희 대통령이 여름 휴양을 왔던 해변으로 알려진 곳임. 주민들은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 가족이 소무의도를 방문했다고 기억하고 있음
- “명사의 해변” 안내판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한 해변”이라고 소개되어 있음

[노컷뉴스, 2013. 2. 7]

中2때 ‘비키니’ 촬영장소,朴에게 물었더니 …

박 당선인은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60년대 중반 당선인께서 가족들과 소무의도를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해변가에서 인증샷을 찍었다는데, 저도에서 찍었다는 화제의 비키니 사진이 소무의도에서 찍은게 맞느냐”는 이학재, 박상은 의원 등의 질문에 “정확한 지역 이름은 모르겠지만 인천 해안가에서 찍은게 맞다”고 답했다.

<자료 6-4> “명사의 해변” 관련 신문기사



<그림 6-27> 소무의도 주요 지명

37) 본 저작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조업모식도’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수산과학원, www.nif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

1-3. 자연 · 생태적 자원

(1) 특산물

○ 광어, 바지락, 우럭, 주꾸미

- 소무의도의 특산물은 광어, 바지락, 우럭, 주꾸미 등이 있음
- 소무의도의 과거 특산물 중에는 조기, 멸치 등이 있음
- 주꾸미를 활용한 음식은 소무의도 내에 있는 “땀리국수” 식당에서 판매 중인 “땀리국수”가 있음. 주꾸미를 넣은 국수임

○ 새우

- 소무의도에는 과거 새우의 생산량이 많았으며, 특히 겨울철에 잡히는 동백하가 유명하였음. 소무의도는 한때 “새우섬”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함.
- 일제강점기에도 소무의도 새우잡이는 유명하여서 새우섬을 의미하는 “에비시마”라고 불렸다고 함
- 현재도 전라도 등지에서 추젓을 마련하기 위해 새우잡이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소무의인도교를 지나 소무의도로 들어서는 입구에 새우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 브론즈로 제작된 새우 모형과 개비온 기단으로 구성됨



<그림 6-28> “땀리국수” 가게에서 판매하는 “땀리국수”



<그림 6-29> 소무의도 입구의 새우 조형물

새우섬, 소무의도

사계절 내내 새우가 잡히던 소무의도는 새우섬이라 불렸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잡히는 동백하로 유명한 서해 대표 어장이었고, 수많은 어선과 어부들은 새우잡이를 위해 소무의도 앞바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잡힌 새우와 새우 가공품은 중국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까지 수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주민 중 일부만 어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민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우섬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자료 6-5> 새우 조형물 안내문

[동아일보, 1925. 9. 12]

서해안에 '새우 풍어'

(마른새우) 본품은 1개년 5천척으로 13만원에 달하며 산지는 인천근해 아비도, 소무의도, 장기, 선수 등지며 수출지는 신호(神戶), 하관(下關), 지부(芝罘)인데 근년에는 일본 정강(靜岡) 지방에도 다수 수송되는 바 작년중에는 사천팔백팔십사척으로 기(其) 가격이 십일만육천원으로 시세는 매 백근 17원으로 14원까지의 왕래가 되며 ...

<자료 6-6> 1920년대 소무의도 특산물 새우 관련 신문기사

[인천연구원(2021), 「섬을 지켜온 사람들, 용유도 편」, pp. 117-118.]

풍족했던 새우고장, 소무의도에서 70년-구술자 유병제의 삶

새우를 잡으면 이런 큰 가마에 그걸 물에 넣고 끓여서 새우를 다 찌어요. 그러고는 찐 새우에 물감을 다 들이는 거예요. 사쿠라보시라고 하는 건데 빨간 물감, 노란 물감을 들이는 데 먹는 물감이죠. 이제 그걸 말려서 포장하는 거예요. 왜정시대에는 인천연합조합이라고 하 인천에 있었어요. 거기에 포장한 걸 가지고 가면 공매를 입찰 공개로 해서 주로 일본하고 중국으로 많이 무역을 했대요. 어르신들한테 듣기로는 중국 사람들은 본토의 토질 관계 때문에 “말린 새우를 먹어야 잡병이 안생긴다”하는 그런 말도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으로 많이 무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8·15 해방 나던 해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어려서 들은 얘기죠.

... (중략) ...

사쿠라보시(찐 새우)말고 그 후로는 건작을 했어요. 생새우를 말려서 그걸 가져다가 팔기도 했었어요. 당시는 여기를 새우 고장이라고 했어요. 에비시마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새우하(鰕), 새우노(蜆), 새우녕(蠃) 자를 쓰고 일본말로 에비시마라고 했었죠.

<자료 6-7> 일제강점기 소무의도 특산물 새우 관련 증언(유병제)

[경향신문, 1962. 12. 6]

서해안에 ‘새우 풍어’

겨울철 서해안에선 유일한 어장으로 알려진 이곳 소무의도 앞 해상 세칭 ‘떼무리’에서는 요즈음 근년에 보기도문 동백화(새우)떼를 만나 하루 평균 14드럼(약 1백70두)씩을 잡는 대풍어를 맞고 있어 영세어민들은 기쁨에 차 있다. 동지를 전후하여 10·11·12월 3개월동안이 성어기인 동백화잡이는 지난 10·11월 2개월에 월평균 4백 드럼(5천두)씩을 잡아내어 매월 1백만원이 란 수입금이 돌레 5백미터도 안되는 이 작은 섬(80여 호)에 떨어져 주민들은 황금의 세례를 받고 있다.

현재 섬 해안으로부터는 동백화를 잡기 위한 언들(주목세) 1백10간(간당 2만원)이 옆으로 꽃혀 있으며 잇달아 각지에서 모인 ‘곱배’ 20여 척까지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관계로 4킬로미터나 떨어진 팔미도와는 완전히 새우를 잡는 그물로 메워져 있다. 60, 61년도 두 해는 새우 번식기인 이때 예년에 보지 못한 흥어로 이곳 5백여 명의 영세어민들은 생활을 지탱할 길이 없어 소무의도를 버리고 육지에 나가 땅이라도 파먹고 살자는 비참한 각오까지 한 바 있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후가 좋은 관계로 작년 겨울에 잡은 85드럼의 새우어획량보다도 80% 이상이 더한 어획을 봄으로써 동백화잡이 기간에는 적어도 1천 드럼은 넉넉히 잡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료 6-8> 1960년대 소무의도 특산물 새우 관련 신문기사



<그림 6-30> 소무의도 스토리움에 전시된 특산물 소개 패널

1-4. 물리적 자원

(1) 소무의도 복지회관

- (준공일) 2023년 7월 20일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복지회관으로 준공
- (특 징) 인천도시공사의 “섬주민 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 2번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이 추진됨. 인천도시공사의 “섬주민 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 첫번째 사업 대상은 소무의도 몽여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었음



<그림 6-31> 소무의도 복지회관

(2) 소무의인도교

- (준공일) 소무의인도교는 2009년 4월 29일에 착공되어 2011년 6월 28일에 개통됨
- (특 징) 소무의인도교는 떼무리 선착장과 광명항 선착장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다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이 경사져 있음.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임. 사람, 자전거, 소형차량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이 414m, 폭 3.8m의 해상 인도교이고, 공사 차량 등이 간혹 통행하는 경우가 있음



<그림 6-32> 낙조 및 소무의인도교 전경



<그림 6-33> 소무의인도교 야간 풍경

[동아일보, 2009. 4. 30]

대무의도~소무의도 인도교 착공

인천 중구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길이 414m, 폭 3.8m의 인도교 건설사업이 29일 착공됐다. 중구는 국·시비를 포함해 135억 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대무의도 광명 나루터에서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완공되면 교통과 식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무의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교 설치를 추진했다”며 “드라마 세트장을 갖춰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무의도 관광객과 자전거 이용객 등이 대소무의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6-9> 소무의인도교 착공 관련 신문기사

[중부일보, 2011. 6. 29]

인천 중구, 소무의인도교 개통식 개최

인천 중구는 28일 오후 광명항 물량장에서 김홍복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무의인도교 개통식을 가졌다.

소무의인도교는 열악한 교통 환경과 식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무의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54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4월 착공, 지난달 말 완공됐다. 인도교는 광명항 물량장에서 소무의도 제방까지 연결됐으며, 길이 414m, 폭 3.8m, 연결도로 91m 규모로 건설됐다.

<자료 6-10> 소무의인도교 개통 관련 신문기사

(3) 소무의도 스토리움

- (준 공) 소무의도 스토리움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되었으나 2015년, “섬이야기 박물관”이란 명칭으로 개관하였음. 이후 명칭을 “스토리움”으로 변경하고 정비 과정을 거친 후, 2022년에 재개관하여 2023년 현재 운영중임
- (용 도) 소무의도 스토리움은 연면적 479㎡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되었으며, 1층은 카페와 특산물 판매대, 2층은 전시장 겸 쉼터로 구성되어 있음. 3층은 갤러리로 조성될 계획인데, 2023년 12월에 오픈될 예정임
- (운 영)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카페는 주민들을 고용해 운영중이며, 현재 1명이 고정 근무중임. 기념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기념품은 마그네틱의 판매량이 대부분을 차지함. 1층 카페 방문객은 봄과 가을이 많고, 여름과 겨울이 적다고 함. 대부분 Take out 고객들임. 낚시꾼들의 경우는 현장에서 커피 등을 제조해 마시고, 카페를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함
- (특 징) 1층 전시 공간에서는 “시간, 섬, 기록”이란 제목으로 두 개의 벽면을 활용해 소무의도의 역사 연표, 문화, 명소, 특산물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1층에 마련된 특산물 판매대에는 “백령돌미역”, “장봉도 김” 등 다른 섬의 특산물이 홍보 차원에서 진열되어 있음



<그림 6-34> 소무의도 스토리움 전경



<그림 6-35>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특산물 판매대



<그림 6-36> 소무의도 스토리움 2층 전시장



<그림 6-37> 소무의도 스토리움 2층 쉼터



<그림 6-38>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카페에서 판매중인 기념품

<표 6-3>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 전시공간에 전시된 역사 연표

1700년 전후	소무의도 섬에 박동기 정착
1911년	‘조선지지자료’(1911)에는 소무의도의 원래 명칭이 용유리의 일부분인 ‘떼무리’라는 이름으로 기록
1911년 6월	독립운동가 이동휘(1873-1936) 1911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무의도로 거주 제한조치를 당함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1911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성명회 회장 오주혁(1876-1934)은 1911년 한일합병 무효 선언서를 작성 배포하여 1년간 소무의도로 거주 제한조치를 당함(2006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919년 3월 28일	을왕리, 남북리, 덕교리, 무의도 등에서 ‘용유도의 독립만세운동’을 단행
1946년 11월	소무의도는 일제강점기 때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하고 항일운동에 앞장선 부유한 섬으로 백범 김구선생이 귀국 후 방문하여 시국강연회를 진행
1950년	인천상륙작전 시 병참기지로 사용
1960년대	대통령의 휴가지였던 소무의도
1970년대	새우가 많이 잡히는 부자섬으로 유명세
2009년 4월	소무의도 인도교 착공
2009년 10월 16일	인천대교 개통
2011년 4월	소무의인도교 준공
2012년 5월	무의 바다누리길 개방
2015년 6월	소무의도 섬이야기 박물관 개관
2019년 4월	무의대교 개통

[인천신문, 2014. 11. 17]

소무의도 ‘섬 이야기 박물관’ 말문 닫았다

인천시 중구가 2011년 9월부터 총 사업비 20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지상 3층에 연면적 453㎡규모의 ‘섬 이야기 박물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3일 준공허가 승인이 떨어진 이 박물관은 1년 넘게 개관조차 못하는 천덕꾸리기 신세로 전락했다. 전시 물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박물관을 관리·운영할 인력마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구는 당초 어구·어망과 전통어업 방식 재현물, 주민들의 삶 이야기 등을 전시하는 ‘섬 이야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청소 1명, 안내 2명, 시설관리 1명 등 모두 4명의 관리·운영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는 연간 7천만원을 투입해 이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구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요량이었다. 하지만 출·퇴근을 하는데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아니면 월미도~구읍벚터간 뱃길을 이용한 뒤 또다시 잠진~무의도간 뱃길을 거쳐 인도교인 대무의도~소무의도간 교량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교통비도 교통비지만 요즘 같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뱃길이 끊겨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소무의도 현지에 관리·운영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할 경우 인건비보다 부대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차선택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이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고령인데다가 생업을 제쳐두고 ‘박물관에서 일하겠다’는 주민이 없었다. 소무의도에는 48가구 78명이 살고 있다.

구는 준공된 지 1년이 넘자 할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등의 관리를 위해 지난 14일 구 시설관리공단과 운영을 제외한 시설물 관리만 연간 3천만원 정도에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허나 구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박물관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료 6-11> 소무의도 섬이야기 박물관 미개관 관련 신문기사

[OBS, 2022. 2. 25]

무의도-소무의도 ‘섬이야기 박물관’ 재단장 … 내달 개관

소무의도에는 소무의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섬이야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내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설을 재단장해서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형 통신원 나와주세요.

소무의도의 섬이야기 박물관, 곧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고요?

【무의도-김정형 통신원】 네, 소무의도 섬이야기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문을 닫았고, 그 기간에 재단장했습니다. 2015년 개관 당시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관광객이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재개관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명칭을 섬이야기 박물관에서 ‘소무의도 스토리움’으로 바꿨습니다. 영어의 ‘스토리’와 우리말의 ‘움이 트다’의 움을 합쳐,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스토리움을 재단장 하기 전에는 소무의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미흡했지만, 이제 소무의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병선/소무의도 주민 대표: 사진에 있는 섬이 소무의도입니다. 여기 ‘명사의 해변’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일가가 휴양을 했던 곳이고요.]

또한 박물관 내에 카페가 생겨 관광객들은 편의를 도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무의도 특산물을 함께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인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구문화재단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중구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소무의도 스토리움’을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료 6-12> 소무의도 스토리움 개관 관련 신문기사

(4)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 (준 공) 2014년 행자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장됨
- (운 영)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은 소무의도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함
- (특 징) 소무의도에서 건조·생산된 건어물 등을 냉장·냉동 보관하여 판매하며, 건어물의 종류는 농어, 장대, 아구 등이 있음

[중부일보, 2018. 10. 23]

인천 중구, 소무의도 환경개선공사 실시

인천 중구는 오는 26일부터 두 달간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무의도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무의도 누리바다 둘레길을 중심으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조형물(포토존)을 설치하는 한편 난간 보수공사를 시행해 관광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이 행자부 ‘찾아가고 싶은 섬’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5억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이뤄진다.

올해는 건어물가공저장시설 리모델링과 마을경제센터를 조성해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했으며 물양장 주변 불법건축물을 제거해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도 일조했다. 내년에는 마을문화센터, 섬이야기 박물관 정비, 민박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무의도는 자연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연간 35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며 “내년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완성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환경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6-13>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관련 신문기사



<그림 6-39>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전경



<그림 6-40>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에서 판매중인 건어물



<그림 6-41>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 건어물 건조 작업



<그림 6-42> 소무의도 수산 건어물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건어물

(5) 무의교회

- (연 혁) 1934년 내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장마리아 전도부인이 1936년까지 소무의도에서 전도활동을 하였음. 이어 1938년 광양소학교 교사로 임명 받은 오지섭이 서희순과 만나 처음 목조에배당을 건설함. 이후 1940년 초대 담임 교역자가 파송되며 정식 교회로 설립하였음. 현재의 무의교회 자리는 과거에 어업조합이 있던 곳이며, 1964년에 토지를 매입해 지금의 교회를 건립함
- (현 황) 현재 무의교회에는 이상환 목사가 2011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음. 이상환 목사는 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소무의인도교를 왕래할 수 있도록 10여 년에 걸쳐 봉사를 해 왔음. 현재는 섬 내 사정으로 인해 잠시 중단한 상태임

[TOP News, 2021. 8. 2]

[인터뷰] 작은 섬 소무의도에 주민들의 다리가 되어준 삼륜오토바이 사역자를 만나다

이곳 소무의도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인천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가야 하는 일로 나가야 했습니다.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잇는 해상 인도교가 있습니다. 거리가 414m의 아치형 다리인데 주민들은 그 다리를 건너기 힘들어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다리가 개통되고 난 뒤에도 소무의도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리가 아프시고 불편하셔서 인도교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계기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륜오토바이는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천막을 치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료 6-14> 무의교회 이상환 목사 인터뷰 기사

[국민일보, 2021. 8. 28]

[한국기독교역사여행] 서해 낙도에 뿌린 전도 열정 … 복음으로 섬을 잇다

오지섭은 덕적도 우포교회(현 덕적제일교회)를 섬기며 기독교 청년 지도자로 성장해 갔다. 1938년 소무의도 광양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폐쇄됐던 무의교회를 재건해 120여명의 교우를 얻기도 했다. 그때 혼자 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올린다는 소식을 들은 서희순이라는 교인이 나타나 그의 손을 잡으며 “선생님, 예수를 믿으신다죠” 하며 울었다. 독립운동가 임병직(1893~1976 · 초대 외무부 장관)의 어머니였다. 서울 안동교회를 섬기던 임씨 집안은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탄압받자 그곳에서 사실상 숨어지내고 있었다. 무의교회는 덕적도에서 나무를 실어와 예배당을 지었다. 임씨 집안 등이 출석하며 자그마한 섬 주민 전부가 교인이 됐다.

<자료 6-15> 무의교회 건립 관련 신문기사



<그림 6-43> 모예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의교회

(6)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 터

- (연 혁)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는 동쪽마을에 위치해 있음. 1995년에 폐교된 후 개인에 매각됨. 무도분교의 학생 수는 한때 100여 명을 넘었다고 함. 과거 소무의도에는 광양소학교가 있었다고 함
- (현 황) 현재 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에 소무의도 스토리움이 건설되었음

[오지섭(1991), 「나의목회 한평생」, 삼필문화사]

22살 되던 1938년 음력 정초였다. 인천앞 떼무리 광양(光陽)소학교 교사로 있는 내 외사촌 매형 인기선(1913년생)씨와 떼무리 어업조합에 근무하는 내 4종형인 오공섭(1915년생)이 음력 정월 명일 쉬러 덕적에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떼무리 광양소학교 선생으로 오라!”고 직장을 주선해주었다. 그래서 1938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 인천 앞 바다가운데 있는 부천군 용유면 소무의도(속칭 떼무리)에 있는 광양소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자료 6-16> 광양소학교 관련 오지섭의 회고



<그림 6-44> 폐교될 무렵인 1995년의 무도분교 항공사진³⁸⁾

38) 인천광역시 지도포털(<https://imap.incheon.go.kr/icmap/map.jsp>).



<그림 6-45>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 전경



<그림 6-46> 용유초등학교 무도분교 내부

(7) 관광안내소

- (준 공) 섬 특성화사업 1차 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시설이며, 컨테이너 건물로 제작됨
- (운 영) 외지인 공공근로 종사자 1명이 배치되어 안내를 맡고 있음
- (특 징) 관광안내소에서는 팸플렛 배포 및 섬 안내 등의 업무를 주로 하며, 관광안내소 옆에 “느린 우체통”이 있음



<그림 6-47> 관광안내소



<그림 6-48> 관광안내소 옆 느린 우체통

1-5. 역사 · 문화적 자원

(1) 고지도

○ 1872년 지방지도 중 「영종지도(永宗地圖)」³⁹⁾

- 1872년 제작된 고지도임. 소무의도는 “체 무의도(贅舞衣島)”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체(贅)”는 “군더더기”란 의미로 “쓸모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그림 6-49> 「영종지도」의 소무의도

○ 동여도(東輿圖)⁴⁰⁾

-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고지도임. 소무의도는 별도로 소개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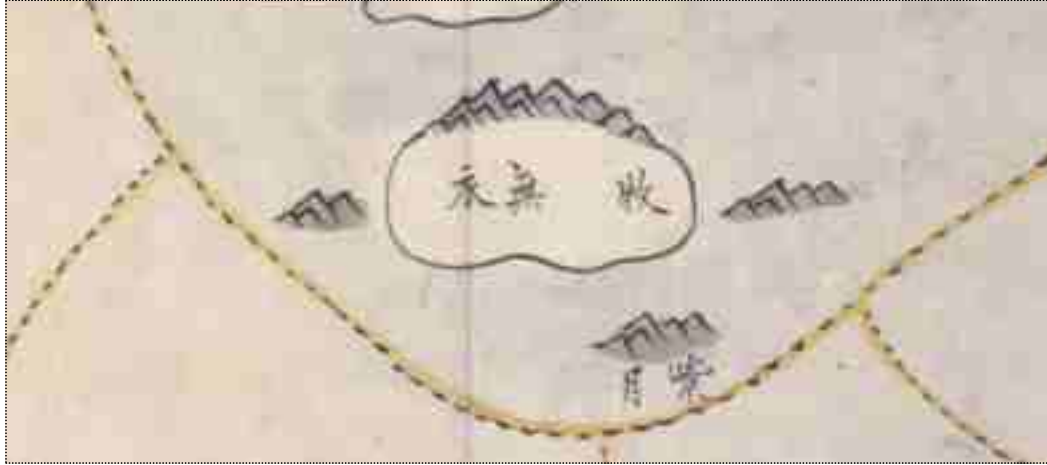
<그림 6-50> 「동여도」의 무의도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0347_00&vol_no=0001&page_no=&imgFileNm=KYKH001_0000_0006.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0340_00&vol_no=0014&page_no=&imgFileNm=KYDY001_0000_1405.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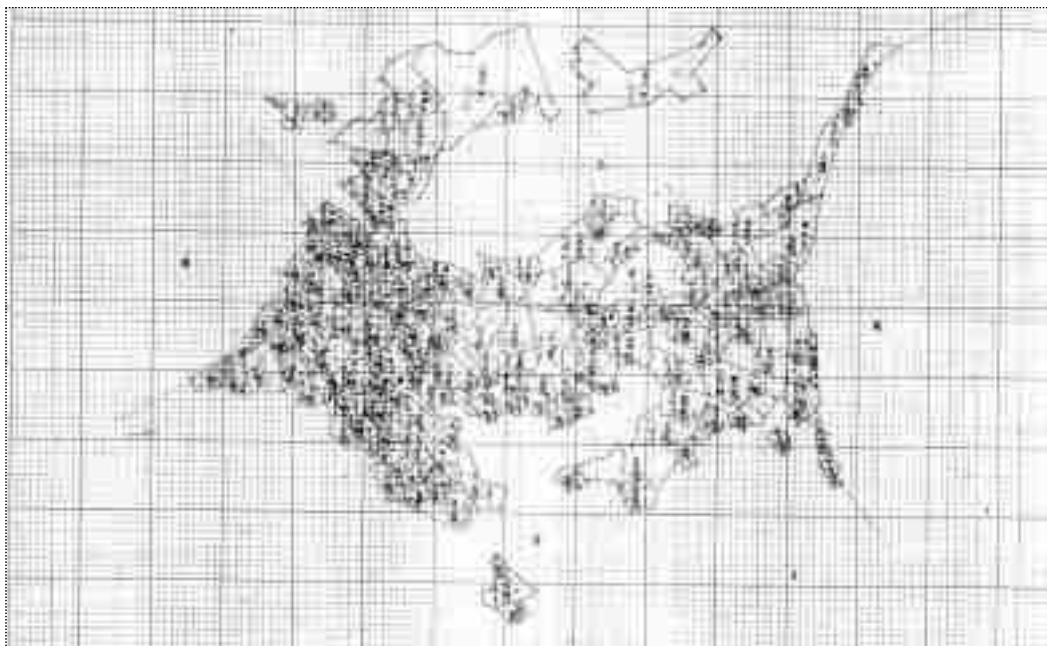
- 19세기 중반 제작된 고지도임. 소무의도는 별도로 소개되어 있지 않음



<그림 6-51> 「대동방여전도」의 무의도

○ 지적원도

- 1916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제작한 지도임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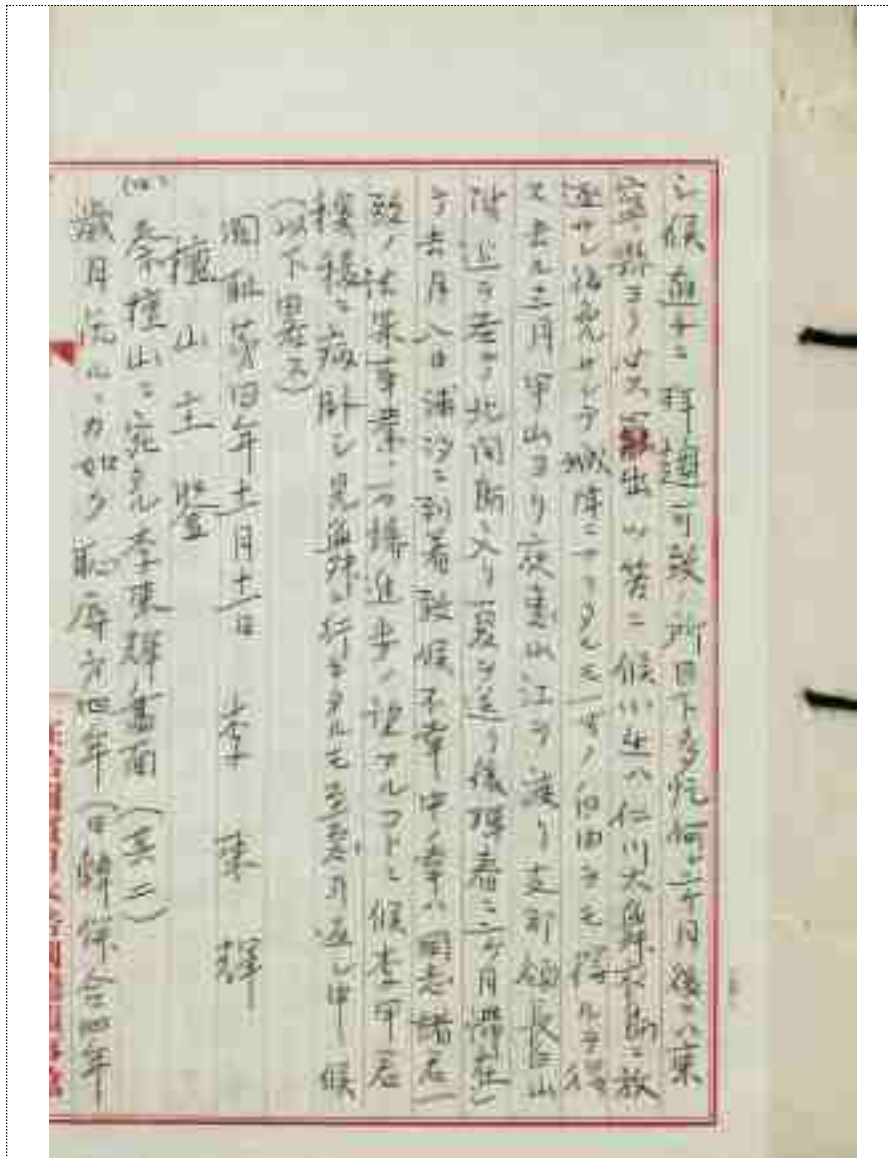
<그림 6-52> 「지적원도」의 소무의도

4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0341_00&vol_no=0013&page_no=&imgFileName=GK10341_00IL0013_006n.jpg&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4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2) 이동휘의 대무의도 유배

- 소무의도 1층 전시공간에 전시된 역사연표 중, 이동휘의 1911년 무의도 거주 이동 제한 조치는 이동휘가 1911년에 105인 사건과 관련해 선고 받은 “원도안치(遠島安置)” 판결에 해당하는 사건임. 이때 이동휘는 1년간⁴³⁾ 대무의도에 원도안치 된 적이 있음



<그림 6-53> 대무의도 원도안치를 언급한 이동휘의 서면 내용⁴⁴⁾

43) 「신한민보」, 1912. 7. 29.

44) 「當 館管内 朝鮮人の 動靜에 관한 報告(機密 第40號; 秘受 6956號)」, 川越茂 (哈爾濱총영사대리)→加藤高明(외무대신), 1914년 08월 26일→1914년 09월 04일
[문서철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4」](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이동휘의 대무의도 원도안치(遠島安置) 관련 연구

京城地方裁判所에서 安明根 등 18名에 관한 强盜 및 同未逐被告事件과 梁起鐸 등 16名에 관한 保安法違反被告事件에 대한 판결이 있어 朱鎭洙, 梁起鐸, 安泰國, 林崙正, 高貞華, 金道熙는 各 懲役 2년 玉觀彬, 甘翊龍, 安允在, 金容奎는 各 懲役 1년半 柳文馨, 權泰善은 各 懲役 1년 金容參, 金成柱, 金熙祿, 鄭達河는 各 懲役 6월[以上 梁起鐸 關聯事件] 安明根은 無期懲役 朴晚俊, 裴敬鎭, 李承吉, 金龜, 韓亨稷, 金鴻亮, 元行燮은 各 懲役 15년 都寅權, 楊星鎭은 各 懲役 10년 崔益馨, 崔明植, 金益淵, 張倫根, 高奉守, 朴亨秉, 韓禎教, 金庸濟는 各 懲役 7년이 선고 되었는데 본 사건은 지난 3월에 警務總監部에서 취급된 것으로 관련자 70여명 중 34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 하여 李東暉 등 17명은 19일부터 遠島安置 처분을 당했는데 그 주요인물은 李東暉(京畿道 大舞衣島), 高敬俊(忠南 於靑島), 崔衡穆(忠南 於靑島), 張明善(全南 智島), 崔重鎬(全南 珍島), 李昇薰(全南 濟州島), 鄭澤鉉(全南 濟州島), 申教範(全南 濟州島), 張應善(全南 莞島), 許鍾(全南 古今島), 金聖淑(全南 古今島), 金益聲(全南 巨文島), 高一淸(全南 巨文島), 金秉玉(全南 羅老島), 李相晉(慶南 愍智島), 朴道平(慶南 鬱陵島), 鄭文源(慶南 鬱陵島), 崔時俊(慶南 鬱陵島)이다.

「起訴事實」 梁起鐸은 수년 전부터 舊韓國의 國情을 慨嘆하며 韓國에서 日本의 세력을 배제하고 舊韓國의 國權을 회복코자 하되 안으로는 新聞紙에 의하여 國民을 각성하고 밖으로는 西間島 이주의 韓國인을 개발 양성하여 倣國權회복을 도모하고자 할새 당시에 주재하던 大韓每日申報 紙上에 그 계획 및 사상을 누누히 발표하였는데 隆熙 4년 5월에 同 新聞은 매각되고 그 다음에 韓日합병이 되므로 인하여 同地 이주사업에 전력을 하되 다수한 韓國인을 同地로 이주케 하고 다시 유능한 청년을 모집하여 西間島로 送하여 倣 敎育을 베풀고 文明에 進케 한 후 武官學校를 설립하고 사기를 진흥하였다. 기회를 보아 舊韓國의 독립을 계획하기로 梁起鐸과 일심 동체라 칭하는 林崙正과 日夕에 상호 왕래하여 素志 遂行의 모의를 정하고 그 후에 同志 李東寧, 金龜, 金道熙, 安泰國, 朱鎭洙 등과 회합하여 西間島 이주의 모의를 하고 金龜는 黃海道를 安泰國은 平安道를 朱鎭洙는 江原道를 梁起鐸 및 林崙正은 京畿道 기타를 담임하여 이주자를 권유 모집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에 발각된 것이다.

<자료 6-17> 이동휘의 대무의도 원도안치(遠島安置) 관련 연구⁴⁵⁾

45) 국사편찬위원회(1966), 「일제침략하 일제 36년사」, 1권.

(3) 소무의도 탐승회

- 1949년 9월 11일에 대한여행사는 소무의도 관광을 목적으로 200여 명의 관광객을 모집해 소무의도 탐승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대한여행사 주최의 소무의도 탐승회는 당일 코스로 서울역 출발 예정이었음

[자유신문, 1949. 9. 2]

소무의도 탐승회, 대한여행사 주최

대한여행사에서는 오는 9월 11일에 인천에 있는 소무의도 탐승회를 개최하리라 하는데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고 한다.

[동아일보, 1949. 9. 3]

소무의도 탐승회 개최

대한여행사에서는 금반 동사 제21차 행사로서 인천근해에 있는 소무의도를 일반에게 소개 선전하고자 9월 11일(당일 왕복) 남녀 2백명으로 편성된 탐승회를 개최할 터인데 신청기일은 9일까지 서울역전 동사 선전게로 하여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당일 상오 7시 10분 서울역 발 열차로 출발할 터이다.

[조선일보, 1949. 9. 3]

소무의도 탐승회

대한여행사에서는 인천근해에 위치한 소무의도를 소개하고자 오는 11일 탐승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일반참가자는 9월 9일까지 회비 7백원씩 첨하여 서울역전 동사 선전게로 신청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료 6-18> 소무의도 탐승회 관련 신문기사

(4) 백범 김구와 소무의도

- 소무의도에는 광복 후 백범 김구가 무도분교를 방문해 연설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음
- 1969년부터 1988년까지 이장을 맡았던 유병제는 백범 김구의 소무의도 방문에 대해 증언을 남긴 바 있으며, 「떼무리 바다이야기」(무의보건진료소 기획, (주)작가의 탄생, 2021), 「섬을 지켜온 사람들」(용유도 편)(인천연구원, 2021)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유병제는 백범 김구가 소무의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소무의도 사람들이 독립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러 왔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백범 김구는 1946년 11월, 인천 어민들의 생활을 “시찰”한 후 강화도를 방문해 합일초등학교에서 연설을 하였음. 김구가 소무의도를 방문했다면 이 시기일 가능성이 큼

[조선일보, 1946. 11. 23]

김구씨 강연회

김구 씨는 19일 오후 1시 30분 엄항섭 씨외 수원 두 명을 대동하고 강화읍에 도착한 후 오후 세시부터 군민 주최의 환영회장인 합일학교 교정에서 2천여 명의 청중이 모인 중 독립전취를 격려하는 연설을 하였다.

[수산경제신문, 1946. 11. 22]

김씨, 생어민(生漁民) 생활을 시찰

김구 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0시 30분 엄항섭 씨 외 수원 8명을 대동하여 인천에 도착하였는데 인천 당구(當區) 박경찰청 차장의 안내로 무□도의 어민생활을 시찰하고 동지 국민학교 강당에서 강연이 있는 후 동어민의 각 가정을 방문한 다음 인천에서 1박 익(翌) 19일 오전 일□ 강화도에 향하였는데 김포를 경유하여 21일 귀경하였다.

<자료 6-19> 백범 김구의 인천, 강화도 방문 관련 신문기사

[무의보건진료소 기획(2021), 「떼무리 바다이야기」, (주)작가의 탄생, p. 23.]

김구 선생 오신 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15해방이 되었어.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이 소무의도에 오셨어.

소무의도에서 새우, 꽃게를 잡아서 독립자금을 많이 댔었다고 해.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오셨어.

그때는 소무의도가 용유 전체 세금의 3분의1을 낸다고 할 만큼 고기잡이로 부유했었어.

어른들이 김구 선생 오셨다고 해서 뵈러 갔지.

어른들 뒤에서 바라봤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검정안경을 쓰고 계셨어.

[인천연구원(2021), 「섬을 지켜온 사람들(용유도 편)」, pp. 146-147.]

풍족했던 새우고장, 소무의도에서 70년-구슬자 유병제의 삶

백범 김구 선생님이 8·15 해방 후에 소무의도에 오셨더라구요. 그때가 여름이었는지 봄이었는지 그게 기억이 확실하게 안나요.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당시는 이 자리에 이런 학교 건물은 없었고 창고 건물만 있더라구요.

... (중략) ...

여기에 단상이 있었는데 왜 학교 선생님들이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얘기 하는 곳 있잖아요. 어떻게 이 양반들이 그걸 구입해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요렇게 났었어.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어른들은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림책을 보면 알텐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발로(발 뒤꿈치를 들고) 요렇게 하고서 봤죠. 제가 김구 선생님 연설하는 거를 봤어요. 안경도 이렇게 쓰시구 허름한 도포자루 같은 거 입으시고 서서 말씀하셨더라. 근데 그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료 6-20> 백범 김구의 소무의도 방문 관련 증언(유병제)

(5) 무의교회 기념비석 및 옛종

- 무의교회 마당에 무의교회 기념비석과 1973년부터 사용됐던 옛종이 기념물로 조성되어 있음. 기념비석에는 ‘고 서희순 여사 기념예배당’이라고 음각되어 있고, 옛종은 무의교회 유연목 장로가 대구에서 구매해 기증한 것임
- 무의교회에는 교회와 관련된 옛 사진을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음. 특히 1938년의 기념사진은 예배당이 건립된 후 촬영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소무의도 서쪽마을의 풍경이 뒷배경으로 남아 있어 훌륭한 사료적 가치를 지님. 촬영된 장소는 현재 소무의인도교를 지나 마을로 진입하기 전 돌출되어 있는 바위 앞으로 추정되며, 아이들의 숫자로 볼 때 당시 소무의도의 인구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무의교회 기념비석 안내판

故 서희순 여사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2대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임병직 박사(장남/1893-1976)의 어머니입니다. 임병직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던 1913년 서희순 여사에게 성경책 속에 편지를 쓰고 떠나게 되었는데, 편지에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책을 보라는 내용이었다. 신앙이 없던 서희순 여사는 그 뒤로 서울 안동교회에 출석하였다.

아들의 독립 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핍박이 거세져 차남 임병설(소무의 어업조합 이사장)이 있던 소무의도로 거처를 옮겼다. 소무의도로 언제 낙향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세월 장남을 위해 기도했으나 소무의도에는 예배당이 없어 담담한 세월을 보냈다.

담담하던 차에 소무의도의 초등교육 기관인 무도분교에 예수님을 믿는 ‘오지섭 선생님’이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희순 여사는 본인의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제안을 하게 된다. 초기에는 서희순 여사와 차남 임병설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점점 믿는자의 수가 늘어 1년 만에 소무의도에 결신자가 120명에 달했다. 서희순 여사는 예배의 초석을 놓고 1938년 여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후 1938년 가을부터 오지섭 선생님이 덕적도에서 나무를 베어 와 소무의도에 한옥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서희순 여사의 믿음과 신앙을 기리기 위해 초창기 교회에 비문을 남긴 것이 위의 비석이다. 좌측에는 ‘기독교조선감리회 소무의예비당’이란 비석도 있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자료 6-21> 무의교회 기념비석 안내판 내용

무의교회 옛종 안내판

상단의 종은 故 유연목 장로님께서 1973년 집사 시절 인천시내의 모 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무의교회에 헌물하셨다. 무의교회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치던 작은 종으로 예배시간을 알렸다. 1964년 어업조합 터를 매입하였고, 조합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꾸미면서 조금 더 큰 울림의 소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학교 종을 대신하여 사용했던 것이 산소통을 절단한 원통형 종이었다. 종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소리가 더 컸기에 한동안 산소통 종을 사용했다.

부흥성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故 유연목 장로님은 무의교회에 종탑을 세우기 위해 큰 헌신을 하셨다. 그리하여 1973년 가을에 담임자인 인요환 전도사(1972-74년)와 함께 대구에 가서 종을 구매했다. 종에는 당시의 품명을 그대로 품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망종-특호-250-대구-신일기업사)

인요환 원로목사(2018년 은퇴)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에서 종을 실고 연안부두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소무의도로 가는 객선에 250kg이나 되는 종을 싣고 소무의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무게가 상당했기에 마을 청년들이 모두 나와 교회까지 옮겼고, 종탑 구조물 설치까지 도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종소리가 소무의도에 우렁차게 울릴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종은 1982년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종을 치셨던 강은심 권사와 성도들의 증언으로는 종이 깨졌고, 종탑도 위태로워 지상으로 내려놓게 되었다고 한다. 무의교회 26대 담임자인 이상환 목사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0년에 종을 탑으로 복원하려 했으나 종신 중간부분까지 생긴 균열로 인해 복원하지 못했다. 소형 종탑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종신과 주축대에 큰 유격이 있어 기울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횡을 당길 때마다 종신이 좌우로 주축대를 때리는 큰 충격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지상에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종신과 주축대의 유격은 소형 종탑 작업을 하는 과정에 용접하여 수평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80주년 종과 탑은 새로 제작하였고, 故 유연목 장로님이 헌물하신 종은 2021년 10월 30일(토)에 본 모습으로 새단장하여 당시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었다.

<자료 6-22> 무의교회 옛종 안내판 내용

떼무리(小舞議島) 시절

“하나님! 선교사로 떠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리고 불타는 가슴을 안고 떼무리에 갔다. 임지에 당도한 날은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서 보니, 미신이 우글거리고 완고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소문을 듣자하니 몇해전에 장마리아(인천내리교회출신)라는 여선교사가 전도하러 왔다가 매만 죽도록 맞고 견디다 못해 한명도 결실을 못얻고 쫓겨 달아났다고 하는 말이 들렸다.

동네 중앙에는 당산이 있는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담뱃대를 입에 물고 그곳을 지나다가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서 담뱃대가 입에 딱 달라 붙어버렸다는 얘기도 들렸고, 또 어떤 사람은 뒷집지고 지나가다가 손이 등가죽에 달라 붙어버렸다는 얘기도 있었다(얼마후 청년을 데리고 가서 당나무를 톱으로 베어서 난로불에 태워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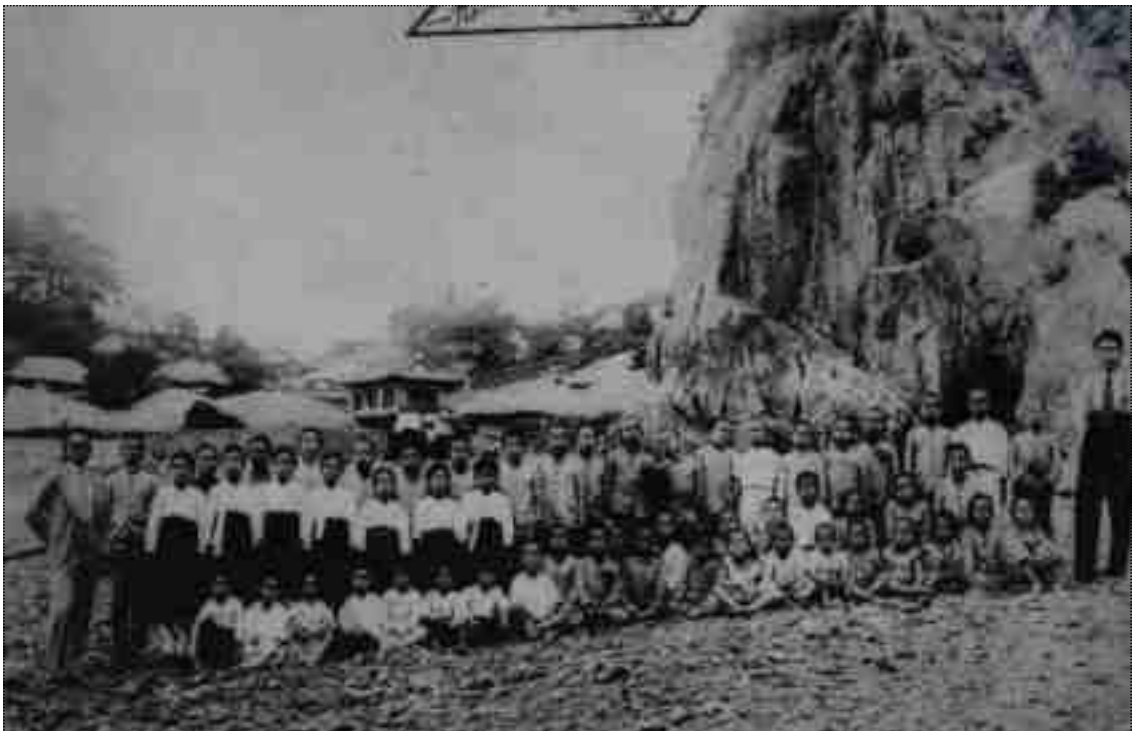
어업조합 이사인 임병설씨댁엘 인사차 들렀더니 이사의 어머니되시는 분이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다. 앉자마자 임이사의 어머니인 서희순여사가 “선생님, 예수 믿으신다지요?”라고 하면서 내 손을 덥석 붙들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잡수시더라”고 애들이 떠돌고 다니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도 서여사의 손을 맞잡고 어찌나 반가운지 감사하며 같이 감읍했다. 이 서희순여사는 바로 초대 외무부장관을 지낸 임병직씨의 어머니되는 분이다.

임병설 이사의 가족 식구 몇, 서희순 여사, 강문달씨와 그의 부인 유금분, 그리고 어업조합 여지도원으로 와 있던 조인애씨(조옥령 전도사 언니, 최병희 목사 이모)와 동네 아이들 몇명으로 교회꼴이 틀을 잡아 갔다. 1년동안 예배를 인도했더니 떼무리교회는 120명 교인으로 부흥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소무의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덕적 우리집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 일가되는 오경재 목수(나와 동갑)를 불러다가 나의 중형 오웅섭이 어업조합서기로 와서 근무할 때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예배당 지을 때 기와는 자월도에서 구어가지고 와서 지붕에 얹었다.

<자료 6-23> 무의교회와 오지섭 목사 관련 기록46)

46) 오지섭(1991), 「나의목회 한평생」, 삼필문화사.



<그림 6-54> 1938년 예배당 건립 후 기념 사진(이상환 목사 제공)



<그림 6-55> 무의교회 초기 기념비석



<그림 6-56> 무의교회 옛종

(6) 마을 추진위원회

- 소무의도는 무의동 12통에 해당함. 통장이 마을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가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인구는 주민등록상 50여 세대에 90여 명이 거주하며, 활동 인원은 31명 가량임
- 주민의 약 70% 정도는 60대 이상으로 노인층에 해당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7) 집성촌 성격의 사회

- 소무의도는 본래 기계 유씨(杞溪 兪氏)의 집성촌으로 유씨가 많이 거주한다고 함
- 현재는 외지인의 유입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임

2. 기존 사업계획 검토

2-1. 추진단계 및 결과

(1) 섬 특성화사업 공모 신청 현황

<표 6-4> 소무의도 공모 신청 결과

사업명	신청 단계	신청 결과
춤추는 소무의도	3 (계속)	3단계 완료('19~'21)

(2) 마을 자체 평가

- 소무의도 섬 특성화사업은 3단계까지 원활한 운영을 이어 왔음
- 현재 섬 특성화사업 4단계 신청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중임

2-2. 주요 추진 내용

(1) 사업명

-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

(2) 사업 내용

- 2014년 행정자치부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
-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소무의영어조합법인 설립
- 2018년 건어물가공저장시설 리모델링 준공
- 2021년 섬이야기 박물관 리모델링 완료

2-3. 기존 사업 분석

(1) 접근성에 대한 고려

- 1단계 사업부터 3단계 사업까지 추진한 사업의 핵심 성과는 건어물가공저장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수산건어물 직매장 개장 및 섬이야기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한 소무의도 스토리움의 개관임
- 이러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단계 사업에서는 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소무의도는 소무의인도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차량을 통한 접근이 불가능함.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광명항 주차장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차를 시킨 후 소무의도에 입도함
- 방문객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조건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차가 없는 섬’이라는 개념에서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방문객의 대부분이 노년층이란 점을 감안하면 불편한 조건으로 제시될 수도 있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스토리움 콘텐츠의 부족

- 소무의도 스토리움 내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는 1층에 조성된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임
- 섬 내에 마련된 흔하지 않은 전시 공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스토리움을 알릴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과제이며,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다른 섬들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그림 6-57> 소무의도 스토리움 원경

3. 종합분석

3-1. SWOT 분석

<표 6-5> 영흥도 진두마을 SWOT 분석 결과

○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우수 ○ 주변의 섬과 해양 조망 우수 ○ 무의도 연결 인도교 조성 ○ 차없고 걷기 좋은 섬 이미지 구축 ○ 특성화사업 진행	○ 마을 주민 노령화 ○ 대중교통 이용 불편 ○ 멀리 있는 주차장 ○ 마을 소득원 다각화 필요 ○ 좁고 노후한 마을길
[내부적 요인] 강점(Strength)	[내부적 요인] 약점(Weakness)
[외부적 요인] 기회(Opportunity)	[외부적 요인] 위협(Treat)
○ 섬해양관광에 사회적 관심 증가 ○ 꾸준한 관광객(뉴시객) ○ 대무의도 연결성 개선 ○ 교육청, 무의도폐교 활용계획 수립 ○ 주변지역 연계 발전	○ 상하수도 연결 및 확보 ○ 경쟁적인 섬개발 ○ 수산물 등 어족자원 감소 ○ 젊은 관광객 적음 ○ 고령화로 인한 마을거주 인구부족

3-2. 소무의도 핵심성공요소

<표 6-6> 소무의도 핵심성공요소

구분	내용
자원성	· 둘레길, 섬해양 조망 등 우수한 경관자원 보유
지역성	· 무의대교를 통한 영종도, 인천, 수도권 접근성 확보
화제성	· 소무의도 스토리움, 소무의 인도교의 바람 등 특화 콘텐츠 보유
체험성	· 둘레길, 마을길, 낚시 등 다수의 체험 요소 보유
접근성	· 소무의 인도교 조성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지속성	· “차 없는 섬” 이미지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요소 확보

3-3. 소무의도 전략방향

<표 6-7> 소무의도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S-O 전략	S-T 전략
○ 소무의도 마을 브랜드 확립 · 마을 가치와 잠재력 극대화, 차별화 브랜드 확립 필요 ○ 소무의도 특화콘텐츠 발굴 · 차없는 마을, 작은 섬, 해양(갯티), 경관 조망 등 자원 활용 콘텐츠 발굴	○ 느린 섬 이미지 확보 · 걷기 좋은 섬, 섬과 치유의 마을 이미지 부각 ○ 화제성 있는 이벤트 발굴 · 섬이야기박물관 전시공간 활용 정기적인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W-O 전략	W-T 전략
○ 관광객 친화적 환경조성 · 좁은 마을길 정비, 걷기 좋고 인심 좋은 섬 이미지 구축 ○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 마을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 발굴	○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마을 자원 적극 홍보 ○ 주민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섬주민과 외지인, 청년들과 함께 하는 참여교육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4. 마을발전구상

- 21세기 관광의 핵심 개념은 감성, 스마트, 건강, 일상, 휴가, 네트워크, 사진, 공유, 테마 등임
- 소무의도는 소무의인도교, 소무의 스토리움 등 특화된 시설 및 마을길, 둘레길, 수산물 등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발전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
- 기존의 섬 특성화사업인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 등을 고려하여 마을 활성화 전략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함
- 하늘, 바다, 마을안길, 둘레길, 해변길을 활용해 “천천히/함께 걷기” 좋은 마을이란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수립함

<표 6-8> 소무의도 발전구상

비전	가치 찾고 같이 걷는 소무의도		
방향	하늘과 바다, 섬의 가치를 찾는 마을	작지만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모두 같이 걷는 마을
전략	○ 섬해양 조망하기 좋고 사진찍기 좋은 명소 발굴 ○ 소무의도만의 먹거리 발굴 ○ 몽여와 명사해변 등 소무의도 이미지 강화	○ 마을 이야기 추가 발굴 및 스토리 디자인 계획 수립 ○ 어린이와 학생 등 젊은 층 참여 프로그램 개발 ○ 마을 스토리텔링 활용한 마을길 브랜드화	○ 걷기 좋은 마을길 정비 ○ 모두 함께 걷는 이벤트 프로그램 발굴 ○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특화된 숙박시설 도입

4-1. 발전비전

- 소무의도가 보유한 자연경관, 자원의 특성 및 마을 환경 등을 반영하여 “가치 찾고 같이 걷는 소무의도”를 비전으로 설정함
 - 소무의도의 우수한 섬해양경관자원, 마을길, 둘레길 등을 활용하여 인지도와 이미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섬 지역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소무의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4-2. 발전방향

- 하늘과 바다, 섬의 가치를 찾는 마을
- 작지만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 모두 같이 걷는 마을

4-3. 발전전략

(1) 하늘과 바다, 섬의 가치를 찾는 마을

- 섬해양 조망하기 좋고 사진찍기 명소 발굴
- 소무의도만의 먹거리 발굴
- 몽여해변과 명사해변 등 소무의도 이미지 강화

(2) 작지만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 마을 이야기 추가 발굴 및 스토리디자인 계획 수립
- 어린이 및 학생 등 젊은층 참여프로그램 개발
- 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을길 브랜드화

(3) 모두 같이 걷는 마을

- 걷기 좋은 마을길 정비
- 모두 함께 걷는 이벤트 프로그램 발굴
-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특화된 숙박시설 도입

5. 단계별 사업 제안

<표 6-9> 소무의도 단계별 사업 제안

구분	단기(2025~2026년)	중장기(2027~2030년)
사업명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과 연계된 느린섬 만들기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체류형마을 만들기
실행전략	소무의도 “함께 가치 발굴” 프로그램 개발	“춤추고 걷기 좋은” 체류형 관광마을 개발
공간범위	마을 중심부	마을 전체
도입내용	이미지 구축	화제성
중심 키워드	걷기, 이동수단	체류, 숙박
하드웨어 사업	· 걷기 좋은 마을안길 정비 · 안전·특별 이동수단 도입	· “천천히 걷는길” 완성 · 특성화거점공간 적극 활용 · 체류형 관광시설 도입
소프트웨어 사업	· 소무의도 그리기대회	· 마을자원 추가 발굴 · 마을길 이미지 구축
홍보마케팅 사업	· 온라인 홍보강화 · SNS 활용 홍보이벤트	· 홍보활동 지속
역량강화 사업	· 마을아카데미 운영 ·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 제정	· 마을아카데미 지속

5-1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과 연계된 느린섬 만들기

(1) 걷기 좋은 마을안길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중심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내용

- 볼거리 제공과 마을환경개선의 측면에서 노후된 소무의도 마을안길 정비가 필요하며 걷기 좋은 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동쪽마을과 서쪽마을 각각의 우물, 돌담길, 벽화길, 교회이야기, 대통령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담긴 소무의도 마을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정비가 필요함

(2) 안전 · 특별 이동수단 도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장 소 : 마을전체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내용

- 소무의인도교에는 차량 출입이 어려우며 섬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의도의 광명항까지 이동해야 함. 마을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안전하고 특별한 이동수단이 필요함
- 관광객 중 다수는 노령층임. 이들을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함.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영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왕복하는, 소무의도 전용의 안전하고 특별한 “탈것”이 필요함. 골프장 카트와 같은 소형(6인승 정도) 이동수단이 필요함
- 소형 이동수단은 전담 운전기사 채용으로 주민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3) 소무의도 그리기대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중심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춤추며 느리게 걷는 치유의 섬”인 소무의도 특성화사업의 컨셉을 홍보하고 전시물 확보를 위해 소무의도 그리기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소무의도 그리기대회는 중구문화재단, 인천지역 언론사 등과 협력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소무의도 그리기대회의 주제는 소무의도의 바다, 하늘, 숲 그리고 마을과 주민이야기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소무의도 그리기대회의 입상작들은 소무의도 스토리움 전시 공간 등을 활용해 전시할 필요가 있음
- 초청전시회 등 소무의도 스토리움의 특별이벤트, 폐교부지를 활용한 “작고 느린 축제” 개념의 정기 이벤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4) 온라인 홍보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마을개요, 관광자원소개, 교통체계, 숙박정보 등 마을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함
-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중구청 관광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의 기존 숙박시설 등과도 연계함
- 블로그기자단 모집 운영, 마을관광 유튜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병행함

(5) 마을아카데미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마을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마을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공동목표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성화사업 마무리의 필요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주변 상황변화에 맞춰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이해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카데미 내용으로는 섬특성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 소무의도의 가치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무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인문지리 등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6)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 제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장 소 : 마을전역
- 대 상 : 마을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내용

- 춤추며 느리게 걷는 섬, 소무의도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마을 공동체 유지 강화를 위해 마을주민과 관광객 공동의 노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주민들이 함께 제정할 조례의 내용으로는 넉넉한 인심과 끈끈한 마을공동체 유지, 아름다운 해양경관보전, 마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현장에는 마을주민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마음가짐, 마을자원과 자연경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은 소무의인도교 입구, 관광안내소, 소무의도 스토리움 등에 게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함

<표 6-10> 소무의도 제안 사업별 소요예산(안)⁴⁷⁾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단기 (2025~2026년)	· 걷기 좋은 마을안길 정비	500
	· 안전 · 특별 이동수단 도입	200
	· 소무의도 그리기대회	100
	· 온라인 홍보강화	100
	· 마을아카데미 운영	50
	· 마을조례 및 관광객 현장 제정	50
총 계		1,000

47) 공모 선정 후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및 소요예산 변경 가능

VII. 현장 컨설팅 결과

Ⅶ

현장 컨설팅 결과

1. 1차 컨설팅 결과

1-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표 7-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1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웅진군 북도면 신도2리(고남마을)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후3시
장 소	• 카페 작은언덕로마
참 석 자	• 신도2리 주민 : 이형락 추진위원장, 김형태 이장 • 인천녹색연합 : 장정구 연구원, 이은빈 연구원
1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2025년 신도대교 개통 예정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보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음
- 신도대교 개통으로 인한 여객터미널 기능 축소가 예측됨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과거 양식장 부지를 개조하여 물놀이 시설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은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며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자전거, 사륜 오토바이 등 관광용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 회 센터 건립 등 기타 주민소득 창출 수단을 논의하였음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선착장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섬 내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및 홍보물(리플렛) 제작이 필요함
- 마을 내 주택의 지붕 및 염생식물 색상의 일치성을 활용한 사업이 필요함
- 농작물을 활용한 특산물 제작 방안 수립이 필요함(ex: 단호박 떡케이크, 단호박 식혜 등)
-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1-2.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표 7-2>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1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웅진군 자월면 자월3리(파란마을)
일 시	• 2023년 10월 29일(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자월면사무소 회의실
참 석 자	• 자월3리 주민 : 강지원 위원장, 강명원 주민 • 인천녹색연합 : 장정구 연구원, 김현석 연구원
1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자월도 관광객의 약 60%는 당일 관광 형태로 방문하고 있음
- 현재 천문대 공원 조성중이며, 캠핑장 및 카페와 연계 예정임(자월영농조합 법인 운영)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여행객 쉼터, 특산물 판매장, 식당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천문지도사 양성을 통한 별빛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수수, 나물, 해삼, 전복, 바지락 등을 활용한 마을 특산품 개발이 필요함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트레킹 코스 개발 및 갯티길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 자월도 관광 안내를 위한 홍보물 추가 제작이 필요함
- 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 개발 필요함(수수막걸리 등)

1-3.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표 7-3>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1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옹진군 영흥면 내5리(진두마을)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후 5시
장 소	• 영흥늘푸른센터 1층 카페 터미널
참 석 자	• 진두마을 주민 : 임병삼 위원장 • 인천녹색연합 : 김현석 연구원, 장정구 연구원
1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영흥도는 갯벌이 발달하였으며 바지락 등 수산물이 생산됨
- 수산물의 생산량이 풍부하지만 이를 활용한 특산품은 부재함
- 주민들은 어촌계 작업장 설치를 통해 수산물 가공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함
 - * 카페터미널 : 섬특성화사업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수익 사업장임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갯티길(길마염~꽃섬) 조성 및 정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수산물을 활용한 특산품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작업장 조성이 필요함
- 어촌·갯벌체험관광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영흥대교를 이용해 관광객의 유입이 가능한 홍보수단 마련이 필요함
- 섬 내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및 홍보물(리플렛) 제작이 필요함
- 과거의 뱃길(연안부두~영흥진두항)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1-4.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표 7-4>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1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중구 소무의도
일 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3시
장 소	• 카페 떼무리
참 석 자	• 소무의도 주민 : 이병선 위원장 • 인천녹색연합 : 장정구 연구원, 김현석 연구원, 이은빈 연구원
1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기존의 건어물 공동작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수산 건어물 직매장을 운영 중임
- 수산 건어물 직매장 인근에 위치한 관광안내소는 활용도가 미흡함
- 기존의 섬 이야기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소무의도 스토리움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카페가 운영되고 있음
 - * 스토리움 : 소무의도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기념품을 판매하고 홍보물을 제공함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가 좁아 차량 통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통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령화된 섬 주민들을 위해 개인 이동 수단이 필요함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섬 내 인도 및 골목길의 정비가 필요함
- 폐교된 무도분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섬으로 도약 가능한 인프라 조성 및 타 지역 박물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2. 2차 컨설팅 결과

2-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표 7-5>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2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웅진군 북도면 신도2리(고남마을)
일 시	• 2023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신도2리 다목적회관
참 석 자	• 이형락 추진위원장, 김형태 이장 외 신도2리 주민 33명 •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연구원, 김현석 연구원, 이은빈 연구원 • 웅진군청 도서특성화팀 장원진 • 인천관광공사 섬발전 지원센터
2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불명확하여 주민 의견 취합이 필요한 상태임
- 수변공원의 생태관광지화 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주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요구 및 열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칠면초를 활용한 관광 아이템 및 특산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신도 농산물 직판장을 선착장 부지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시설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선착장 인근 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선착장 건물 활용안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신도대교 개통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착장 및 매표소 건물 이외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변공원 제방 위에 산책로 조성이 필요함
- 과거에 운영되었던 양조장 복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체화 된 사업안 마련 및 사업 관계자들 내 이해관계 정리가 필요함
- 신도 특성화 사업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통해 도출된 방향성 관련 미팅 진행 예정 (11월 마지막 주)

2-2. 사슴개마을(자월3리)

<표 7-6>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2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웅진군 자월면 자월3리(파란마을)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오전 9시
장 소	• 자월3리 다목적회관
참 석 자	• 자월3리 주민 : 강지원 위원장 • 인천녹색연합 : 장정구 연구원, 김현석 연구원, 이은빈 연구원
2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목섬 인근의 데크 사업 추진이 확정됨
- 사업 지역 내 식당 및 편의시설이 부재함
 - * 신도 내 전체에서 운영 중인 식당은 3개로 추정됨
- 자월3리 내 양식장 사업체 및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에 주목함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사유지를 매입하여 여행자쉼터(특산물 판매장, 식당)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천문지도사 양성을 통한 별빛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수, 나물, 해삼, 전복, 바지락 등을 활용한 마을 특산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트레킹 코스 개발과 함께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옴나무, 고사리 등 섬주민이 주목하지 않은 특산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식당 운영 시 메인 메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ex: 나물 비빔밥)
- 양식장 사업체로 인한 섬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한시적인 매표소 개방에 따라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치가 필요함

2-3.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표 7-7>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2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옹진군 영흥면 내5리(진두마을)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후 3시
장 소	• 진두마을 일대 및 통큰칼국수
참 석 자	• 진두마을 주민 : 김용호 부위원장 • 인천녹색연합 : 김현석 연구원, 장정구 연구원, 이은빈 연구원
2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선착장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회센터 방문객 증가로 인해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진두마을 입도객 대부분은 낚시관광객으로, 이로 인한 차량 혼잡이 빈번함
- 낚시 관광객을 통한 인근 민박, 식당으로의 낙수효과 거의 없음
-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공공용지)가 부재함
 - * 2010년 철거된 송전탑 자리로 사용되었던 방제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함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갯티길(길마염~꽃섬) 조성 및 정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갯티길과 연계될 수 있는 어촌·갯벌체험관광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가이드 고용, 도구 대여 등)
- 교통혼잡 및 주차난이 해소되는 저녁시간 관광객 모객을 위해 영흥대교 야경 조경 사업이 필요함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섬 내 스토리텔링을 위해 “피난민 마을”에 대한 역사적 조사가 필요함
- 과거 뱃길(연안부두~영흥진두항) 복원을 통한 여객선 운영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2-4. 소무의도

<표 7-8>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2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중구 소무의도
일 시	• 2023년 11월 11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소무의도 매표소, 소무의도 스토리움(구 섬이야기박물관)
참 석 자	• 소무의도 주민 : 매표소 관리 주민, 스토리움 관리자 • 인천녹색연합 : 장정구 연구원, 김현석 연구원, 이은빈 연구원
2차 컨설팅 요약	

□ 마을 현장 조사 결과

- 섬 내 주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민 인력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함
- 주말 중 대무의도 내 공영주차장 시설과 광명 어촌계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임
- 중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한 소무의도 기념품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품목은 품절된 상태임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 주민 인터뷰를 통해 인도교 이동수단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함
- 이동수단 마련시 형태 및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몽여해변 앞 제방 벽화 작업 등 마을길 정비 및 미화 작업이 필요함

□ 컨설팅 및 제안사항

-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 가능한 무의교회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 소무의도 기념품 재생산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관광안내소 기능을 매표소 위치로 이전해 병합할 필요성이 있음
- 타지역 박물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소무의도 스토리움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3차 컨설팅 결과

3-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표 7-9>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3차 컨설팅 결과

대상마을	• 웅진군 북도면 신도2리(고남마을)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9:30 ~ 11:30
장 소	• 신도2리 다목적회관
참 석 자	• 신도2리 섬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 7명 • 인천녹색연합 : 장정구 연구원, 김현석 연구원 • 인천관광공사 섬발전지원센터 최민경 대리 • 웅진군 지역경제과 길준수 주무관
2차 컨설팅 요약	

□ 특성화 사업 계획안 소개

- 수변공원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 계획보다는 기존 마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연과 함께 빛는 고남마을”이라는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빠어난 자연경관 + 탄소중립)
- SWOT 분석 결과를 반영해 3개의 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함
- 선착장 매표소(신도바다역)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영종도~신도간 연도교 준공 후(25년 예정) 선착장 기능 쇠퇴 예상

□ 주요 의견사항

-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계획의 필요성 및 소득 창출 창구 확보가 필요함
- 선착장 매표소 건물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불가능할 시, 선착장 인근 부지(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산 상품 개발 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 지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칠면초와 병행할 수 있는 특산품으로 아로니아가 제안됨

□ 향후 계획

- 매표소 건물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웅진군 검토결과를 확인함
- 특성화사업 계획안 보완 및 보완된 계획안의 주민 재공유를 실시함
- '24년 섬특성화사업 공모 시 신청 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의 최종안을 논의함



<그림 7-1>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1차 컨설팅



<그림 7-2>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1차 컨설팅



<그림 7-3>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1차 컨설팅



<그림 7-4>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1차 컨설팅



<그림 7-5>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2차 컨설팅



<그림 7-6> 사슴개마을(자월면 자월3리) 2차 컨설팅



<그림 7-7> 진두마을(영흥면 내5리) 2차 컨설팅



<그림 7-8> 소무의도(중구 무의동) 2차 컨설팅



<그림 7-9>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3차 컨설팅



<그림 7-10> 고남마을(북도면 신도2리) 3차 컨설팅

<부 록>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살고 싶은 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I.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4. 사업의 원칙

□ 원칙1) 신뢰형성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을 달성한 것이다.
- 특히 사회적 자본을 간과한 혹은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은 채 정부나 공공이 주도하는 섬 특성화 사업은 주민의 자발성 저하, 성과 위주의 접근 가능성, 예산 따먹기 식 접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의 자치운동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구성원들이란 주민들만 해당할 수도 있고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성화 마을 계획가를 포함한 전문가나 활동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지역적 성격이나 사회적 분위기 혹은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 원칙2) 다양한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 특성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특히 상호 소통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와 인정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의 목적, 자세, 방법, 테크닉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특성화 사업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몸에 밴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된다.
-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대개의 경우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생각한다. 혹은 틀렸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편다. 주민도 그렇고 전문가 또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tv토론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하지 않은 채, 싸워서 이겨야하는 전쟁터 같은 싸움으로 전락하게 된다.
-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말투, 나아가 나와 다른 생각을 제시한 내용의 장점이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주민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 원칙3)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역지사지는 소통의 전제조건이다. 문화적·물리적·경제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역지사지에서 나온다. 그것은 곧 공감의 자세이다.
- 역지사지로 특성화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첫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즉 문화적 관용과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물리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즉 마을에는 다양한 측면의 휴먼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셋째 경제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즉 사회적 혼합의 가치와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는 형평성의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 근대적 개념인 평등한 마을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형평성 있는 마을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왜냐면 평등한 사회, 평등한 마을은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있는 마을이 가능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 없이 특성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소통의 부재와 갈등, 불편과 불만 등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잣대로 주민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역지사지로 접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칙4)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갈등이 희망이다

- 어느 마을이든 갈등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그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한 조직에서 그것이 마을이든 회사이든, 갈등이 늘 존재한다. 특히 일이 잘 진행되거나 좋은 결과가 기대될 때, 갈등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곧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 그 나눔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혹은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욕심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 따라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이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늘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혹은 안 하는 개인이나 그룹들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그들은 평소에 아무런 움직임 없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어떤 때는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 만들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을 반격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악의 축도 아니다. 그들은 엄연히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 마을의 구성원이란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기존보다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쉬운 말로, 나눠 먹을 것이 없으면 갈등도 없다.

□ 원칙5) 느린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 특성화 사업은 빠름의 효용성보다는 느림의 풍요로움이 지닌 가치를 인정한다. 혹시 우리는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너무 빠른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거나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부응해야 하는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단순히 주민이나 전문가 혹은 공무원 각자가 바뀌어야 할 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한 개인의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특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느린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원칙6) 과정이 곧 성과이며 봉사정신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 특성화 사업은 단순히 공장에서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다. 끝이 없는 과정이다, 다만 결과만을 강조하는 특성화 사업은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열중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그 결과가 한 개인(전문가 혹은 공무원)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혹은 한 개인의 실패로 연결되는 치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이럴 경우 주민들조차도 주민 간의 소통보다는 외부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쫓겨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성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짜는 아니더라도 진짜도 아닌 주민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유희에 빠지기 쉽다. 특성화 사업은 과정이다. 이 말은 가시적 성과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 원칙7)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 기간이 좀 더 길어야 한다

- 특성화 사업은 수확공식을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듯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을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단순히 제도를 집행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끊임없이 주민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여타 관련 부서들과 매우 밀접하고 다양한 상호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존의 근무기간을 본 사업에 적용한다면 그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 그 대안으로 처리해야 할 동일한 내용을 두 명이 시간 차이를 두되 시간적으로 중복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본 사업에 적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 원칙8) 사업 착수 전에 주민 특성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계획가나 활동가 혹은 공무원은 마을 주민 조직을 형성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전에 그 마을에 들어가 관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주민들 사이는 어떤지 혹은 그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떤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 사이에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그들이 민감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처음에는 거칠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심하게 관찰·조사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지금처럼 특성화 사업에 적용할 경우, 더 많은 시행착오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원칙9) 사업의 리더는 다수여야 한다

- 주민들은 각자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이 따로 있다. 마을의 리더가 단 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된다. 그에 대한 주민의 견제도 생길 수 있다.
- 아무리 열정을 가진 리더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 대여섯 명의 마을리더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문제 해결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마을리더의 역할을, 가끔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각자 조금씩 다르게 하기도 함으로써 상호 견제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마을리더를 다수 발굴해두면, 이들 중 누군가 사정이 생겨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리더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원칙10) 사업의 예산은 1년 단위 회계연도로 해서는 안 된다

- 12개월이라는 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기 중 하나이다. 회계연도 또한 12개월이라는 1년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특성화 사업은 이 회계연도와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는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돌발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일이 허다한 것이 본 특성화 사업이다.
- 그러나 공공부문(행정)이 관계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예산 집행 시간 적 단위가 1년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예산 집행방법(이월)을 활용하여야 한다.

□ 원칙11) 주민자구능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 전문가와 행정의 도우미 역할이 초기단계에는 높겠지만, 사업이 진행되어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행정가의 도우미 역할을 점점 축소시키면서 주민의 자구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행정서류 처리방법, 회계장부 정리, 일지작성, 홍보와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진행의 모든 단계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원칙12) 최고 마을이 아니라 유일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의 조화이며 공존이다. 하지만 예전 특성화 사업은 오로지 거족의 아름다움만이 우리 관심사가 되었다.
- 이런 형태로 진행한 결과 외관의 멋만을 중시하는 획일적인 경관을 초래하였다. 마을의 경관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의 장소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진정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마을 담장의 그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그림이 아니다. 주민이 그림에 어떻게 관계하고 그 마을의 장소자산이 그 그림에 어떻게 담겨 있는냐가 중요하다.
- 이처럼 진정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마을 경관은 주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애착을 제공함으로써 그 마을이 살고 싶은 곳이 될 것이며 방문객에게는 감동적인 체험을 선사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 원칙13) 예산이 문제가 아니며 작은 실천부터 하여야 한다

- 행정이나 전문가가 사업과정에 개입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는 덜 하겠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무엇인가를 이 마을을 위해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익숙하다. 평상에 몇 명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모임부터 시작해도 된다.
- 이것은 소중한 특성화 과정이다.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특성화 사업에 처음부터 주민을 동원하듯이 모임에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특성화 마을이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여인원은 저절로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런 모임의 결정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특성화 사업을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내 집 앞 청소하기를 주민들과 함께 동의해서 실천하는 일도 아주 소중한 과정이다. 마을 안의 작은 자투리땅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꽃을 심는 일도 소중한 특성화 마을 만들기이다.

□ 원칙14) 주민 홍보가 먼저이며 그다음에 외부에 알려야 한다

- 특성화 사업 과정에 주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히 4년에 한 번씩 있는 국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투표에서도 100% 투표가 불가능한데, 늘 주기적인 모임과 비주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하는 특성화 사업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 물론 마을의 공간적 크기나 세대수에 따라 참여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진행내용을 점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성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 주민들 중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마을 소식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리자. 마을 소식지는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단순히 자랑하는 지면이 아니다.
-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여 애정을 갖도록 하는 소중한 알림인 것이다. 따뜻함과 정감·열정이 담겨있는 것이라면 A4용지 한 장이라도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참여를 원할 때,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쑥스러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하고 있는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의 전달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더 열심히 그 일에 충실하게 된다, 누군가 주민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면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더욱 갖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그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 원칙15) 주민의 진화하는 삶을 담는 것이다

- 전문용역업체의 능숙하고 세련된 그림에 기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림에 기대려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보다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특성화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눌하지만 정감 있는 그래서 주민의 참여와 삶이 담긴 소중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 전문가의 생각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함께 고민하여 나온 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한 전문가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를 전혀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 전문가와 행정가는 그들의 참여와 결정과정, 그리고 사업실천을 도와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도우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문용역업체의 역할과 그 정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 원칙 16) 특성화 사업은 수평적 팀 작업이다

- 모든 재능을 모두 갖춘 주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즉 사업에 필요한 덕목들을 모두 갖춘 주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사업은 단 한 사람의 슈퍼스타를 키우는 일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한 사람보다는, 각자 자신의 역량을 조금씩 겸비한 하나의 팀이 더 소중하다.
- 협동의 힘은 어떤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도 실은 예민하다. 사업 추진과정에 한 사람만 두드러지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물론 마을 전체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문가 또한 그렇다. 재주 만능의 전문가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힘을 모으는 전문가 팀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호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바람직하고 외부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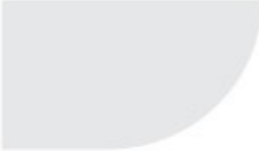
□ 원칙17) 주민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주인이다

- 우리는 명령·지시·간섭·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그 명령과 지시와 간섭과 비판에 책임지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하다.
- 그 결과가 자신과 직접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하다. 그것이 주인과 노예의 차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제대로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인과 노예의 차이, 사장과 직원의 차이를 통해 주인의 관점에서 마을 주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 이것은 특성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주인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마을의 주민이나 주민조직은 늘 행정에 혹은 사업과정에 간섭하거나 감시하는데 몰두하게 된다.

-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조직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게 된다. 공식적인 조직과 주민 개인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민원이 대폭 줄어들어 자체적으로 스크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원칙18) 비관적·비판적인 주민은 늘 있게 마련이다

-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매우 비판적인 주민을 만나게 된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마을의 리더들이나 전문가, 혹은 공무원에게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답답함, 서운함,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진행하던 일도 잠시 뒤 처지기도 한다.
- 지금 하는 일이 단순히 나를 제외한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어쩌면 그 일은 내가 좋아서 그것이 정신적, 명예, 경제적 만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로 보상받는 만족이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람들의 습성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비관적인 생각이나 비판적인 생각은 더욱더 그렇다. 아주 천천히 바뀌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특성화 사업은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다. 그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다. 열정을 가지고, 매 상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다보면 언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러니 아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진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비판적인 주민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가, 비판적인 모든 주민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본 사업의 중심적 리더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